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음 력 리 름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울림

CONTENTS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1. 통신원 사업소개	06
2. 통신원 소개	08
3. 활동사진	12
4. 칼럼	14
5. 통신원 글	88
6. 영상통신원 활동	198
7. 뉴스레터	202



통신원 사업소개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통신원으로 선발해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매월뉴스레터 <울림>을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DB구축을 통해 홈페이지에 아카이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사업기간	2020. 1. ~ 12.
사업비	35,000,000
통신원 주요 역할	일반통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및 편집회의, 교육워크숍(연간 2회), 선진지 견학워크숍 참석 - 센터 사업, 문화예술교육 현장 취재 및 활동 인터뷰 후, 기사 작성 - 센터 facebook, 블로그 및 SNS 운영(센터 홈페이지와 연계 진행)
	영상통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취재(3~5분 이내) 및 카드 뉴스 기사 작성 - 영상 썸네일 제작
모집방법/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문화재단·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통신원 모집 보도자료 배포, SNS 및 지역대학교 홈페이지 홍보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gjarte@hanmail.net)

2020 제11기 통신원 오리엔테이션



2020 제11기 통신원 문화예술현장 탐방





11기 통신원 소개

사람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연결하다



일반통신원

김수빈

초시대. 1분 1초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는 데서 파생된 단어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엔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숨 가빠 뛰어만 가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쉬어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쉬어감의 다른 말을 곧 '문화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통신원

김재철



문화예술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기록한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가 아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추구한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접하지 못한 문화예술이 많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해서 이를 알리고 '사람 사는 게 다르다'를 보여주고 싶다.



일반통신원

마민주

안녕하세요! 햇수로 3년 차인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신원 마민주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젠 통신원 활동이 제 대학 시절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내성적이고 낮가릴 줄 알았던 저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되었고, 능청도 덜 만큼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마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낯선 취재 현장을 방문하고 누군가를 인터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겪게 된 긍정적인 변화일 테죠. 통신원을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이 반가웠고, 모든 활동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일반통신원

송진주



“

유희하는 인간(Homo ludens), 송진주.

나도 모른 사이에 문화와 함께 숨쉬고, 삶 속 깊이 스며들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앞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이가 유희하는 삶을 꿈꾼다.

일반통신원

신누리



글을 쓰는 동안 예술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었던 사람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았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의 행복함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주는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통신원

심솔아

마음속 품고 있었던 진정한 꿈을 위해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공부를 시작했다. 그 꿈은 나의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꿈을 쫓아 사는 나는 사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잘 모른다. 그리고 글썽씨도 없다. 그저 내 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11기 통신원’이 되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배우고 싶다. 어쩌면 사람의 내면 깊숙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반통신원

최혜림



기대되고 설레는 것. 그것이 내가 느끼는 문화예술이다. 문화예술이 내게 미친 영향은 울고 웃는 그런 단순한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여러 감정은 고요한 숲 같았던 내 마음에 메아리가 퍼져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울림이 오래도록 남도록 소망한다.

영상통신원

김진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는 ‘될 수 있었던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등등 많은 후회 속에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상상 속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가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어쨌든간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를 위해 작지만 큰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글



오현진

교육팀에 와서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전문도서를 보급하는데 노력 하였고 정보를 정형화하는 통신원제 및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인 허브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생생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정리, 지원사업의 통합 결과자료집을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해 주신 프로그램 강사님, 통신원들, 문화예술교육팀원들, 1년을 손과 발이 되어준 소중한 인연 김태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희

“

문화예술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얻는 기쁨이나, 타인을 통해 얻는 기쁨,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상대적인 기쁨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정과 정서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절대적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 행복을 많은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문화예술교육팀’ 근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장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통신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취재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해준 통신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통신원들의 글과 영상이 광주의 문화예술교육현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1기 통신원 활동사진

통신원 기획회의



통신원 문화예술현장 탐방 (11.7)



역량강화 워크숍 (12.11)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울림

칼럼

사람을 지키자, 사람을 키우자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 **최영화**



“

문화란 삶의 축적으로서 인간적 여러 요소에 의해 삶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더불어 형성되고, 삶의 방식으로부터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의 생성 공간을 각기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물리적 범주를 뛰어넘어 대단히 자연스럽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랜 시간을 거쳐 온 자기네 삶을 타인의 그것에 귀·예속시키거나 저급평가 받기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착된 중앙과 지방으로서의 양분 논리는 (적어도 문화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되어 있다. 금세기 들어 '문화'가 국가 주요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매겨지면서, 서울권역의 수도권은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으로도 규모와 권력을 키워왔고 결국 (이미 확인하였다시피) 문화는 '중앙문화'와 비수도권 변방 개념의 '지방문화'로 양분된 지 오래다.

갈수록 양극화되어가는 자본시장 구조 속의 지방 도시들은 기능 확장에 있어서도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했다.

따라서 침체 된 도시의 재생과 미래 비전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문화 키워드'를 앞다퉀 제시한 것은 그들 나름의 삶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문화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이러한 폭증된 문화수요와 환경속에서 자기 삶을 지키고 선전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일꾼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일상의 문화예술향유에서부터 생활문화진흥의 선도적 지위, 지역문화 정체성의 확립 등 욕구충족과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위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까지를 요구하였다.

문화시대를 맞은 일반적, 포괄적 관심은 여러 과제와 문제점을 낳았다. 그 중 첫째가 문화적 케파(capacity)가 커진 수도권으로의 인력집중 현상이다. 서울로, 서울로, 서울만이 문화산업이고 서울만이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수도권 중앙문화집중에 따른 심각한 인재유출은 지역문화 미래의 암울한 현실이 되었다. 이제 지역은 스스

로 키워내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성장한 곳.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한 삶이 녹아서 문힐 이곳에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그것이 꼭 토박이라는 지역적 ego에 기인한 걸까? 단호히 아니다. 문화는 다채로움과 균형, 개성(리듬)과 조화, 하나가 아닌 모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

일단 청년인력을 대상으로 문화관심을 자극시키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교육은 반드시 전문인력의 양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체험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문화적 인간형으로 성장시킨다. 문화적 인간형은 궁극적으로 문화 수요를 양산한다.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인재를 스스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라면 '광주-청소년 문화도시'로서의 전향적 전환도 필요하다. 먼저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고 난 후 청년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성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청년의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미래의 자산이라면 지금까지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과 함께 지역을 이야기했던 기성 문화예술가들은 현재의 자산이다. 우리는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지우려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인 만큼 기성 활동가에 대한 가치를 살펴 예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수많은 문화적 업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이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치적들을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 여기에는 보다 선진화된 기술지원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제작방식만으로는 현재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없다. (물론 트렌드가 전부 문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지키는 것은 과거가 지닌 'originality'이지 지난 방식이 아니다. 기성 예술가들의 작품에는 정신이 녹아 있다. 이 정신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디지털 포장을 가미해 동시대 예술로 격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계에도 4차산업혁명 시작되었다.

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유입해야 한다. 유입을 위해선 유입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건 지역 활동에 대한 매리트의 제공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면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지원이든 생활지원이든 좀 더 편안한 활동을 통해 광주를 '제2의 예술 고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다.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좋지만, 국내 타지역 훌륭한 예술가들을 데려오자. 또는 아직은 설익은 청년일지라도 광주에서 작업하고 광주에서 친구를 만들며 광주에서 발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이렇게 모이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우리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지역문화의 원형을 소개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는 단순 관광 홍보가 아니다. 문화원형에 대한 이후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외지 활동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활동가도 같이 합류할 수 있다. 지역 내 활동가라지만 실제 우리 문화 원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나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채 걸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년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남아 있는 지킴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지로부터 예술가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며 그

들과 함께 우리의 문화원형을 소개하여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도권 문화'로 유출되는 지금의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문화는 사람이 힘이며 사람 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없으면 광주문화의 희망은 없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글쓴이 최영화는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무살 때부터 39년간 100여편의 연극, 뮤지컬을 연출했다. 1998년에는 '취선록'으로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 연출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사랑, 돈, 권력의 무상을 다룬 '없다' 창작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소극장 '문예정터'를 건립해 운영해오면서 지역 문화발전에 일조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와 문화예술교육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설**



“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크게 놀랍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밀폐된 극장에서 꼭 들어찬 군중과 함께 두근거리며 무대의 커튼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순간도 이제는 언제나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과 전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지 오래다. 그리고 그 중 대표적인 멈춤 상태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언택트 위주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들과 예술교육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언택트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만이 답일까?

기술중심적 사회 vs. 인간중심적 기술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는 거대했다. 분야를 망라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학술대회나 토론회를 찾기 힘들었던

것이 작년의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예술을 포함한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지만, 기술중심 시대에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예술의 창작방식이나 향유 방식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과 이에 대한 사례는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나, 기술중심의 변화 안에서 예술만이 지닌 고유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기술중심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은 여전히 대면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 그 누구도 질병으로 인해 국가와 도시가 봉쇄되고, 상점이 문을 닫고,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며, 학교 휴교령이 내려질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도 2020년이라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말이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할 수 없는 사회. 뉴노멀(New Normal)로 불리는 '새로운 표준'의 시대. 너무 당위

적이긴 하나, 새로운 표준의 도래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는 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교육의 핵심은 한 공간에 있는 것이다.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이다. 코로나로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는 제약은 기존의 이러한 예술교육의 핵심적 특징을 어떻게 유지하며 지속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어쩌면 예술적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다만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전제가 붙지만 말이다. 분명 SF적인 상상력을 가미한다면, 단순 온라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홀로그램으로 실제 동작을 확인받고, VR로 미술작품을 함께 만들며, AR로 가상무대를 만드는 등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수업을 통해서는 구현 가능한 예술교육의 본질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장비와 인프라, 지원기술이 등이 상당히 갖추어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중심적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적 기술의 핵심은 결국 인간(人間), 즉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을 돕고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로 이를 통해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이라고 본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 그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하여 서로에 대한 위안을, 혹은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위안과 치유, 소통과 이해는 예술의 고유한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다.

뉴노멀의 시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예시는 이미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이미 코로나의 등장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욱 진화하고 있으며 확장 중에 있다. 이미 다양한 예술교육단체와 기관, 심지어 대학들까지 Youtube, 코세라(coursera.org), 아츠에니웨어(artsanywhere.com) 등을 통해 수많은 온라인 예술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처음부터 감안하고 제작한 수업과 현재 전면 중지 상태에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또한 앞서 언급한 최첨단기술을 현재 상황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집단지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자들의 열린 태도와 마음,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공유일 것이다. 현 시국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돌파구와 대안점을 찾는 공론장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엄청난 첨단기술이 필요하지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창발적 아이디어를 통해 개개인의 예술교육자와 단체, 기관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일은 개인이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시스템과 방역체제와 관련하여 연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지만 최소한 코로나로 인한 예술교육에 비상체제를 집단지성 플랫폼을 통해 대응하고자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예술교육파트너십(Arts Education Partnership, 이하 AEP)의 행보는 눈여겨 볼만 하다. AEP는 미국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연방협의체로 1995년부터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과 교육부, 지자체

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이다. AEP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따로 코로나로 인한 예술교육 현장의 대응방안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화 된 대체물, 자료, 원천 소스부터 웹사이트, 각 장르 별 교육자들의 모임과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링크들을 모두 구조화하여 소위 ‘코로나19 예술교육 자원(Resources for Arts Education Leaders and Learners Navigating COVID-19)’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예술교육 자원’ 페이지(www.aep-arts.org/who-we-are/covid-19-resources/)는 올해 3월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이 심화되자, 온라인 교육에 전환에 있어 필요한 자원과 팁, 활용 가능한 다양한 민간 지원체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책, 예술교육자, 학교 교사, 학부모, 교육하는 예술가(Teaching Artists)들로 구조화 되어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팁, 대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링크와 자료들은 사용자 중심 뿐 만이 아닌, 상황과 활용되는 장르, 기술과 자원 등 구조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손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간중심적인 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닌,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사용자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나가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많은 행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기간을 지나고 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 대담이 송출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더하여 문체부는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온라인교육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물들은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는 문체부 누리집

(www.mcst.go.kr), 문화포털(www.culture.go.kr),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자료실(아르떼라이브러리, lib.arte.or.kr),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원의 아르떼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활용자료와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코로나라는 항해를 각자의 방식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는 현재, 어쩌면 지금이야 말로 소수 전문가들의 담론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자들의 집단지성과 현장에서 구축된 고유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내 예술가와 예술교육자, 예술교사, 예술단체와 행정가, 학부모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원과 집단지성의 플랫폼을 구축해 보는 것을 꿈꿔보는 것은 힘든 이야기일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문화예술교육현장에 있어 필요한 것은 단순 구호가 아닌 유연하고 활용 가능하며, 효과적인 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사고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 웹사이트
www.aep-arts.org/who-we-are/covid-19-resources
www.coursera.org
www.artsanywhere.com
<http://lib.arte.or.kr/index.do>

글쓴이 김인설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광주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원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정책·예술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술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제들을 접할 때 가슴이 뗌다.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문화정책 및 거버넌스로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주로 연구한다.

예술놀이가 즐거운 교육으로 구현되는 예술배움터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대표 노정숙



“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온 대중문화의 특징으로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이 되어간다. 우리는 예술의 거리를 가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쉽게 예술을 만나고 예술의 향기를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예술은 대중문화 속으로 많은 부분이 흡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교육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술이 사고의 변화를 촉발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전되고 있다. 그만큼 예술과 예술교육이 우리사회 저변에 많이 활용되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토요문화학교 예술배움터>의 교육기획 컨설팅에 들어가서 예술과 창의력이란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한다. 창의력은 예술배움터의 주요개념으로 우리일상의 행위가 예술과 만나서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창의력은 단편적 지식의 틀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닌 오랜 동안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사고력 확장으로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창의력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어릴 때부터 ‘습’으로 흡수된 경험들이 모여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술교육과 창의

력은 불과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럼 창의력은 무엇이고 예술교육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예술교육과 창의력

창의력의 근간은 무엇일까? 놀이를 통한 사고력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는 인간 삶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며, 창조적 사고의 시작이다. 놀이는 교육의 방법적 측면이지만, 놀이를 통한 교육은 스스로 사고의 틀을 열어 학습효과를 증강시킴을 볼 수 있다. 놀이로 흡수된 교육은 자유로우며 인간내면의 가장 열린 상태의 역동적 사고를 자극한다.

놀이와 예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술놀이는 창의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예술이 갖은 상상력과 열린 사고는 놀이문화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제로 경험을 만든다. 경험은 기억을 통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적 호기심으로 탐구적 자세를 만들어 문제해결의 다양한 사고력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과 창의성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은 학습이다. ‘학’이 지식을 제공한다면 ‘습’은 체험을 제공하여 경험을 만든다.

미국의 미술교육가인 드 프란시스코(De Francesco)는 경험을 예술의 근원(art roots)으로서 인간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신장시킨다고 하였다. 우리 삶의 과정에 다양한 체험으로 이루어진 경험들은 오랫동안 지식의 축적과 함께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배우고 이해했는가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를 드러낸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경험에서 얻은 각각의 행동은 개인의 판단력의 차이를 가져와 우리의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변화가 일상에서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삶의 방식과 의미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교육은 시대에 알맞은 역동적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와 매체 그리고 실험 교육현장의 한 갈래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예술배움터는 예술이 갖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합교육프로젝트의 현장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예술배움터>가 안고 있는 학습의 유연성과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과 지식의 융합은 고등사고 능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학습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매체활용, 다양한 장르를 통한 실험과 학습, 미적 체험을 통한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주제를 통해 프로그램에 알맞은 교수법으로 호기심과 동기유발,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사고력을 확장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기획자와 강사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분석과 논의로 예술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교육컨설팅 강화하여 지식과 예술이 융합된 교육으로 새로운 접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며

예술교육은 우리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미래사회의 기초 동력이다. 지난 교육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식의 축적을 쌓았다면 이제는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혁신과 창의성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혁신과 창의력은 주요한 화제이며, 오늘날의 모든 분야에서 ‘창의력’이 과학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급속한 기술 발달과 SNS(Social Network System)의 확장은 우리일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접하며 손쉽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공감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여러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의 모색과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예술배움터>는 우리사회의 혁신을 제공할 기초단위의 예술교육현장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특성에 따라 지식이 예술로 접목되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깨우는 열린 학습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학’과 ‘습’이 공존하는 곳,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곳, 누구나 동등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 예술놀이가 즐거운 교육으로 구현되는 현장, 우리가 꿈꾸는 예술배움터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선 현장의 기획자와 강사의 노력이 절실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예술교육이 아닌 지식과 문화가 융합되어 예술로 구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새로운 가치로 발현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지향점을 이끌어 볼 필요가 있다.

글쓴이 노정숙은 예술가와 기획자로 활동 중이며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대표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서 강의중이다. 러시아 모스크바비엔날레특별전 공동큐레이터와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페스티벌의 한국공연·전시 총감독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한국·프랑스교류COREEiation과 국제여성미술제, 미로센터 창작공간 플랫폼 진행으로 20개국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광주문화예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달꽃창작소: 동네 청소년을 위한 다른 교육, 다른 경험

달꽃창작소
대표 최규성



“

코로나 때문에 큰일입니다. 거의 반년 동안 모든 교육이 멈추어 있는 듯하군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의 영역은 너무 무기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전쟁이 나도, 나라를 잃어도 교육은 쉽게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 의학 등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현대에, 우리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에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고, 그간 유심히 보지 못했던 다양한 톨과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활용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모두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가진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지요. 다만 그것을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과 나눌까 하는 점이 고민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제가 운영하는 달꽃창작소에 대한 소

개를 해볼까 합니다. 달꽃창작소는 2013년 9월 1일에 첫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가 동네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줘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지요. 크게 사명감이나 교육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회 문제들을 두고 볼 때, 시민들 사이에 많은 대립적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가 ‘교육’에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어릴 적 받았던 ‘교육’ 혹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환경’으로 본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건대, 그리고 저도 물론 자유롭게 못하건대,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슬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받은 주입식 교육이 그런 방식 아니었던가요?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

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 관찰과 유추의 힘, 가설의 설정과 수정해보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듯합니다. 물론 주입식이라는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방식만 있을 때이지요.

저는 자신의 경험이 자기 생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달꽃이 잘 사용하는 문장도 ‘경험이 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배운다.’ 혹은 ‘내 생각이 익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색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에는 ‘떠오른다’, ‘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것이 경험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경험 위에서 떠오르고 납니다. 경험이 없이 주입된 생각은 남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나 학원에서 주지 못하는 다른 성장의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해 달꽃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영역의 수업을 논의하고 실행해 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영역의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수업을 제안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의 요청으로 수업을 구성하기도 하고, 지역특성/자원을 반영한 수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전단을 보고 찾아오고, SNS에 올린 홍보를 보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을버스에 내 건 캠페인 성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보내기도 하고, 부모나 친척이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참여하고 있는 아이가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달꽃창작소는 중고생 나이의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즈음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권한다고 해서 어딜 쉽게 가지 않지요. 달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학교나 집에서의 강권으로 오더라도 결국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만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다 행스럽게도 달꽃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쉽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만 되어도 작은 단체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면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하고 싶고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만 신청합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아이들에겐 한 번 더 권하기도 해 봅니다만 그 이상의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성을 발휘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도 좋아요. 주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욕구 혹은 동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달꽃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공간에 와서 놀아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두 세 번 보고 얼굴을 익혔다 싶으면 번호를 알려줍니다. 단톡방에도 초대하지요. 친구 따라서 달꽃에 공부하러나 놀러 오거나, 강아지를 보러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수업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달꽃주민이 되기도 합니다.

달꽃은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문화예술 경험은 무엇일까, 그 외에 필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성인이 되었지요.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고2가 되어, ‘선생님 저 내년엔 고3이에요.. 흑흑’ 이럽

니다. 어떤 훌륭한 수업이더라도 달꽃창작소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남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관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모 삼촌들처럼 말이지. (아주 어릴 적, 만나기만 하면 귀엽다고 괴롭히고 저를 울리던 삼촌도 있었지만, 지금은 웃음이 나는 기억입니다.)

정리하자면, 달꽃을 운영하면서 저의 가장 큰 화두는 항상,

‘아이들에게 필요한 관계와 경험은 뭘까?’

입니다. 그리고 보니 ‘경험’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저는 아이들이 수업이라는 형식은 물론 다양한 형식 - 놀이, 대화와 수다, 여행, 탐방, 나들이나 산책 등 - 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은 참 좋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 영역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혹은 십 년, 이십 년 후에 그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화예술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도, 의학과 수학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전문가들도 많지요. 다만 주입식은 아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물며 점수를 매기더라도… 도대체 ‘교육’이란 뭘까요?

작년에 동네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잘 사니?’로 대화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야기의 주제는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아이들과 한참을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는 ‘교육은 왜 존재할까?’, ‘우리는 왜 교육을 받을까?’이었지요.

여러분, 교육은 왜 존재할까요? 그것을 따지는 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이 궁금하시다면 주변의 어른과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인간’이라는 종이 말이지요… 왜 수천 년 동안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교육’이라는 것을 이어 왔을까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다란 말입니까? 혹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건 도대체 뭐고,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 며칠을 듣성듣성 고민해보다가 저 나름의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어요.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군요. 재미있겠지요?

말을 이어 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군요. 모~든~ 단체와 활동 마다 개개별 특성과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영역과 역할이 따라오기도 하지요.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의 정답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단체와 활동을 심사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면, 많은 관리자들과 실무자들이 우리 사업과 활동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방법론적인 해법을 찾으려 하십니다. 어떤 컨셉과 아이디어, 혹은 기획에 해법이 있다고 보지요. 하지만 제가 보건데 대부분의 핵심 문제는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어도, 그것을 판단할 기준 (그것은 조직과 사업의 정체성에 나옵니다) 이 없다면 어떤 방법론을 택하더라도 크게 다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존재론은 그 사업/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여러 사람이 수많은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잣대가 없다면 하나의 성과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고, 결국 성과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내리기 어렵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잘 설명하기란 역부족이고 <건강한 조직>(이재현 저) 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시려면 동일한 저자의 <본질은 조직문화다>, 혹은 피터 드러커 <비영리 단체의 경영>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졌지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방식을 수정·보완하면서 경험해 나가야 할 듯해요. 일단 제가 실험하고 있는 방식은…

1. 소수 수업 (3명)
2. 개인 창작활동 후 온오프 병행 수업
3. 소액 프로젝트 지원

글쓴이 최규성은 김흠이라는 활동명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며, NPO 영역과 문화예술 영역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김달군과 김꽃돌이라는 두 마리 닥스훈트를 키운다.

이런 정도예요. 특별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될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새로운 방법이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가 중요한 듯합니다. 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프레임)이 필요할 듯한데, 어느 정도 경험을 한 후에 프레임을 좀 만들어 보려구요.

적다 보니 요청받은 원고의 분량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혹시 달꽃창작소가 더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dalggott.org 혹은 페이스북 facebook.com/dalggott 에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의 페이스북 facebook.com/heuck 이나 이메일 ufo@dalggott.org 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비대면 예술놀이프로젝트 <키득키트[Kid-kit]> 언택트 시대, 새로운 예술교육을 꿈꾸다.

예술공간 집
관장 문희영



“

예술이 필요한 때

긴 멈춤의 시간이 지속되었다. 차단되고 규정된 일상으로 닫히고 갇혀진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사회는 서로를 차단시켰고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다. 너무도 당연시되던 모든 것들이 통제되었다.

차단의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이었다. 온라인으로 학교를 가고, 온라인으로 강연을 듣고,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고, 온라인으로 미술관엘 갔다. 뉴노멀, 언택트, 포스트코로나, 새롭게 파생되는 신조어들에 둘러싸여 온라인 세상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과연 그 모든 일상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것들이 온라인 세상 안에 구현되어 왔다.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졌고, 몸이 움직여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당연히 몸의 모든 감각이 동원된 자극은 줄어들었다. 과연 손가락 하나로 연결된 감각이 우리의 온 몸을 타고 심장까지 도달해 전율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술'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존재, 갇히고 닫힌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술'이 아닐까.

많은 온라인 예술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다. TV프로그램에서 개인채널까지 아마 모든 예술가들이 유튜브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허황된 상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랜선은 닫힌 공연장의 틈새를 열어주었고, 미술관의 틈새도, 세상 속 곳곳의 틈새를 파고들며 더 많은 시넵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허나 예술이 랜선을 타고 우리의 심장까지 도달하기엔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받고 있는 건 아닌지, 랜선으로 루브르를 가고, 반고흐 미술관을 가고, 모마도 가보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미술관도 가지만 예술이 주는 감동까지 전달받기는 무리인 듯싶다.

우리에게 예술정보가 아닌 예술의 감동이 필요하다. 일상이 '통제'된 삶에서 예술은 영혼의 자유를 허락한다. 이는 굳어진 심신을 말랑말랑하게 녹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술로 교감할 수 있는 일상이라면 통제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삶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가와 교감하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예술놀이 프로젝트 <키득키트>

언택트 시대 온라인 예술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수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닫힌 문을 온라인으로 열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지되었던 예술교육프로그램들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더 많은 정보들을 추가 입력해나가지만 여전히 예술적 교감은 난제이다.

단방향 예술교육이 아닌 쌍방향 예술교육의 방법들을 고민했다. <키득키트>는 예술이 더 직접적으로 침투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이지만 '예술과 교감'하며 '자발적인 놀이'로 예술추구를 실천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예술의 매개체는 <키트>이다.

'키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활동들에서 아이디어를 반영해 제작되었다. 회화, 일러스트, 판화, 미디어아트, 놀이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이들의 다양한 예술세계가 반영된 키트가 만들어졌다. <집 속의 집>이라는 주제 하에 '집'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들이 주어진다. 키트는 단순히 조립으로 완성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만 될 뿐이며,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제작의 도구로 추가 될 수 있다. 이 최소한의 도구로 예술가와 함께 상상하고 창작해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집을 만드는 데엔 정답도 없고 모범 답안도 없다. 각자의 생각에 의한 집이 탄생할 것이다.

키트를 받은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예술가와 만난다.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한 명의 예술가와 10명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만난다. 총 40명의 어린이가 4인의 예술가와 랜선으로 만나고, 60명은 추후 키트를 받고 활동영상을 참조하여 스스로 집을 만들어본다.

키트의 시작이 되었던 작품과 작가들을 만나고 예술가들이 미리 만든 집을 보는 것, 바로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또 예술가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스스로 계획해나간다.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서툴더라도 아이들의 생각이 담긴 집이다. 제작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상상력을 구현해내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손가락과 디지털화면과의 협응력은 뛰어날 지언정 나와 내 몸의 협응력은 점점 둔해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모니터와 나 사이는 더욱 친밀해가고 있지만 정작 나와 내 몸이 협력하는 일은 더 버거워지고 있다. 집을 짓는 과정은 몸과 머리가 함께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자발적으로 협응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바로 아이들이 사회와 협응할 수 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이러한 과정은 타인과의 공동체 삶이 차단된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렇기에 키트 제작에 더 많은 고민의 과정이 필요했다. 팔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온 몸을 움직여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집을 짓는 것처럼 몸의 모든 움직임이 동원되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행위들이 수반되도록 키트를 만들었다. 참여 학생들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목재, 서로 연결을 하는 데 힘을 써야하고 방법을 구해야 한다. 볼트너트를 돌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묶고 감는 원초적 노작활동들이 수반된다. 스스로 만들어갈 집을 구상하고, 모형만이 아닌 집의 구체적 의미를 정해간다. 물론 예술가의 조력이 온라인을 통해 더해진다.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만 온라인일 뿐, 여타의 과정들은 모두 온라인을 배제한다. 몸의 협력을 통하여 집 안의 아지트를 구현해가는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과 예술가는 총 3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며 마지막 시간 모두 함께 자신의 집을 공유한다.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력이 덧대어진 집, 어떤 집들이 탄생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은 분명 어른예술가들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할 것이니 말이다.

집의 본질을 알아가는 집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집이 형용사적인 집이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로봇집, 곤충집, 아파트, 자동차집 같은 명사로 정의할 수 있는 집보다는 따뜻한 집, 맛있는 집, 하늘같은 집, 휴식을 위한 집, 책을 만나는 집, 그림을 그리는 집 등 의미를 품은 형용사 같은 집이면 좋겠다. 본디 집은 그런 곳이 아닌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편히 쉬는 곳이 집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 집이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할 수 있는 곳,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곳이 집이다. 아파트이고, 주택이고, 빌라인 외형의 집이 아닌 집의 본질을 찾아가는 나만의 작은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아이들이 상상하는 변화무쌍한 감각을 내재한 집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에 없던 100개의 기발한 집들이 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비대면 쌍방향 예술교육의 실험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이런 단어들로 무장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 온라인을 매개로 많은 예술교육의 실험이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키득키트>는 '키트', '예술가와 교감', '놀이'등을 결합하며 실험의 범위를 확장했다. 놀이이되 예술가와 협업하고, 자발적으로 놀기 위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지점을 예술가와 함께 확장시켜나간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지점이 되어준다. 비대면 예술교육이지만 쌍방향의 방식을 모색하며 전달의 기능을 뛰어넘어 예술의 교감을 이루고자 한다. 더 많은 사례들이 연구 개발되겠지만 키득키트가 좋은 출발신호가 되기를, 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즐겁게 뿜어져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번 시도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예술교육,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한껏 기대해본다.

미래를 꿈꾸는 예술교육

예술이 한 인간의 삶에 침투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한걸음 나아간 사고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존의 의미로부터 한 단계 올라서는 경험들이다. 보편적 감정이 아닌 개개인의 특수하고도 고유한 감각과 감정을 들춰내어 진정한 나와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경험이다. 그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게 예술이고 예술가이다. 고정관념을 비틀고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읽어내는 특별한 감각의 안테나를 지닌 예술가와 이들의 작품, 행위 등이 <키득키트>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집을 품은 마음이 더 큰 세상을 품어나갈 수 있기를, 아이들과 랜선으로 만나는 예술놀이 프로젝트, <키득키트>의 드넓은 순항을 기대한다.



글쓴이 문희영은 예술공간 집(갤러리)을 운영하며 전시를 기획하고 많은 작품과 작가를 알려가고 있다. 조선대학교에서 강의중이며 미술관련 글을 쓰며 일상 속 미술을 매개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20220 비대면 예술놀이 프로젝트 <키득키트> 총괄기획자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예술교육을 고민하며 예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있고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에 어떻게 ‘감응(感應)’하고 있는가?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교육실장 김 천 응



“

트렌드는 인간의 무늬(人紋)이다.

‘현재 문화 트렌드를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칼럼 요청을 받았다.

지난번에는 광주를 잠시 떠나 있다는 사뭇, 타당한 핑계로 당당하게 사양했지만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작은 동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레 수락을 했다.

아뿔새! 이내 문제가 생겼다. 주제를 안 물어보고 수락을 한 것이다.

보내준 주제를 나중에 받아들고 보니 이건, 낭패다. ‘트렌드’라니. 거기다가 ‘미래’까지.

아,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따로 있었다. 한참 GQ의 에디터 이충걸 선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언어를 사랑하여 그의 책을 사들여 읽고 있을 때, 카페에 가면 구비된 최신 잡지들(Vogue, Elle, Marie Claire 등)을 3~4권 씩은 재미있게 훑어볼 때, 나의 패션을 셀렉 하기 위해 3~4 군데의 가게들을 기꺼이 순례한 후에야 최후의 선택을 해내던 지구력이 있을 때, 한 달에

3~4번은 이름하여 ‘시내’에 나가 문화예술계의 지인들과 어깨를 바짝 맞대고 애플루트 보드카 칵테일을 마시던 그때! 였다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찌금이라도 ‘간지’나게 할 수 있었을텐데. 삶의 모든 사태는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일어난다. 이제는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나 시내에서의 약속도 없고, 혼자만의 공간에 틀어박혀 애꿎은 차츰나 축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주제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인 것만 같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시무룩해진 상태로 노트북을 연다.

언제나 그렇듯 일단 공부와 글쓰기의 정석을 밟기로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라.’ 국어사전에 ‘trend’를 입력한다.

트렌드(trend) - 일단 씌여진 단어와 발음기호가 똑같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맘에 든다. 모든 영단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라고 알려준다. 오~ 구원의 빛

이 희미하게 한줄기 비추는 것 같다.

그래! ‘트렌트’란 (최신)트렌드’ 이런걸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트렌드’란 ‘인간들의 사상이나 행동 또는 현상의 일정한 방향의 결’이구나, 결은 ‘무늬’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트렌드란 ‘인간들이 그려내는 무늬’ 즉, 인문(人紋)인거야.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우리 모두가 공교육의 은총을 받아 알고 있는 선명하고 굵직한 이 무늬들이 바로 ‘트렌드’인거지. 내 안의 물음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인간의 트렌드, 즉 인간의 무늬, 인문(人紋)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결’과 ‘무늬’를 직조해내는 낱알의 실날들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상 속 ‘사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있다.

삶의 사태들은 마치 문밖에 서서 다급하게 노크를 해대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과도 같다.

기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이 사태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해결하는지의 연속선상에 터해있음이 틀림없다.

이 사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 ‘무늬’- trend - 가 인류의 역사가 되는 셈이며, 이를 공부하고 살아내는 일이 곧 인문(人文)일 터이다.

2020년에 ‘그려진 무늬’ - trend

2020년 올해의 시작은 유난히 큰소리로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손님맞이로 시작되었다. 게다가, 그 사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반응과 해석과 응답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 사태의 초기에는 불안, 공포, 혐오와 더불어 마냥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그 사태가 곁에 엉덩이 털썩 깔고 앉아 아예 한 자리를 차지하고야 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얼떨떨하던 혼란의 시간도 지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 사태의 원인이 도시화, 문명화,

금융화를 추구하느라 욕망의 포크레인으로 어머니 자연의 고운 흙가슴을 마구마구 갈아엎고 파헤친 결과라는 걸. 그 결과에 따른 혹독한 댓가는 여기서 또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며 우린 깨달았다. 올해 닥쳐온 이 사태는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은 (아픈)선물들도 안겨 주었다는 걸. 야수자본주의의 폭주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웠고, 승객들인 우리들도 열차에서 내려야 했으며, 좁은 폭주기관차의 좁은 객실에서 너무 가까웠던 사이들에 ‘거리두기’를 명(命)받았다. 더불어, 지나온 삶의 행태에 대한 성찰을 하게 했으며, 수십 년 후에도 가능할거라 하고 상상만 하고 있었던 급진적 논의들이 눈앞에서 구현되는 걸 목도했고, (이런 시도를 해도 별일 안생긴다는 경험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인간들의 시끄럽던 욕망의 폭주기관차가 멈춰선 덕에 실로 오랜만에 어머니 자연이 평온한 단잠을 자며 침과 회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추앙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한 우상이었고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해준 일이다. 오죽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 ‘정말, 코로나가 지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맹목적 신화에 길들여져 있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고, 신자유주의가 주구장창 부르짖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이 가능하리라는 믿음 말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그 허위를 낱알이 드러내 주었다.

trend는 ‘재난’이고, future는 ‘몰락’이다.

에둘러 가지말자.

현재의 트렌드는 ‘재난’과 ‘재앙’이고, 그걸 읽었을 때 보

이는 미래는 ‘한계의 직면’과 ‘몰락’이다. 더 이상의 안정과 성장을 바라지도 말자. 당장 우리들부터 그리하자. 그동안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소유했고, 너무 많이 확장했다.

몰락의 징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목시록의 비장한 장면을 보기 위해 더 이상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30도가 넘는 기온에도 외출을 할 때면 겉옷처럼 마스크를 챙기고, 마스크를 내리고 친구와 가까이서 얘기했다고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언제 학교가 문을 닫을지 모르니 전과목 교과서를 가방에 잔뜩 챙겨놓고 축쳐진 어깨로 학교를 가는 쌍둥이 아들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죄를 저 어린 양들이 잔뜩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아 아내와 난 죄책감에 휩싸인다.

유발 하라리가 그의 두꺼운 책에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경고했던 시기는 2017년의 화사한 봄이었고, B.C(Before Corona) 시대의 이야기였고, 이젠 A.D(After Disease) 시대이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박사가 이번 사태로 제인 구달 박사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서로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다. “어쩌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계산 제대로 할지 모른다.”

정말 우리의 생생이 남아있는동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쩐담. 아직 사태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기도 전에 경제의 ‘V자 반등’을 운운하고 있는 이 작태들을 말이다.

재난과 재앙은 영어로 ‘disaster’이다.

이 말은 astral(별)이 dis(떨어져) 버렸다는 뜻이란다.

아. 짙은 어둠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 사라졌으니 어쩌해야 한단 말인가? 보다 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이야기도 들린다.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다.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맞다. 돌이켜보니 그랬었다. 수많은 전조와 조짐과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다. 300번은 족히 넘게. 하지만, 고장난 우리들의 ‘센서 sensor’와 퇴화된 ‘감응感應능력’이 작동을 하지 못한 채,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조짐과 징후를 읽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다. 지금의 이 사태가 과연 종착점인 ‘1일’까? ‘1’과 ‘29’에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26’이나 ‘27’이라면... 아직 ‘1’이 오지도 않았다면?

엄밀하고 정밀하다는 과학이 예측해내고 있는 가까운 ‘미래’는 이 두려움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를 어찌할꼬.

안다. 낙관을 해도 견뎌내기 힘들 판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특히나 사태의 파장이 직접적이었기에 여전히 힘든 문화예술계의 동료들과의 이야기에서.

맞다. 정말, 참으로, 이 글을 긍정적으로 끌어가고 희망적으로 끝맺고 싶었다. 몇 년 전 열심히 배우러 다녀온 북유럽 4개국 문화예술교육의 앞선 모습을 이야기할까도 생각했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하고 싶었고, 이 사태 속에서도 ‘해석과 창조’를 해내는 예술가들과 정책들도 소개하고 싶었으며, 레베카 솔릿의 말을 빌려 ‘이 폐허를 깊이 응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힘으로 ‘재난유토피아’를 시도해보자고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몰락의 사태 초입길에 들어서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태에 대한 용기있는 직시와 올바른 해석이 없이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의 사태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할까?

나는 ‘감응感應’하는 능력(맞다, 실로 이건 ‘능력’이다)을 호출하고 싶다. 생생의 시간표속에 문화예술교육과의 인연을 이어가야할 나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감응感應’은 지난 인류의 무늬人紋 가운데 일찍이 옛 스승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며 능력이었다.

“우주는 본시 감응感應, 즉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교호하고 넘나드는 우주적 무도의 장場 같은 것이다. 신호가 오면 받고, 신호를 주면 또 돌아온다.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일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 또한 거창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지평 위에 있다. ... 이 교감을 주자학은 인仁이라고 불렀고, 그 우주적 능력이 마비된 것을 불인不仁이라고 불렀다. 불인은 한의학에서 수족의 ‘마비paralysis’를 일컫는 말이다. ... 그때, 마음의 마비가 풀릴 때, 인간은 연비어약, 연못을 뛰노는 물고기, 하늘을 솟구치는 소리개처럼, 혹은 길거리에서의 어린아이처럼 본연의 생명의 교감을 자발적 자연으로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 <조선유학의 거장들>, 한형조, 문학동네 中에서 -

시詩, 서書, 화畵 같은 깊은 예술행위로 일상에서 수양하며 ‘항심恒心’으로 살았던 옛 스승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덕목으로 ‘감응感應’하는 능력을 손꼽았다.

그걸 해서 뭘 하게? 이들은 이 능력을 키워 인간의 삶과 시대와(트렌드),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묻는 ‘책문策問’에 ‘책문策文’으로 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이제 우리가 더욱 예민해지자. 충분히 예민한지 안다. 그러니 더욱 예민해지자.

그러기위해 감응(感應)하는 능력을 더욱 길러내자. 그 옛날 스승들이 시, 서, 화로 자신들의 센서와 감응능력을 갈고 닦았듯이 우리도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기획하고, 창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자.

그리고 할 일을 하자. 하지만, 이전처럼은 하지 말자.

온갖 생명을 죽이면서 축제라고 명명하는(산천어, 전어, 주꾸미, 더 말해 뭇하겠는가?), ‘죽임의 윤리’가 부재한 싸구려 축제 비슷한 것들도 그만하고, 이제 어차피 많이 못 모이니 인원과 물량이 대거 투입되어 엄청난 쓰레기를 양산하는 대형행사도 그만하자. 이번기회에 성과중심적 사업과 기획에서도 조금 멀어져보자. 문화예술을 등에 업고 자신의 힘과 소유를 과도하게 키우는 일도 그만하자.

대신,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소규모단위의 밀도 있는 문화예술교육, 소외된 계층과 마을 안 구성원들의 공동체성과 생생의 의미 경험(체험이 아니다)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장場을 더 많이 만들자. 더 나아가 미증유의 ‘몰락의 시대’를 힘들어하고 상처받을 시민들을 위한 적응유연성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자.

안그래도 다들 예민하다는 핀잔을 듣고 살았을터이니 더 민감하고 예민해진다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다음 이웃들의 둔감해지고, 먼지가 끼고, 고장난 센서들을 다시 작동하게 해주자. 그리고 혹시 기대해보자. 서로 간의 ‘떨림’과 ‘울림’ 그리고 ‘되먹임’들이 우리의 몰락을 조금은 늦출 수 있을거라고.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다들 이 영화를 보았을 터이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몰락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말이다.

길고 긴 대서사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는가? 그 '예술가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문화예술과 인간 삶의 고귀함을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배가 침몰해가고 모두가 자신의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한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이제 우리도 가야하지 않을까요?"

바이올린 연주자인 '윌리스 하틀리'는 동료의 물음에 대답한다.

"남아서 사람들이 더 안정되도록 조금만 더 연주해주도록 합시다."

시간이 지나 윌리스 하틀리만이 홀로 남아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연주를 이어간다. 이를 본 동료연주자들이 하나둘 다시 마지막 연주에 합류한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예술가들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마지막 연주를 마친 윌리스 하틀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오늘밤의 연주는 저에게 있어 특권이었습니다."

재난의 풍경이 일상이 되고, 재난이 트렌드인 세상에서, 몰락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선율이 한 줄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쓴이 김천응은,

지난 15년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을 만나 함께 읽고, 쓰고, 사유하는 인문공부를 하고 있으며, 인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불화'의 힘을 키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작과 기획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인문사유, 예술경험으로 특화된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머물고 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작가 송재영



“

Look Both Ways

영어로 ‘Look Both Ways’는 주위를 둘러보라는 뜻이기도 하고, 양면을 모두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일상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차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회의 중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는 뜻에서 건넌을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라는 뜻으로 더 사용할 것 같은 말이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코로나19는 일상적인 화제가 되었고,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Look Both Ways’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이는 다른 시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이너마이트가 굴착 공사에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가 전쟁에 살인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태풍이 자연에게는 정화의 과정인 것처럼, 사람이 만든 기술에도,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세상에 이로울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처음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발견과 변화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전쟁으로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는 어떤가.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까지 약 1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68만 명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바이러스 공포를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사태 이후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이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태 모두 백신 투여를 하지 않고도 계절이 바뀔에 따라 습도와 온도가 달라지며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다르다.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비말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에 따라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나면서 백신을 개발해도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전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르면 잦아드는 단기전이었다면, 코로나19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계는 지금 총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소통 방식의 변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 마치 PC 보급과 윈도우 개발로 업무와 기록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모든 업무가 바뀐 것처럼 일상과 업무방식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대면’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가 중요해지며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다. ‘소통’ 자체는 유지하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 진 것이다. ‘비대면’ 소통방식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발달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력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20세기 가장 크게 유행했던 스페인독감이 예시로 자주 등장한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1920년에 창궐했으며 전 세계 사망률은 3~5%, 사망자가 1700~5,000만 명에 달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예방접종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80년 전, 약 2년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스페인독감은 치사율을 담보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다면, 코로나19는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새로운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은 빠르게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인다. 1:1 비대면 소통은 ‘영상통화’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생활에 익숙한 상황이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문제는 1대 소수와 1대 다수의 소통방법이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과 선생님,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하게 된 직장인들은 ‘Zoom’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했고, 대중을 직접 만나 소통하던 강연자와 강사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플랫폼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소통방식이 가진 양면은 무엇일까?

해방과 고립의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갈 수 없게 되고, 행사와 축제가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문화생활이 줄어들었고, 사회적 행동반경이 줄어들자 활동량 감소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 미디어에서도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자주 소개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단순히 호흡기 질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변화에는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다. 필자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에게 고립감만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립으로 인해 겪게 된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필자는 그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립’으로 겪고 있는 불편과 같은 이유로 얻게 되는 긍정적 측면이다.

먼저 특정 장소로부터 해방을 들 수 있다. 학교, 회사, 회의실 등 격식이 필요한 공간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으로부터 해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출퇴근 자유제나 재택근무를 시행한 곳이 있지만, 학교나 대다수 기업에서는 9시~6시(Nine to Six) 형태를 더 선호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관리’가 쉽기 때문이었다. 혹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도 하고 또는 자율적인 방식보다 효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었다고도 한다. 집이라는 공간이 사무실보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동료들과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인 재택근무가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이 자율근무, 재택근무 형태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에게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관계'인데,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이 수직적 관계 또는 불편한 의사소통으로부터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학교에 가는 대신 모니터를 통해 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택근무 덕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상사의 이야기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는 대신 아이와 여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한가한 산책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존재한다. 어린이집에 가는 대신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나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의 가사활동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녀 모두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사활동에 새로운 재분배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II) 일상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여행의 기록> 부분 유튜브 스트리밍 강의 모습

포스트 코로나, 경계의 예술

소통의 방식이 변했다. 그렇다면 예술의 전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국내외 수많은 미술관과 공연장은 오프라인 관객을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하고 온라인 관람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다수 관객에게 직접 선보던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아카이브 또는 실시간 공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안에 공공문화예술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관객은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던 감상 방식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경유하여 관람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며, 예술가들 또한 디지털 전시 방식에 대해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창작자는 비대면 관람이 대면 관람보다 경험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허들(Hurdle)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예술의 본질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술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신화 속 이야기를 웅장한 건축에 녹여내는 기술이었고,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도구였으며, 작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상노트였다. 소신을 표현하는 정치적 발언이기도 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실상이기도 했으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도 예술의 역할과 본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술을 접하는 방식과 경로, 예술에 다가가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질 뿐이다.

사람은 큰 변화에 익숙하지만 작은 변화에 취약하다고 한다. 예술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

식이 바뀐다는 것은 작은 변화이기도 하고 전체의 변화이기도 할 것이다.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가진 기질이며, 사회적인 역할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본질'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 본질을 새로운 환경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 대면 방식에 대해 '플랫폼만 바뀌었다'고 착각한다.

이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나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면하여 대화하면 자료를 함께 보거나 손짓, 눈빛 등을 통해 비언어적 내용까지 같이 전달되지만, 전화통화로는 오로지 음성을 통해서만 내용이 전달된다. 온라인 전달 방식 또한 플랫폼의 변화와 함께 전달 형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술가 스스로 작품의 개념과 본질이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표현법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자는 여기에 자신만의 고립과 해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Look Both Ways. 모든 변화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단편의 절망도, 성공도 없다. 다만 희망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양면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위를 둘러보고, 양면을 바라보며 새로운 허들(Hurdle)을 넘어가는 예술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송재영(타라제이) 작가는,

타라제이의 '타라'는 티벳 설화에 등장하는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네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글을 쓰며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군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로 삶이라는 긴 강을 함께 건너가고자 이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작업, 인터뷰 아카이브, 영상기획, 오디오클립 운영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융합으로 미래를 보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조인호



“

인류문명을 진화시켜 온 가공 혼합의 역사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 때 ‘지구의 여백’이라는 대 주제 아래 현대문명을 진단·제시하는 본전시의 다섯 소 주제의 하나로 ‘혼성(Hybrid)’을 들었다. 다섯 소주제는 동양의 전통적 오행사상을 현대사회에 대입해서 풀어 낸 개념으로 ‘수(水)-속도, 화(火)-공간, 목(木)-혼성, 금(金)-권력, 토(土)-생성’이었다.

당시 ‘혼성’ 소주제의 기획을 맡았던 커미셔너 리처드 코살렉(Richard Koshalek)은 전시도록 글에서 “(유전자 변이체 등) 새 종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처럼 ‘혼성’ 미술가는 낯은 패턴을 깨고 미술이라는 분야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혁신자’이다.”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Hybrid’는 서로 다른 요소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교접 합성하여 또 다른 변종을 만들어내는 생명과학 또는 하이테크산업의 무한세계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인 실험과 투자로 수많은 유전자변형 동식물들이 등장했고 인공지능 기계장치들이 인간 삶의 범위와 가능성을 무한히 넓혀가는 중이다.

본래 그대로의 ‘자연’과 대치되는 변종·변이의 혼성문화 확산은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문명사적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성과와 확산이 이어지면서 어느 새 인류의 미래를 더 풍요롭고 무한대로 열어 줄 지혜의 열쇠로 여겨진지 오래다. 세상을 연결하는 정보망의 급속한 팽창으로 관련 지식뿐 아니라 타분야 이론과 전문가들과의 접촉이 훨씬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면서 이후를 전망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거기에 인공지능의 결합·대체가 경이로움과 두려움 속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서양의 기독교계 세계관에서도 태초에 어둠과 먼지만이 가득한 ‘혼돈(Chaos)’의 상태였고, 말씀과 빛으로 비로소 세상의 질서가 잡히면서 인간을 비롯한 세상만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동양 노장사상에서도 우주의 근원은 모든 것이 비어있고 불확정 상태인 허(虛)와 무(無)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만물이 무한 생멸 순환을 거듭한다고 보고 있다. 인류 문명사는 자연 그대로의 채취나 이용 이상의 풍요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소재들을 가공·결합하고 변형시켜온 탐구의 축적이다. 두려움 대신 필요욕구와 의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소재와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변형이 새로운 문화와 창작예술을 열어 온 것이다.

장르와 개별재능을 넘어선 지혜·감성·기술력의 융합

수천 수백 년을 지나서도 여전히 경외의 대상인 인류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여러 천연 요소들을 가공 연마하고 짜 맞추어 상상을 실현시켜낸 성과들이다. 서구 중세성당이나 고성, 한국 전통건축이나 도자기 등등 무엇 하나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독인 것은 없다. 또한 서로 다른 음색들이 어우러져 화상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합창이나 협연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개별공연과는 다른 깊이와 감동을 준다. 개별 인자와 생각과 재능들이 섞이고 맞춰지고 어울리면서 일차적 목적인 실용성이나 장엄·장식 이상의 미적 가치로 문화예술 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 섞이지 못한 고독가나 기발한 천재, 일심집중 구도의 외길을 걷은 예술가에 의한 걸작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기시대와 교감하며 일반화된 기성문화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하고 창조해낸 선도자들이 예술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색채학과 광학과 사진기술이 도회미감과 결합되면서 ‘인상주의’ 화풍이 등장하게 됐고, 유럽을 뒤덮은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대상황으로부터 정신적 돌파구를 찾던 시인과 음악가, 화가들이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를 아지트 삼아 기존관념을 넘어선 엉뚱한 시도와 파격행위를 감행하여 현대 미술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낸 ‘다다이즘’도 그렇고, 무용·음악·미술 서로 다른 분야지만 자기영역에 매이지 않는 협업과 융합으로 기존 개념이나 활동방식의 틀을 깬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과 존 케이지(John Cage)와 샤롯데 무어맨(Charlotte Moorman)과 백남준의

전위예술 등등이 그런 예들이다.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대형 전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던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 전시는 새삼 협업과 융합의 힘(자본의 뒷받침까지)을 실감하게 하였다. 고대와 현대의 경계를 넘어선 무한 시간대, 고고학과 해양생물학과 금속학과 영상영화와 인문사회학과 현대미술이 융합된 이 전시는 몇 년에 걸친 제작기간과 대형 전시장소, 압도적인 작품의 물량감 이상으로 거대한 상상의 신세계를 보여 주었다.

‘미디어아트’는 광주가 순수 예술만이 아닌 도시 문화 산업 차원까지 내다보며 정책적으로 키우려 하는 기대주이다. 기존의 회화나 조각으로 활동하던 작가들도, 전자공학이나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전문기술인도 자기분야 지식이나 경험만 고집할 수 없는 이 미디어아트는 예술과 광산업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등등이 결합되어 또 다른 융복합예술을 펼쳐가고 있다. 2010년에 창립전을 열었던 ‘빛예술연구회’도 비록 서로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미술작가들과 광산업 업체들이 소재나 기술력, 창의력을 도움 받으며 미디어아트 창작과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여보려는 시

도였다. 이후 개별적인 연구 실험과 더불어 과학기술원이나 대학, 현장기술력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몇몇 작가는 독자적인 미디어아트 세계를 다져놓기도 하였다.

특히 동·서 고금의 명화와 현실·가상을 융합시킨 시공초월 미디어영상을 모니터부터 대규모 파사드나 행사공간까지 펼쳐내는 이이남, 발광다이오드와 디지털 빛을 현대무용과 공연무대 연출 또는 건물외벽 대형 파사드 영상으로 엮어내는 진시영, 비정형 추상회화와 뮤직비디오·영화적 요소를 결합시켜 열린 시공간의 영상을 연출하는 신도원, 일상풍경과 자연초목 숲을 한 화면공간 속에 중첩시켜 관람객이 그 사이로 소요할 수 있는 영상 공간을 설치하는 박상화, 자연생명과 전자문명의 혼재를 디지털 광소재와 입체 설치로 조화하는 정운학을 비롯, 올해 7월 광주과학관 광장에 25m 높이의 거대한 키네틱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설치한 손봉채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여러 장르와 미디어아트, 예술과 전자·과학기술의 융·복합으로 창출해낸 좋은 예들이다.

발상과 시도를 넓히는 창조적 문화예술 환경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병아리떼 꼬마관람객들은 주변 어른들을 호뭇하게 한다. 관념에 굳은 기성세대보다 때 묻지 않은 새싹들이 예민한 성장기에 신선하고 실험적인 예술작품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문화감각이나 창의력을 풍부하게 키워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일 것이다. 그런 꼬마들과 10대 청소년들이 20여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덧 '비엔날레 키즈'(biennale kids)가 되어 이 시대의 주역이자 활력소로서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예술세계들을 펼쳐내고 있다.

요즘은 물리적, 지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실시간 정보소통과 활동교류가 활발하고, 넓고 촘촘하게 엮어진 온·오프

관계망으로 예술창작활동과 공유도 무궁무진 확장되어가고 있다. 작가들도 기존 재료나 표현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신소재나 다른 분야 기술력과 특성을 차용 또는 융합하기도 하고, 본래 전공이나 이전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작업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창의적 발상이 새로운 예술의 싹이 되는 만큼, 현상 너머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과 상상력은 불특정 자극원들을 자주 접할수록 창작의 토양으로 풍부해질 것이다. 창작에서 상상력과 의외성은 새로운 소재나 환경, 낯선 문화가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밖 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활동이란 것도 매뉴얼화된 기본과정들 외의 다양한 접촉과 자극, 체험기회를 넓히는 별식 같은 것이다. 시대의 유행이나 집단양식과는 다른 개별 창작세계도 기존 틀을 벗어나려는 탐구욕과 과감한 시도로 실현되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기존 사회적 체계나 문화풍토, 관습과는 다른 방식의 예술창작과 공유방식을 찾도록 하고 있다. 실물친연이나 현장교감과 다른 문화·예술활동까지 폭을 넓혀야만 하는 반강제된 환경변화 과정일 수 있다. 늘어가는 다매체 다자간 융·복합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선도해갈지가 새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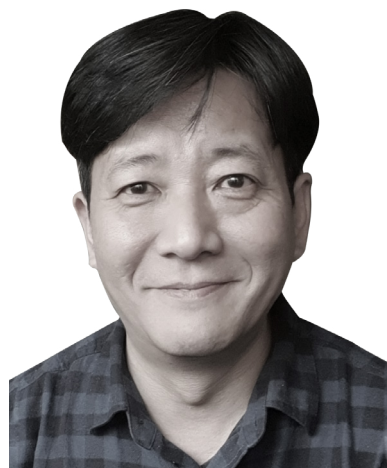
런 속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술은 지식정보나 전자기술력, 기계적 매체효과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측정분석 불가의 세계이다. 예술에서 감성은 이성적인 사유와 성찰에 깊이와 교감력을 더해준다. 창작자의 사유와 지혜, 창조적 상상력, 감성과 오감의 통감각을 바탕으로 신문화와 시대환경을 융합시켜 바이러스나 인공지능 세상에서도 예술의 고유한 인본 가치를 키워가는 일이 창작의 과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조인호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재)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팀장·전시부장·정책기획실장 등으로 일했다. 현재는 1999년 개소한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이면서 광주·전남 미술사 조사 연구와 미술문화 매개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저서로 《남도미술의 숨결》, 《광주현대미술의 현장》과, 공저 《광주전남근현대미술총서》Ⅰ~Ⅲ, 《큐레이팅을 말하다》, 《광주 근현대미술의 주요 지점들》 등이 있다.

예술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복돋는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임 승 관



일상과 떨어진 예술

르네상스 시기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이성을 대면하며 근대 예술을 탄생시켰다. 그 후 예술은 화려한 변화와 성장을 하며 발전했다. 하지만 예술은 일상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높아만 졌다. 근대 예술은 완벽을 추구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 그리고 이를 위한 일상만이 의미가 있었다. 필자가 이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이유는 일상을 위한 예술이 새롭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생활예술이다.

일상은 삶이며 삶을 지속하는 동력은 관계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보람 슬픔과 고통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심각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도 대부분 사람과의 갈등이다.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경제지표 같은 사회문제는 재난 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하는 높은 자살률이나 낮은 삶의 만족도, 더군다나 지금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하는 ‘코로나 우울’같은 ‘전례 없는 정신보건 위기’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문제로 원인이 다르다. 관계의 복원 즉 공동체 회복이 시급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나 공동체를 숲에 비유한다.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이룬 거대한 숲이 사람들이 살아가려는 건강한 사회와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숲은 사실 흙과 나무, 햇빛과 물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생태 과학자 수잔 시마드 교수는 “숲은 나무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게끔 해 마치 지능이 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보이지 않게 짜인 거대한 연결망으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박테리아와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사람이 충분히 모여 있다고 건강한 공동체나 사회를 이루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과 같다. 소통이 가능한 촘촘한 연결망이 살아있어야 한다.

일상을 위한 예술

그동안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이나 사회예술(social art)로 활동하는 작가들에 의해 사람들 간 공감적인 소통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복돋는 작업은 있었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며 고립감을 느끼는 개인들은 그런 작가나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실행해 보기를 선택했다. 자유로운 표현, 수평적인 소통, 민주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 참여하며 자율적 협동을 경험하고 협력적 진화에 내적 동기를 만든다.

후안 카밀로 카르데나스(Juan Camilo Cardenas)의 2005년 ‘공유지 게임’ 실험²⁾에서 의미 있는 대면소통의 효과를 밝혔다. 게임은 참가자들이 어떤 규칙에서 스스로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본 규칙은 게임 후 참가자들이 모여 이번 판에서 누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밝히고 비난(응징)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같은 효과를 보인 다른 규칙이 있었다. 누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리지 않고 그냥 게임 후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만 나누는 규칙이었다. 대면 소통을 통해 합의한 약속(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임승차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신뢰는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생활예술 활동은 누구나 평등하게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즐거운 생일 축하 준비부터 봄맞이 소풍, 정기발표를 위한 복장 결정, 대관과 비용마련 등 누구나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나 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처럼 논의나 합의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공감적인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되먹임(feedback)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가 공동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사회적 존재감을 얻는다. 삶을 지속하는 동력이다.

문제는 소통이야

생활예술이 만능은 아니다. 생활예술 활동을 한다고 모든 공동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동아리 내 구성원들이 갖는 소속감과 결속력을 위해 지나치게 동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타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키우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파괴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아는 사라지고 집단의 정체성이 자신을 대변한다. 타자와의 공감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않는 경제적 동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이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에서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유지를 자율적 협력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밝혔다. 1968년 게릭 하딘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결국 공유지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고 온 세상을 설득시킨 지 40년 만이다. 오스트롬은 하딘의 오류를 찾았다.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통제된 조건에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공유지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앞으로 닥

칠 문제에 대해서 만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은 모두 참이다. 즉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흄 속 박테리아가 죽으면 공동체도 숲도 유지할 수 없다.

나가며

‘생활예술’을 통한 공동체 활동은 수평적인 소통과 자율적인 협동에 의해 개인 역량을 키워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예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demo(민중)+cracy(통치)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즉,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과 같이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³⁾라고 한 것이다. 자격 없는 자, 몫 없는 자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함께 한 실천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관계를 통한 감성적 활동으로 촉진된다.

‘생활예술’은 감성적 실천 영역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 변화하는 새로운 개인들이 예술에 부여한 ‘새로운 이름’이다.

(Endnotes)

1)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평균 청소년 자살률은 15.6%나 줄었다. 반면 우리 청소년만 보아도 자살률이 무려 47%나 늘었다. 심지어 최근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주요 전쟁 국의 사망자 수보다 2~5배 높다.(이코노믹리뷰, 2016.6.10)

2)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뿌리와이파리, 2004, p191.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채취량을 선택하는 실험. 각자 이기적으로 많이 채취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모두 이타적 선택을 하면 전체에게 돌아가는 채취량은 높아진다는 조건의 실험.

3) 심보선, 『그을린 예술』, 민음사 2013

글쓴이 임승관은 2005년 회원 중심 시민문화운동으로 시작한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운영 경험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와 대학원에서 생활예술론을 강의하며 공저로 [생활예술]2017. 이 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집콕 생활과 문화예술교육’

광주비엔날레 교육행사팀
팀장 **천 윤 희**



“

2020년, 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다. 유례 없는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상호 연결되고 의존해왔던 존재들이구나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한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30-40대는 직장 and 결혼, 육아 등 중요한 발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이것은 사회 경제 시스템과 연결 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체계가 큰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가정 외의 여러 사회제도적 체계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왔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최초의 사회이자, 교육 공간인 ‘가정 혹은 가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코로나 시대 불가피 집콕 생활로 회귀하면서, 가정 또는 최소한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일상을 토대로,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생각해본다.

1. ‘기술과 기능성’ 뒤편 우리가 잊은 ‘촉감’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유아시절 선호했던 �보드와 세발 자전거가 너무 작아지자, 아이들은 형들이 타는 큼직한 자전거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여러 날 동안 중고물품교환 D앱에 올라온 여러 중고 자전거들의 사이즈, 기능, 가격을 웹에서 최대한 비교 검색하고 협상의 채팅을 시도했다가 드디어 운 좋게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판매하는 자전거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족은 여러 번의 채팅 협상 결렬이 있은 후의 성공인지라 제법 신이 났다. 약속 장소까지 걸어 도착하니, 자전거 주인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왔다. ‘앱’을 통해 소통했지만 대면하여 현금을 드리고 고맙다고 잘 쓰라고 서로 인사 나누며 자전거를 건네 받았다.

우리가 당초 자전거를 살 때의 목표는 아이들의 성장을 감안하여 24-26인치 일 것과 기능상의 몇가지 요소들이었다. 막상 바구니 달린 큰 자전거를 직접 만나니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와 느낌이 좀 달랐다. 아이에게 타 보라고 권하는데 겁을 먹자, 남편이 먼저 시범으로

타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구니 있는 자전거. 문득 내 어린 시절 아빠가 나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있던 사진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에게 아빠 뒷자리에 타보렴!” 했더니, 큰 아이는 쑥스러워 하고 타질 않는다. 그 때서야 깨달았다. 늘 자동차에만 두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지, 아이는 단 한 번도 자전거 뒷자리에 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를 뒷자리에 앉히고 아빠 허리를 잡아라 했더니, “아빠 등이 따뜻해!” 한다. 아이들이 엄마도 이렇게 타보았냐고 물었다. “그럼! 엄마의 아빠가 태워주었지. 그렇게. 참, 옛날에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땐, 데이트를 자전거로 하던 사람들도 많았단데!” 집에 돌아오는 1시간 여동안, 장을 보면서 자전거 앞 바구니에 짐을 싣고 뒷자리에는 두 아이 교대로 앉히고 한 명은 뛰어서 집으로 왔다. 두 아이들이 어찌나 자전거 뒷자리를 교대로 타면서 행복해하던지, 나는 이 예상치 못한 행복감을 아이들 양육에 꼭 기억해야 할 날로 기록해두었다.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에 익숙해서 ‘자전거’를 잊고 지냈다. ‘자전거’의 기능성에 기반한 운동효과 등의 교육적 효과만 생각했지, ‘자전거’가 소통의 매체가 되어 ‘아빠 등의 따뜻함’이라는 촉감의 교감을 잊고 지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갈 것이다. 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머지 않은 시대에 새삼 자전거를 재발견한다. 자전거를 탈 때, 자동차 운전만 하다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느끼는 몸의 근육을 느끼게 된다. 땀을 스치는 바람, 밤의 나무 냄새, 풀벌레소리, 등 뒤 아이의 까르락 웃음소리와 땀과 손의 따뜻함이 서로에게 스친다. 비틀대다가 간혹 넘어져도 ‘영광의 상처야!’ 한다. 자전거는 생



태적이고 건강한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촉감의 온도를 주고 받는 소통의 매체다.

2. ‘집’은 또 하나의 ‘플랫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사회성 발달이다. 학교라는 체계 안에서의 학습 능력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친구, 선배, 후배 등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학교라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역할의 어른들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경험 속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코로나 19가 아이들에게 앓아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큰 아이들은 자기만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게임 등 여러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있다지만, 땀 흘리며 뛰어놀면서 아이들끼리 주고 받고 소통하며 싸우고 화해하고 탐색하고 배울 기회를 잃은 것이다. 특히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이니 더욱더 그러하다.

처음엔 한 두 달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다가 5-6월이 되어서야 상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 말이다.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친구와의 안전한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건, 결국 우리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이 시대 가장 안전한 곳은 가정, 바로 우리들의 집이니 말이다.

서로의 집을 오고가며 일주일 1-2번씩 놀게 했다. 1-5학년 이르는 아이들은 먼저 각 집의 다른 분위기에 재밌어했고, 엄마의 요리법 차이, 각 집의 환경에 따른 놀이의 차이를 즐기고 배웠다.

1층이면서 바깥 공간이 연결된 우리 집에선 아이들은 인형놀이를 하다가 패션쇼를 한다더니, 역할 나누어 런웨이와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 놀았다. 하루는 비옷을 달라더니 밖에 풍선 들고 나가서 풍선에 물을 넣어 풍선던지기를 했다. 비가 오던 날에는 집에서 온갖 헌옷과 천



을 찾더니, 바느질과 인형옷만들기를 했다. 헤어샵, 네일샵 놀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숨바꼭질은 빠지지 않는 놀이다. 하루는 내내 전자레인지에 무엇을 데울 수 있는가 온갖 실험을 다했다.

다른 집에 가서는 옥상이 바로 위라, 옥상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물 놀이하며 지냈다. 또 다른 아파트 13층 집에서는 엄마가 온갖 재료들- 디폼 블록, 플레이콘, 풍선, 운동기구-과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맘껏 재료와 게임을 옮겨가며 놀 수 있다. 그 집은 정말 아이들의 천국이다. 엄마의 컨셉이 아이들이 주인인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집이다. 온통 어질러지지만 그래서 그 집은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집이다.

또한 함께 사람이 찾지 않을만한 산과 들로 여행도 함께 갔다. 함께 있으면 의외로 TV나 테블릿피시, 스마트폰을 찾지 않는다. 함께 즐거울 땐, 매체를 찾을 시간이 필요치 않다.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영상촬영하고 뛰어다니고 매번 새로운 놀이를 개발한다. 기획자가 따로 필요없다. 나의 역할은 경계를 정해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선 서로의 '집'이야말로 삶과 밀접한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플랫폼을 복수의 참여자가 네트워크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정

의한다.(Simon, 2011; 최병삼, 2012; 조용호, 2011). 돌봄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들이 교류하며 서로 먹고 놀고 돌보고 그 속에서 배우는 상호의존과 상생의 생태계, 그 시작점은 '집'이다. 비대면의 시대에 '집'과 '집'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3. 우리는 모두 연결감을 원한다.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부모와의 연결을 위해 필수 매체가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SNS 속 관계망은 시간과 공간,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친구가 되게 했다. 메신저 및 영상통화는 물론 최근에는 줌 등 여러 플랫폼으로 화상 수업과 워크숍 등을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나도 서울에 있는 지인들과 미술관 교육에 대한 워크숍을 Zoom으로 하면서 지적으로 많은 자극과 재미를 느낀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과 연결감에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한편으로, 나는 워킹맘으로 살면서,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들의 돌봄을 오랫동안 의지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새삼 깨닫는다.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돌봐주신 돌봄 선생님께 나에게 종종 “낳았다고만 엄마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도 할 말은 많다. 일 끝나고 오면 오롯이 연년생 두 아이 돌봄도 정신이 없었고, 주말도 전적으로 남편과 내가 돌이켜 해온 잃어버린 십년에 대해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대부분 외식했고, 사와서 먹었고, 살림의 수고를 기피해왔다.

‘집콕 생활’은 집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간과 분위기, 일상생활의 건강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가족의 생명의 ‘살림’을 위해 충실하고

창조적인 ‘살림’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집이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공간이자, 터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청소하고, 장바구니 준비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서로를 위한 규칙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다. 이 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집이라는 작은 사회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이 활동이 저 활동으로 연결되는지, 부모가 무엇을 하며 자신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연결의 활동 속에 놓이게 되었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독립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늘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린다. 때로 엄마 아빠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두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학교로 더 큰 사회로, 한걸음씩 더 큰 세계로 나아가도록 아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 근원적인 인식적인 부모나 가정, 혹은 신과의 연결감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곧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의 기초에 대한 건강한 안정감과 심리적 연결감, 생활의 유능감, 관계맺음의 자신감은 자신으로 충실하게 나아가는 힘이 된다.

* 이 원고는 최근 어느 모임에서 대화를 통해 확장된 언어와 생각이 일부 반영되어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천윤희는,

광주비엔날레가 좋아서 광주로 내려온 이래, 생각보다 오래 일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매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문화매개’, ‘매개자’,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지역’, ‘작가’를 연구하고, 글 쓰고, 일한다.

uni94@hanmail.net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 보편적 삶의 면면들을 지지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예술, 사람과 다양한 세계의 연결망이 되어주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었으면 좋겠다.

버려진 사물을 재구성하여 미래를 엿보다

작가 이 호 동



인간은 결국 스스로 만든 괴물과 마주하게 되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 지구(자연)를 괴물로 만들고 말았다.

자연과 동고동락한 인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산업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도시 생활에 열광했고 지구에 생체기를 내기 시작했다. 황금(돈)과 소비에 대한 숭배는 '계획된 진부화'(제품의 수명을 제한하기 위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제품에 결함을 삽입하거나 내구성을 조절하는 방식)로 소비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는 지구에 대한 배려를 상실한 채 질주했다. 그 동안 이상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지구의 병통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자본주의 소비패턴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0년 대유행인 코로나 19 앞에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마침내 뿔이 난 지구를 보며 새삼스레 지구도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주가 음양(陰陽)의 질서에 따라 순환하는 것처럼 코로나 19 역시 장단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공장이 휴업을 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경기는 악화되고 자유를 억압당하기는 했지만 공기는 보다 청정해지고 하늘은 맑고 푸르러졌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스트레스는 증가했어도 한편으로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계들이 정리됐다. 그리하여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삶은 단순해졌다. 일상의 멈춤과 관계의 단절, 노동의 쉼이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건 사실이나 반대로 시원(자연)으로의 회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예술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쓰다 버리는 도구처럼 사물을 소비하는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인간관계마저 도구로 인식해 버리곤 한다. 매점 직원이나 학교의 청소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마저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돈으로 대가를 치른 만큼 서비스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우리



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예술이 깃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 '예술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묻고 또 물었다. 그 후 지금까지의 예술교육 실천 과정에서 필자의 확신은 '삶 = 예술 = 놀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놀이는 거래나 교환관계가 아니다. 그런 태도로는 놀이에 몰입할 수가 없다. 상대를 인정할 때만 놀이는 이루어진다. 예술이, 우리 삶이 그런 놀이가 될 수는 없을까? 한때는 예술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삶도 예술도 놀이처럼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삶과 예술이 놀이와 구분되지 않는 즐거운 상태이기를 바랐다.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실천은 낯선 만남이다. 과거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의 공간들(전통시장, 학교, 청소년 센터 등)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

던 버려진 사물들을 결합해 놀잇감을 만들고 그 놀잇감을 통해 아이와 어른이 만나는 낯선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유용했던 물건을 폐기 처분해야 할 때 그 물건에 애정을 갖고 다시 바라보기를 여러 번. 예술의 재구성은 물체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해 상상과 놀이의 결합으로 생명을 담게 되었다.

그런 행동하는 예술가가 물건과 놀이를 접목하여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회복에도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약한 예술가로서의 작은 실천들이 이어가다, '12씨' 프로젝트와 '굴링픽'(굴링+올림픽)을 하면서 적극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12씨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마을의 지혜 있는 전문가가 만나서 12개의 사물로 12개의 놀잇감을 만들어 12명의 청소년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이다.



▲ 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 FUN4 굴링체험

미래를 엿보다 - 미약한 예술가의 작은 실천들

12씨 프로젝트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병뚜껑을 팡이로 만들고 전 세계 팡이를 수집하는 분을 모셔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팡이를 체험해보는 ‘눔팡이’ 놀이. 건축전문가를 모시고 건축에 쓰이는 비계를 이용하여 테이블 축구 게임 형태로 실제 축구장을 만들어 직접 사람들이 좌우로만 다니면서 하는 ‘다함께 차차차’. 페타이어에 바퀴를 달아 동계올림픽 컬링처럼 놀 수 있게 만들고, 페타이어를 소재로 그림책 작업을 하시는 분과 아이들을 연결하고, 타이어 모양처럼 둥근 도넛을 케냐 요리사분과 함께 요리해보는 ‘굴링’ 놀이. 새총 전문가와 함께 긴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일상의 모든 가로등, 나무, 철봉 등이 새총이 되게 하고 밀가루 반죽을 당겨서 만든 수제 비 요리를 만들고 먹었던 ‘땡기요’ 놀이. 기존에 있던 신발 던지기 놀이를 과거 땅따먹기 놀이와 결합하여 마을의 전통놀이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했던 ‘신과 함께’ 놀이. 달걀판과 탁구공을 이용한 오목 놀이를 보드게임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계란말이 김밥을 만들어 먹었던 ‘꼬까~오목’ 놀이. 일회용 옷걸이로 놀 수 있는 5가지의 놀이를 만들고 부메랑 전문가와 함께 옷걸이를 부메랑으로 만들어 운동장에서 날려보았던 ‘오메랑’ 놀이 등이 있다.



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페타이어를 청소년의 놀잇감으로 업사이클해 올림픽처럼 치른 것이다. ‘학교로 굴러간 굴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굴링 워크숍, 놀이체험을 진행하였다. 굴링(페타이어에 바퀴를 달아 만든 놀잇감)은 각 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들다 보니 개성이 뚜렷하여 각각의 꽃을 피웠다. 모든 스포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종목인 ‘뛰어라 굴링’과 ‘날아라 굴링’을 시작으로 팀원 간 협동심이 중요한 기차 끌기, 줄다리기, 밀어내기, 신체 상호조정능력을 활용하는 굴링볼링, 굴링컬링, 미션굴링 등으로 재미있게 놀았다.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실천적 행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필자는 예술작품이 작가 혼자만의 완제품이 아닌 협업자와 참여자, 관객이 함께 완성해나가는 공동의 수행과정이라 생각한다. 제작방식과 제작 결과 모두 새로운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 관객이 작품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위치로 바뀔으로써, 분리되고 소외되었던 관객이 자신의 주체 의지와 역량만큼의 능동적 참여자와 해석자로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 재구성을 통해 생기가 죽어있는 물건을 예술 작품으로 다시 살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어울림을 통해 공간을 살려내는 것이다.

놀아야 산다.



니체는 “삶을 즐기려면 아이처럼 살라”고 한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끊임없이 놀이를 찾고 놀이에 빠져든다. 우리가 삶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살면 ‘지금 이 삶을 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즐거운 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용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버려졌을 때, 그 사물들을 놀이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놀잇감이 될 수 있다. 예술가는 이 시대를 읽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

글쓴이 이호동은,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 상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어른들의 삶과 아이들의 삶이 만날 수 있도록 일상에 버려진 사물들을 놀이적 시각으로 재창조하여 이 시대를 담아내는 12개의 업사이클 놀이를 연구하고 있다. 드로잉을 즐기며 문화예술기획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다 한 걸음 더 성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장에서 산 물건이 잘 쓰일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다가 그 도구성을 잃어버릴 때 눈에 띈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빈센트의 구두로 잘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런 낯선 만남으로 존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탈도구화를 통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연을 범주화, 획일화, 도구화하는 경계를 넘는 것이 작가에게는 놀이이다. 12씨는 놀이의 시각으로 사물을 재창조하고,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어른들의 지혜가 놀이 속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돼 12개의 씨앗을 탄생시키는 작업이었다.

왜 어른은 호기심을 잃게 되는 걸까? 학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의 구분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고정관념이 없다. 그 덕분에 개체의 독특함과 신기함에 주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사고(思考)는 어른보다 훨씬 더 유연할 수밖에 없다. 일상을 재조합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일상이 놀이가 되고 아이는 그 놀이에 빠져든다. 그런데 어른인 우리가 아이의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필자는 언러닝(unlearning: 과거에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천력이 뒷받침되어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길은 묻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지 않던가. 스스로 문답하는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려면. 나아가 정해진 나침반 바늘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갈 길을 선택한 후에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련다. 언제나 그렇듯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안정이란 집에서 이만, 휴식을 마치려고 한다. 다음 여정을 위해 길을 재촉해야겠다.

건들거리는 창의력, 위험한 놀이와 상상력

다사리 문화 기획학교
교장 김 월 식



“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한 이해와 오해

흔하게 예술가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과연 그럴까? 나는 10대 때 그림그리기를 시작했고 미술대학을 다녔으며, 작가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술대학에서 이런 저런 예술을 지도했다.

사실 중 고등학교 이 후에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지내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도 직장이야기, 가정에서 애 키우고 집을 늘려나가는 이야기, 취미로 한다는 골프 이야기 등에서 어떤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져 결국 자연스럽게 동창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새 주위에는 그저 자신의 작업에 열정을 갖고 작업에 매진하는 예술가들만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주위의 예술가들에게서 상상력을 발견하고 그 상상력에 감탄한 기억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특히 시각예술가) 자신의 작업실 밖을 나가지 않고, 면벽하거나 자신의 예술적 기능을 연마하고, 예술보다 더 잉여롭고 사사로운 취미생활에 집중했는데 나는 이런 예술가들의 행위에서 또 그

들의 작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놀라움을 발견하는 대신 사회와 단절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지극하게 편협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방법의 한편으로 택한 예술가적 삶이 예술가적 삶은 대체로 쓸모없는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삶의 태도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창의력과 상상력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 같은 감정들을 주로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 내게 ‘예술가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평들은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혹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술을, 예술적 소양을 배우고 익힌다.

이 즈음에서 탄생한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신상품인데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게 동시대와 미래적 인물상에 부합되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탑재시키고 싶은 부모들의 욕망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장의례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 주변의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주 발견하지 못하듯이 지난 10여년 간 지켜본 수많은 ‘문화예술교육’중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견하길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결국 이러한 질문은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과연 ‘문화예술교육’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한가? 그 상상력과 창의성이 예술적 체험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가?

모르겠다. 내 주위의 예술가들의 작업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나는 오히려 그들의 잉여롭고 사사로운 취미생활에서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 하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는 그들에게 사회와 다소 거리를 두고 스스로 단절된 채로 작가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삶의 행위와 실천, 소일거리와 시간보내기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들은 가끔 자신의 작업과 상관없이 손을 조물락 거리며 쓸모없거나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며 좋아하는데 이 쓸모없음이 결코 쓸모없는게 아니라는 판단은 동시대 자본이 독점하는 기술과 소비가치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다.

이 견고한 시스템을 거슬러 오르는 행위로서의 쓸모없음에서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창의력을 발견한다면 너무 오버하는 것일까? 결국 이 잉여의 쓸모없는 사사로움에서 나오는 불확정적이고 불가해한 행위들이 편협

한 작가관을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자신의 삶의 실천적 미학을 작업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부른다. 딱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잉여력과 그 잉여력으로 무장한 소일의 가치가 숨겨진 작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작가들의 삶을 지탱하는 편협한 태도들이 모여 예술계라는 다소 황당한 다양성의 카테고리를 만든다. 결국 예술가는 편협하고, 그 편협한 예술가들이 다수 모여 있는 예술계가 결국 다양성으로 읽히기 때문에 매우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것 같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창의성과 상상력은 무리속에서 관계속에서 차이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불친절은 창의력의 다른 말

작가 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낸다. 작가는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 매우 좋은 작가이다. 여기서 좋은 작가의 판단은 순전히 내 직관적 판단이지만 나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적인 증거가 그의 작업이 아닌가? 하는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는데 자신과 닮아 있는 작업을 하는 그가 좋은 것은 당연하다. 우선 그는 서두르는 것이 별로 없다.

흔하게 하는 예의상 친절도 별로 없다. 결국 그는 그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면 대면 만나고 그의 속도대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작업을 한다. 때문에 별로 타인에게 아쉬울 것도 없고 친절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그가 지도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방식과 속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만큼의 교육적인 철학을 실천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그의 수업에서 일반적인 친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의 수업에서는 참여자의 자기 주도성이 커진다. 참여자간 협력관계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선생이 갖고 있는 친절과의 거리감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적 거리감을 밀착시킨다. 그리고 다소 위험하고 실수적 경우의 수가 여기저기 존재한다.

시각에 의지해 관찰하고 사유하는데 익숙했던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관찰이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서툴게 작동되는 이 시각외적인 관찰은 더디기 때문에 집중을 가져오고 놀라운 인식의 체계를 참여자에게 선사한다. 또한 넘어지면서 서는 법을 배웠던 유아기의 감각을 호출한다. 실수를 반복하면서 익히게 되는 몸의 감각들을 기억해 내면서 성장과 실수에 대한 함수적 관계성을 배우고, 이를 참여자들의 각각의 삶속에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교육적 의미들이 숨어 있는 작가의 수업을 결과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왜 ‘문화예술교육’이 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 흔한 그림그리기와 노래하기, 연극 대사 외우기나 춤추기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쓸모없는 프로그램이거나 교육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업 같아 보인다. 더욱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친절하지 않은



대응과 설명은 오해(?)와 프로그램에 대한 저평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작가의 수업에 숨어 있는 창의성을 위한 설계를 읽고 함께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참여자의 삶에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불친절은 창의력의 다른 말이다.

작가는 자신의 소일거리에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매우 감동적이다. 얼마 전 우연하게 만난 이는 작은 알콜 버너를 다수 만들고 그 버너가 작동되는 것은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화력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에 놀라고 그 버너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작은 커피 캔을 반으로 잘라 만든 버너의 미학적 밀도는 작가의 예술적 견고함과 닮아 있었다. 아마도 작가는 커피캔을 자르고 작은 방화용 접착제로 알루미늄을 붙여나가면서 이 사사로운 공작적 태도가 가져올 창의적 후폭풍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건들거리는 창의력

개인적으로 최근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체를 뽑는다면 경기 서남부의 한 비보잉 댄스 그룹이다. 이 단체의 수업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춤교육이다. 몇 해 동안모니터링을 하면서 전형적인 장르 교육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었던 만큼 춤을 매개로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 단체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일반적 장르교육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금방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의 끝에 ‘건들거리는 참여자들의 몸 동작’이 걸려있었다. 3시간을 하염없이 건들거리게 하는 장

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 프로그램 속에는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공간과 타인의 몸이 활용되는 공간사이에 공유지가 있고, 그 공유지에서 관계에 대한 텐션이 조절된다. 배려가 없다면 부디 칠 수밖에 없는 전선 같은 공유지를 10대 특유의 친화지로 만들고 있다.

모르는 이들끼리 등을 맞대고 기립하는 이 황당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일어서다 넘어져도 바로 웃을 수 있다는 지점까지 흥미로운 것은 이 춤의 사회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증명하는 부분, 비보잉은 결코 관절을 꺾어 신체를 괴롭히며 타자의 춤을 디스하는 제스처가 아닌 듯 보인다,

이 예의 있고 즐거운 춤을 어찌 아니 출 수 있을 것인가? 풍경을 리듬으로 쪼개어 몸에 담는 경험, 춤은 시간을 몸에 축적시키는 이상한 기록장치이다. 말하자면 이 ‘건들거림’은 바로 무리속에서 관계속에서 차이속에서 창의적인 몸짓을 만들기 위한 신호이다. 이 신호는 개인에게는 타자의 몸에 말을 건네는 대화의 의지미면서 타자에게는 관계의 몸짓을 위해 읽혀지는 신호가 된다. 이 텐션은 타자의 몸짓을 배려하는 예의의 긴장감이고, 다



음 동작을 호출하며 창의적 시그널이기도 하다.

“누군가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은 그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 하나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전승되고 축적된 다양한 춤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전승된 몸’을 개별적인 몸 안에 각인해 넣음으로써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문화적인 몸들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전수된 ‘몸의 형식’에 맞춰 우리의 몸을 변형시킨다. 춤은 사회가 개인의 몸을 소유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므로 같은 춤을 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서로 닮아간다. 춤은 그렇게 ‘몸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침묵하는 실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문화적인 몸을 개인적인 몸에 이식하는 춤은 ‘몸의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르이다. 마스셀모스의 몸의 테크닉 중

마르셀 모스의 말대로라면 신체는 다양한 문화적인 몸들을 전수 받는다. 이 문화적 몸은 결국 몸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침묵하는 실천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침묵 안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존재한다. 대체로 건들거리는 행위로 대신 되는 침묵은 내재되어 있는 개별적 몸과 동시대 몸동작의 DNA와 연동되면서 타자에게 말을 건네고 회답을 받으며 서로를, 관계를, 공동체를 이해하고 배려를 배우는 통로가 된다.

위험한 놀이와 상상력

위험한 놀이와 창의력의 관계를 작가의 사례를 통해 조금 이야기 했다면 연극 치료 ‘S 연극치료 연구소’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위험한 놀이와 상상력의 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 해야 할 듯 하다. ‘S 연극 치료 연구소’의 놀이에는 연극적 장치가 포함되지만 연극이라기

보다는 무리속에서 관계를 읽고 사유하고 놀이하길라는 세심한 교육적 전략들이 숨어 있다. 초등 저학년 참여자들 사이의 부끄러움과 서먹함, 불편한 자신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모두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타자를 향한 관심의 개별성들과 접근적 태도들이 소통의지와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움으로 확장된다.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은 놀이 소재로 주어지는 에어캡의 소리에 반응한다.

에어캡과 몸의 접점은 소리를 만들고, 비로소 몸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흥과 에너지로 전환되는 신호가 된다. 이 신호는 곧 아이들과의 에어캡 쟁탈전을 가져온다. 에어캡을 서로 당기면서 타자의 신체에 전달되는 힘의 텐션을 감각적으로 익히면서 위험을 직감하고 조절하기 시작한다. 일상에서의 금기된 행동을 일부분 허용하는 몸 교육은, 감성을 활성화시켜 개별적 욕망을 예술적 가능성으로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심한 몸싸움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몸의



기운들이 충돌하고 함께하고, 포기하다가 자체가 놀이가 되는 난장이 된다.) 아마도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표현 욕구와 수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장소이자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서 프로그램을 더욱 즐겁게 하는 지점은 최대한 산만하게, 최대한 큰 소리로, 초등 저학년의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강사들의 자연스러운 티칭 테크닉이다. 산만함과 참여주체적 자율성의 알고리즘이 상상력을 배양한다.

이 위험한 놀이는 어떻게 창의력과 자신감, 배려심을 만들고 있나? 몸싸움에 가까운 타자와의 심한 몸의 텐션과 힘의 역학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이 놀이는 문명에 소외된 암묵지의 야생성들을 호명한다. 아마 최초의 인류사회가 이랬을 듯, 감각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질서 안에서 개인의 존재를 몸의 개별적 표현으로 인지한다. 이성적 위계의 등위로로는 절대로 습득할 수 없는 동등한 몸의 관계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결국 창의력과 상상력은 가끔은 이렇듯 위험한 놀이 속에서 타인과 나를 발견하면서 그 관계를 지켜내는 의지로 작동되며 만들어 진다. 때문에 이 위험한 놀이는 상상력의 촉매가 되는 것이다.

글쓴이 김월식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 '무늬만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그 외 2011생활문화재생산지단시 '인계시장프로젝트', 2012중증 장애인과의 협업극 '총체적난극', 2014동시대 아시아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cafe in asia'와 2016시흥시의 '모두를 위한 대안적 질문 A3레지던시'를 기획하였다. 2018년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외 다수의 국내외 전시에 참여 하였다, 현재 다사리 문화 기획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21세기 문화예술교육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권**



“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창의성(Creativity)과 상상력(imagination)을 기반으로 융복합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면서 융복합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한 시도 중에서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인간의 융복합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과학기술교육에 접목하여 “STEM”교육을 “STEAM”교육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Artful Thinking(2006) 프로젝트를 주도한 하버드대학의 Tishman과 Palmer는 예술통합교육의 효과를 실증한 연구에서 예술과 타 교과목 간의 연계 효과, 예술교육이 일반적인 사고능력이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다. 다시 말해, 일반 교과목 수업에 예술과 관련된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사고능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예술적 사유가 호기심이나 개방성, 합리적 사유 등 사유의 기질(thinking dispositions)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의 기질들(7 Thinking Dispositions)은 예술적 사유를 경험할 때 자

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통합교육을 준비할 때 이 기질들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술적 사고를 통하여 사고기질(thinking dispositions)을 습득함으로써 고차원적 사고와 다차원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되어 문화예술의 대중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향유와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은 연계되어야 한다. 게다가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도시를 지배하는 스마트 시티 시대이다. 도시의 모

든 공간이 인공지능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연결된 도시의 삶을 상상해 보라! 그곳에서 인간을 느끼고 인간을 호흡하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21세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바램대로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21세기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조망해 보기로 하자.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은 1960년대 10년간 문화부 장관을 한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와 1980년대 10년간 문화부 장관을 한 자크 랑(Jack Lang)의 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앙드레 말로는 문화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를 주장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했고, 문화 지방화(Décentralisation culturelle)를 선도하기 위해 문화의 집(Maisons de la Culture)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괴리된 삶을 사는 국민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자 했다. 말로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지방문화행정사무국(DRAC) 설립 등 긍정적 요소도 있었지만 대중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반면에 자크 랑은 문화 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를 선도하며 문화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문화수용자일 뿐 아니라 문화 생산자로 간주하였다. 자크 랑은 문화 민주화에 대한 반성에서 문화 민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국민을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였다. 자크 랑은 서커스, 만화, 요리, 패션 등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의 대중화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앙드레 말로가 8개로 시작한 지방문화행정사무국도 22개로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지방 분산화정책을 확고히했으며 문화의 산업화도 시도하였다.

1971년 설립된 문화매개재단(FIC: Fonds d'intervention culturelle)은 교육부, 문화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제도화하였는데, 자크 랑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학교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할 뿐, 학생들의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자크 랑은 알랭 사바리(Alain Savary)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였다.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사, 예술가 등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실습 현장에서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본 교과목으로 문화예술을 편성함으로써 예술교육을 넘어서 기초 교육으로 문화예술에 접근하였다. 학교에서 시도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이 문화예술프로젝트(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 수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와 기관들이 협력하고 예술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매재자 등이 참여하는 수업이다. 이처럼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방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학교와 학교 밖의 문화기관이 연계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기관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참여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기본 가치인 예술성, 심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즉, 예술을 매개로 세상을 보는 고차원적 시각,

다양한 학문 영역과 접목하는 다양한 시각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다. 교과 학습만으로 개인의 능력을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21세기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예술 수준과 역량을 높이게 된다.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문화예술을 즐기고 노년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까?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교육이 광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문화예술기관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각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문화예술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주장하지만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없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예술교육,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유네스

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즉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학교와 사회에서 시행해야 할 프로그램의 연계와 배분, 광주가 추구하는 AI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화예술의 거대 담론을 떠나 학생과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문화예술의 상상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프로그램, 21세기의 과학문명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할 광주시민의 예술적 감성을 개발할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글쓴이 이승권은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Aix-Marseille I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와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도시에 문화를 채워넣는 다양한 방법

전남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강희진



“

도시에 문화를 채워 넣는 다양한 방법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 ‘팬더믹’, ‘뉴노멀’, ‘언택트’, ‘집콕’ 등과 같은 용어와 함께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다.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했던 거의 모든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문화의 향유 방식도 당연히 바뀌었다. 취미도 강의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배우는 시대이다. 낮설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은 변화된 생활양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문화를 함께 읽던 행사가 그리워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오늘날은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나만의 어리석음일까?

시(詩) 한 편의 힘

오래 전 <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주최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우리 마을 한 줄 시 쓰기’와 ‘휴식 작당소’가 그것이다. ‘우리 마을 한 줄 시 쓰기’는 북구마을공동체 및 북구 주민 30여명이 모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그것을 바탕으로 시를 한 편씩 작성하는 것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작품들이 시로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이 받아든 종이에 꺾꺾한 글 자씩 시를 적어내려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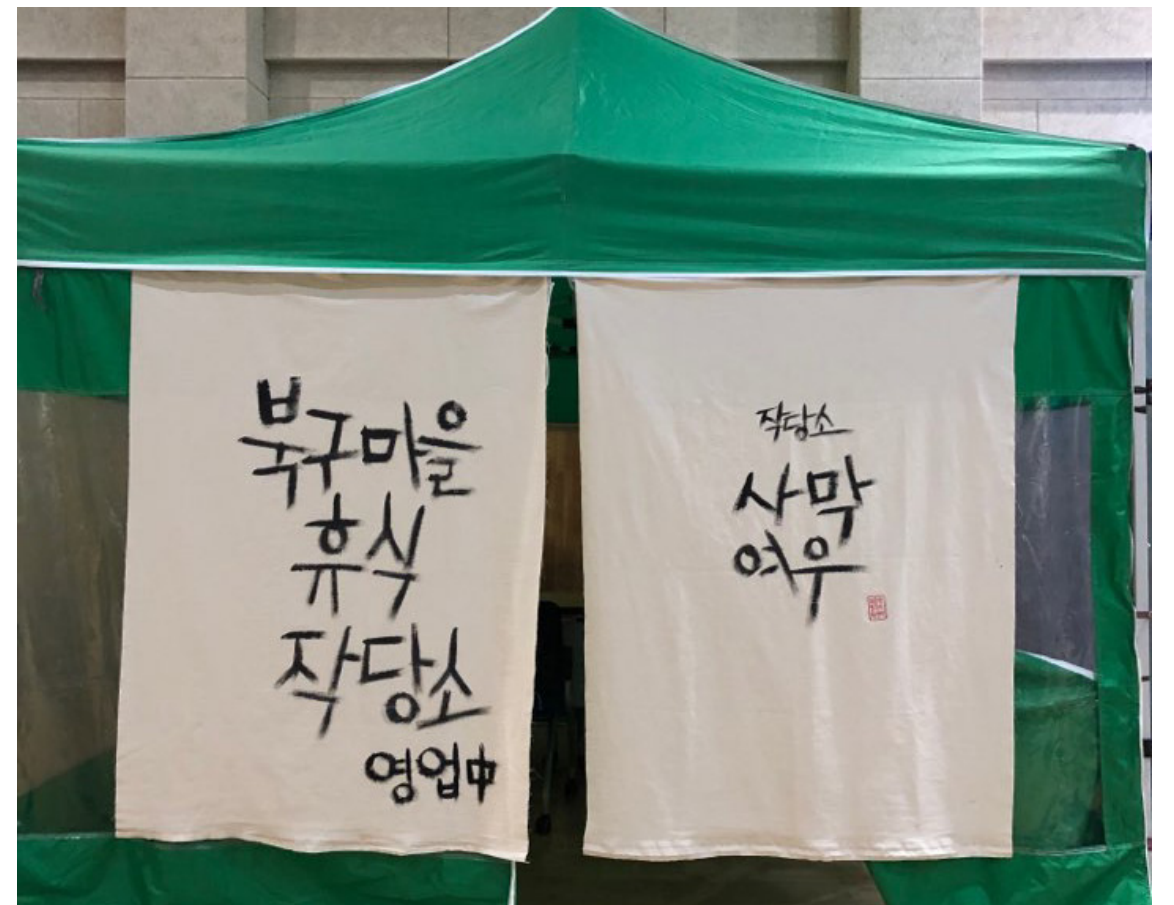
또 다른 하나는 ‘휴식 작당소’라는 이름 아래 마을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사막여우’라는 이름으로 시 읽어주는 일을 담당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문진표를 작성하여 ‘진단소’에 간다. 그곳에는 정박사와 김박사가 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통해 상태를 진단을 받는다. 그 중 시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있는 ‘사막여우의 방’에 들어온다. 진단표를

확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 상태에 맞는 시를 찾아 읽어준 후 처방 기록지를 써 주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난다.

준비해 간 여러 편의 시집에서 각자에게 맞을 법한 시를 찾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떤 사람은 시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나서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 70이 다 되신 한 분이 자서전이 쓰고 싶다고 찾아오셨다. 오랜 꿈을 이야기하던 그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에게 어울리는 시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시를 찾아 읽어주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눈물을 닦고 나가는 그의 환한 얼굴은 기억이 난다. 기존 익숙한 일방적인 강의나 강연 형식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운영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시 한 편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시를 쓰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시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고 쓰고 싶어 한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시를 쓰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시를 읽고 쓰고 싶어 한다.





도시의 권리, 주민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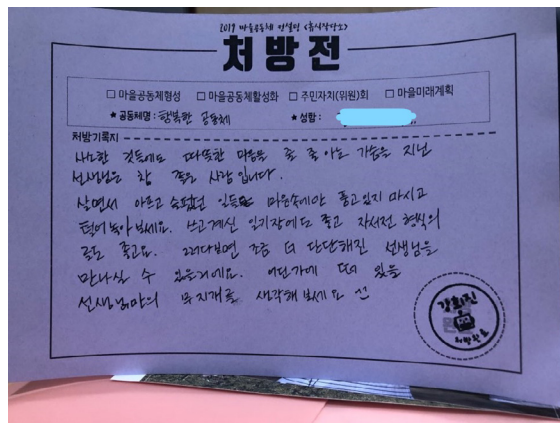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도시의 권리, 그리고 주민의 권리 나아가 문화예술의 대중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지금 문화도시는 경제적 가치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을 위한 소외계층의 포용과 공동체의 사회 연대와 관련한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자발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문화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문화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도시의 권리”에서 “도시 거주자들은 누구나 충분히 공간을 전유하고

도시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은 더욱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문화예술은 민주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매개체로 구현된다. 그동안 문화예술을 통해 접근된 “문화민주화”의 개념은 고급예술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예술가 중심의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진정한 대중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주체성과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는 공동체 활력으로 예술 활동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문화도시를 구축하는 데 지역민의 사회 통합과 창의적인 사고의 제공, 행복한 삶에 대한 계기를 제공한다.

도시 속에서의 문화 활동이 꼭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작은 계기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시기에 나의 이런 희망은 환상일 수도 있겠다. 코로나 시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문화 행사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막을 내린 제 3회 아시아문학 페스티벌도, 목포에서 열린 김현 문학 축전도, 시와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도, 각종 문학상 시상식도, 백일장도 개최되었다. 유튜브를 열면 매일매일 온라인 콘서트가 경쟁적으로 중계되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국악, 무용, 오페라, 콘서트, 전시까지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러시아 음악가들과 한국의 모 관현악단이 양 도시 간 6,565km 거리를 넘어 펼치는 ‘국제교류 음악회’가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으로 시작되어 시청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문화행사들은 낯선, 그러나 이제 조금은 익숙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대부분의 행사들은 더 진화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굳이 행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언제고 행사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코로나 시대가 가져 온 문화향유의 다양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과 시간은 요원한 것일까? 뭉쳐야 사는 세상은 어느새 흩어져야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시대는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휴식 작당소’에 들러 내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시 한편 함께 읽을 날을 꿈꿔본다.

글쓴이 강희진은 2004년 <문학사상>에 시로 등단하여 시를 쓰고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해외 한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시집으로 『일요일의 우편배달부』와 사진에세이 『했으나 하지 않은 날들이 좋았다』 등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향체를 만들자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이 승 권



“

코로나로부터 100% 안전한 문화예술교육이 있을까?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
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소 몇 년 동안은 이를 완전하게
극복한 안전한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 세계적인 감염자 규모를 볼
때 이제 시작을 조금 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직 정
점은 멀었다고 한다.

이제 첫 고비를 넘어 다음고비를 넘어 준비하는 시
기라고 한다. 언제쯤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을까? 1~2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11월 7일부터 코로나 대응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
분화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바이러스
가 활동하기 좋은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의 완전
박멸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생활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
하는 선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삶든 죽음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할 상황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시기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 한명도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대면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확진자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규모를 최소화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는 대면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
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특히 대상과의 교감이 전부인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
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비대
면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를 이룬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
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의 상황이 마치 우연히 닥친 재앙으로 생각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기능적인 논의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비대면의 가상의 상황을 만
들어 예술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술교육

은 사람들과의 관계문제에 있으며 대면하지 않고서는
예술적 소통은 절대 불가능하다.
비대면 상황을 전제로 한 온라인 교육공학에 대한 집착
은 예술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이 될 수 없으며 부
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를 기회로 디지털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야 한다는 논의가 코로나 시대를 적응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with 코로나' 시대를 문
화예술교육에서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문화예술교
육의 코로나 적응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
어 관계성을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관
계 지향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커뮤니티(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교육', '커뮤니티(관계성) 자체'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코로나 트라우마는 격리되고 단절되는 일상에 대한 마
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된다.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고립
과 고독, 자기 존재성의 약화로 인해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예술을 배움으로써 일상에서의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를 더욱더 자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걱정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도 연
결되어 있고 자연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의 밥벌이도 연
결되어 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아니다. 다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바꾸거나 새
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연결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와 사람들 사이를 그동안 무
감각적으로 대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한
다. 더 많이 연결하고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 연대하고 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
이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
부에서 침입한 모든 세균은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
져야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화
적 항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
계를 만들어 가는 소통의 매개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성
립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비대면'이나 온라인만이 코로나에 적응하는 유일
한 방법이 아니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은 최소로 대면하는 방법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가 대면을
대체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대체
재가 아니다. 보완재다. 따라서 "코로나=비대면"의 등식
은 맞지 않다.

온라인은 대면의 또 다른 소통 기술 및 방법의 일환일
뿐이다. 소통의 접근 방식, 기술, 가치, 관계특성 등 다른
차원으로 논의할 문제다.

문화예술교육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기
술과 노하우의 전수, 생각의 교류, 감정의 상호작용, 즉
관계성을 익히는 것은 최소 대면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대면할 수 없다면 방구석에 처박혀 온라인 학습교안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수많은 유튜브 선생님(?)으로부
터 스스로 익히고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적정한 삶)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환경생태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인 고양을 추구

소수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코로나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비대면의 '데면데면한' 문화예술교육에서 '대면한(최소)' 문화예술교육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에서 실시간(온에어) 문화예술교육으로

홈 문화예술교육 지원(집안에서 가족단위 예술교육지원)

글쓴이 정민룡은 전남 완도에서 나고 광주에서 공부했다. 그 뒤 어른이 되어 유일한 일터이자 놀이터인 광주 북구문화의집에서 짝 자랐다. 현재는 주민들과 함께 골똘히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날에 도움이 될 후배들이나 아이들을 양성하고 있다. 메이커문화 확산, 생활문화디자인, 공방프로그램, 노작중심의 예술교육 <바퀴달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코로나 시대, 광주문화예술의 일상을 엿보다

광주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
과장 김 은 영



“

코로나19바이러스로 시작했던 올 한해가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침공으로 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이 끝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 유행의 확산만 지속되는 것 같은 긴장의 나날이다. 오죽하면 중앙 방역대책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with)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문화, 제도 등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을까.

바야흐로 코로나 백신이 상용되기 전까지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가 화두가 될 것 같다. 위기의 시대에는 당장의 ‘밥벌이’가 아니어서 가장 먼저 위축이 되는 분야가 예술이기에 이 시대의 문화예술의 현주소가 참으로 위태롭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주요 미술관들의 올해 전시는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가 많았다. 개관과 휴관이 반복되면서 보다 안전하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가상의 미술관’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가 대세가 되었던 것도 그 맥락이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마음의 그

림자도 길어져 더욱 예술로써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 무엇이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가상의 미술관’이라 할 온라인미술관이 새롭게 부상되니 ‘상상의 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새시대를 열었던 앙드레 말로가 떠오른다. 프랑스의 지성으로 문화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앙드레 말로(1901~1976)는 일찍이 인류가 남긴 방대한 예술작품을 간직해 온 박물관에 크게 주목했다.

실제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작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진 복제기술의 발달로 도록이라는 인쇄물을 통해 박물관에서보다 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앙드레 말로는 ‘상상의 박물관’이라는 열린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박물관은 실제 모든 예술품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박물관들에 없는 온갖 장르의 다른 작품들도 관람객들에게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미술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꼭 그 자리에서 감상해야 했던 작품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는 전시형태로서 최근 다시 등장한 것 같다.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적 분위기와 여러 상황과는 거리가 있지만 뉴욕 모마(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는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큐레이터, 디렉터, 아티스트와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는가 하면, 미술관의 컬렉션을 보고 참가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Zoom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멀리 있는 친척 가족들과 집에서 미술관을 관람하듯 대화식 투어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진행하기도 했다.

폴 게티 미술관은 가장 좋아하는 미술작품을 선택한 후 집안에 있는 아이템으로 작품을 재창조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명화패러디도 제안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계의 여러 미술관에서도 미술관 소장품을 클로즈업해서 살펴보고, 작품에 관한 역사 및 제작과정, 작품 속의 숨은 의미, 상징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미술품 소장품에 연계된 아트 메이킹, 색칠 공부 자료, 퍼즐 등 아이들이 집에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하는 ‘2020미술주간 챌린지-창의로운 미술생활’의 일환으로 소장품 중 세 작품이 챌린지 대상작품으로 선정되어 참여자들이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출품하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챌린지 대상 작품은 광주여성화단의 맥을 잇고 있는 꽃과 여인의 화가 강숙자작가의 ‘그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2003년 작)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고 한국 전통의 색과 문양을 통해 고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고(故)이강하작가의 ‘바다로 가는 길’(1998년 작), 과일과 사물을 합성해 새로운 꽃과 나무, 과일 등을 만들어 낸 후 다시 사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황정후작가의 ‘과일’(2020년 작)을 선정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들 소장작품을 패러디한 작품들로 새로운 미술활동을 펼침으로써 코로나시대의 집콕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강숙자작가의 작품 ‘그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몽환적인 표정을 짓고있는 여인의 옆모습을 다양한 색채로 변주해 원작과 비교하는 재미를 주는가 하면, 멀리 바다가 보이는 길을 향하고 있는 아이 업은 엄마의 뒷모습을 그린 이강하작가의 ‘바다로 가는 길’은 실제 포대기에 아이를 업은 자신의 사진을 콜라주하기도 하면서 기량을 펼쳤다. 파프리카의 내부에 오렌지가 결합된 이미지인 황정후작가의 ‘과일’은 키위 속에 체리, 호박 속의 쌀, 사과 내부를 파서 오렌지를 뒤섞어 재치 있는 작품들이 패러디됐다.

예술적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예술적 경험이나 체험이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 멈춰서버린 상황에서 이렇듯 새로운 미술활동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아무 제약 없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하곤 했던 일상이 이제는 특별한 활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예술참여활동 외에도 온라인 전시 관람이 인기다. 유례없는 상황도 계절이 바뀌면서 점차 적응되어가는 듯 모든 전시는 온라인 전시를 동반하고, 온·오프라인 전시가 동시에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내 손 안에 전시를 편리하게 보는 즐거움과 현장의 감동과 전율을 맛보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수고가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풍속이기도 하다.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고 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심리적 방역, 즉 예술 활동에 더욱 마음을 써야 할 때인 것 같다.

글쓴이 김은영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과 작가들의 창작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오월의 문화위상학을 위하여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전 동 진



“

2016년 노벨물리학상 시상식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추천위원이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들이 전혀 물리학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운데 구멍이 없는 도넛, 프레첼빵, 베이글, 머그컵을 들고 나왔다. 노벨물리학상의 바탕이 되는 '위상 수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물질적 속성으로 보면 설탕 문은 도넛과 프레첼빵, 베이글이 유사하다. 그리고 머그컵과 도자기 컵이 속성이나 쓰임에 서 같다. 그런데 위상수학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위상 수학은 품고 있는 공간을 통해 사물의 유사성을 파악한다. 설탕 문은 도넛은 0hole, 프레첼 빵은 3hole, 베이글은 1hole, 머그컵은 1hole, 도자기 컵은 0hole이다. 베이글과 머그컵이 위상적으로 동일하고, 도자기 컵과 설탕 문은 도넛의 위상이 같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NlqYr6-TpA&t=23s>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지명, 위치를 나타낼 때도 동서남북을 붙인다. 남광주, 동광주, 서광주, 북광주라는 말을 쓰지만,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다. 그런데 남광주는 북광주나 동광주, 서광주와는 또 다른 의미의 장을 펼친다. 뒤에 있는 것들은 주로 방향을 나타내는 데 쓴다. 반면 '남광주'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범주, 영역

이 있다. 남광주 시장, 남광주역, 남광교, 전남대병원, 남광주 고가도로 등이 남광주를 이루는 주요 공간 요소들이다.

도심을 오랜 시간 쾌적하게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가능한 곳이 광주다. 150만이 사는 대도시의 공원 중에서 광주의 푸른길공원은 그 길이로는 단연 세계에서 으뜸을 자랑한다. 거의 10Km에 달하는 푸른길공원의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이 옛 남광주역 자리다.

남광주역에서 양림동쪽으로 광주천을 건너는 푸른길공원길 다리 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진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광주천의 물길을 따라 천변좌로와 우로로 자동차가 달린다. 그 아래 광주천변 양 옆으로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가 달린다. 아시아문화전당 쪽으로 보면 옛 전라선의 자취를 안은 철길이 있다. 뒤돌아서 올려다보면 남광주 고가도로가 있고, 그 아래 놓인 것은 남광교다. 물면으로는 광주천을 건너는 징검다리도 놓여 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물밑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게 된

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길을 목도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신기할 정도다.

광주는 세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했다. 경주에 비하면 유형무형유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형유산은 전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가슴 뿌듯하게 세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했다. 과거에서 온 문화유산으로 치면 광주는 한국의 문화중심도시로도 부족함이 많다. 광주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동안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공동체를 열었다. 이것은 불가능의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꿈의 공동체였다. 광주가 세계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서 온 문화유산이 아니라 바로 이 '열흘의 공동체'라는 미래에서 온 문화유산 덕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턱없이 부족한 명칭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는 아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개시된 '열흘의 공동체'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최정운 교수는 『오월의 사회과학』(풀빛, 2005)에서 이렇게 말한다.

5·18이 우리 근대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갖는 의미의 핵심은 이 절대 공동체의 체험일 것이다. 그곳에는 사유재산도 없었고 목숨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고 시간 또한 흐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중생의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개인들은 융합되어 하나로 존재했고 공포와 환희가 하나로 얼크러졌다. 그곳은 말세의 환란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새로 태어나는 태초의 혼미였다. 그런 곳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¹⁾

과거의 사건으로서 5·18과는 전혀 무관한 최정운 교수와 같은 이들에게 미래의 5·18을 맡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80년 광주에서 '미래'를 보았던 이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반대받지 못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어?'라는 말을 뒤통수로 흘려들으며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광주로 모여 들었던 미래의 문화 주역들은 대개 떠나왔던 자리로 되돌아갔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발길을 끊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수용소를 세 군데나 옮기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이자 빈의 제3정신의학이라고 칭하는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의학자이다. 그는 죽음과 직면하는 순간마다 삶의 의미를 찾아 스스로를 미래로 기투해 나갔다. 그는 특별한 '개인'을 성취할 수 있었다. 80년 오월 열흘의 공동체를 이룬 시민, 시민군들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전대미문의 공동체를 열었다.

5·18은 100만이 가까운 대도시에서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한 전대미문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인류가 그 가능성조차 쉽게 발설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미래에서의 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과거에 발목을 잡혀준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세 군데를 옮기면서도 기적처럼 살아 남은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청아출판사, 2017)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²⁾

어떤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집단적 신경증은 있었다. 그리고 나름의 치료책이 있었다. 실존적 공허가 주를 이루는 집단 신경증은 개인의 허무주의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흐르기도 한다. 실존적 공허에 의한 허무주의나, 허무주의에 의한 실존적 공허에서 동시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프랭클은 덧붙인다.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때때로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³⁾

80년 광주에서 열린 열흘의 공동체를 '과거의 사건'으로 규정하면, 피해자 담론이나 보상 담론, 처벌 담론 등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열흘의 공동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류사에서 구현된 적도 없었고, 구현될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한 공동체였다. 80년 오월 광주에서 열흘 동안 열린 전대미문의 공동체를 '미래의 사건'으로 전회할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목적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 그 과정 자체에서 우리는 다채로운 의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열흘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적으로서 미래의 사건으로 자리하면 우리는 범결정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프랭클의 말이다. "인간은 조건 지워지고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

지 양단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⁴⁾



<남광주를 흐르는 광주천 징검다리에서 올라다본 다리들>

남광주에서 광주천을 따라 걸으면 전라선철교, 푸른길공원다리, 남광주고가다리, 남광교, 징검다리를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 광주천을 건너는 다리도 이렇게 한 자리에 5개가 놓일 수 있다. 오월은 과거로에서 흘러오는 도도한 역사의 강만이 아니다. 미래에서 흘러오고 있는 세계사적인 문화의 강이기도 하다.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오직 하나의 길뿐이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멀리에서 하염없이 아쉬울 뿐이다.

1)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2005, 99-100쪽.

2) 빅터 프랭클, 이시형 옮김,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2017, 129-30쪽.

3) 빅터 프랭클, 같은 책, 131-2쪽.

4) 빅터 프랭클, 같은 책, 211쪽.

글쓴이 전동진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다. 저서로는 시집 <그 매운 시 요리법>, 시론집 <서정의 윤리>, <서정시의 시간성 시간의 서정성>, <포에토로지(서정시의 위상학)> 등이 있다.

재난 감각 ‘쇼핑’ 제안서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한 순 미**



결단의 감각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찰나의 겨를조차 잃어버린 하루, 계절의 변화에도 무심한 표정들이다. 전염의 공포가 지배하는 동안 안부를 묻는 일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습관적인 말이 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멀리할수록 서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방역 수칙 아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일상, 도시, 거리, 문화, 예술, 공동체 등 익숙한 용어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전과 다른 개념으로 재탄생하길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시회, 공연장, 영화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던 발걸음 대신에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집하고 선택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디에 접속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냥 쇼핑만 하고 지나칠 때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접할 기회는 많아졌는데 빈 장바구니를 볼 때처럼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이것 또한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해서 소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쇼핑이라고 생각해 왔던 기존의 문화예술 감상 형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문화예술 쇼핑 목록들 중에서 접속 경로를 따라 구매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 기억저장소에는 디지털 쓰레기들이 축적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팬데믹의 재난은 다른 감각의 사용을 제안한다.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입장권을 가지고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선택’ 과정 대신에 언제든지 접속을 시도할 수 있고 접속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의 감각을 새롭게 체득한 것이다. 이 결단의 감각은 생각, 의지, 마음이 하는 일과 다르게 일종의 놀이와 같은 행위다.

“정크스페이스(Junk-space)”

지구는 점점 인간들이 내버린 쓰레기들로 거의 호흡이 정지된 상태다. 인류의 역사는 곧 쓰레기를 축적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구의 지층에 남긴 인류의 흔적들로 인해 새로운 지질시대에 도달했다는 의미에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후변화, 전염병 등 재난의 연쇄적인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다.

쓰레기는 재난 시대를 표시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물이다. 폐품이나 쓰레기를 재활용한 정크아트(Junk Art)에서 예술의 소재로서의 쓰레기와는 다르게 쓰레기를 사유하는 이론가들이 있다. 네덜란드 건축가 렘 콜하스는 “정크스페이스(Junk-space)”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총합이다.”(10쪽)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도시 풍경을 바꾸어버린 하나의 원리로 설명한다. 렘 콜하스의 에세이 ‘쇼핑 안내서’를 다시 읽은 프레드릭 제임슨은 “쇼핑”을 이렇게 재정의한다. 즉 “쇼핑은 하나의 공연이다. 돈과는 상관없는 공연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공간이며, 그 공간이 바로 정크스페이스인 것이다.(93쪽)(렘 콜하스·프레드릭 제임슨, 임경규 옮김,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 문학과지성사, 2020.)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쇼핑의 대상이자 목적이다. 산다는 것은 곧 쇼핑하는 것이고 공연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쇼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 수 있다. 쇼핑은 ‘바이러스’와 같이 일상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존재의 형식을 결정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과 몸짓, 그리고 도시 자체가 바로 정크스페이스이다.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의 옮긴이는 다소 난해한 두 사람의 사유와 이론을 다음과 같이 풀어쓴다. “정크스페이스는 모든 도시 공간을 지배한다. 박물관, 공항, 시내, 학교, 병원, 교회, 심지어 뉴스와 방송, 교육, 인터넷까지, 도시와 건축이 쇼핑의 메커니즘에 의해 조직화되고, 모든 공간에 쇼핑의 영혼이 깃든다. (...) 우리는 정치를 쇼핑하고 종교를 쇼핑하고 이데올로기를 쇼핑한다. 쇼핑이 우리가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옮긴이 해제: 정크스페이스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앞의 책, 101-102쪽.)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담은 ‘쇼핑 안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재난 목록을 구매하라는 ‘쇼핑 제안서’처럼 읽힌다. 우리는 쓰레기에 갇혀 쓰레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 도시 전체가 재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재난들이 숨쉬고 거주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화예술의 공간과 감각은 이 도시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리-스튜디오: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을 꾸다

전시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소수의 사람이 입장한 후 관람할 수 있다. 이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상상력, 창의력, 감수성만이 아니라 '기다림'과 '서성거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텅빈 거리를 새로운 요청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품어본다. '거리-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소.

다른 일상을 쇼핑하길 원하지만 결국 일상에 갇힌다. 하지만 그런 암울한 시도들 자체가 새롭게 얻게 된 감각의 형식이다. 문화예술 작업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는 몸짓에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그물을 던지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돌맹이 하나, 들꽃 한송이, 들고양이, 쓰레기들에도 자주 발길이 머물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재난의 거리를 쇼핑할 준비가 된 예술가인 것이다.

문화예술의 역사는 본래 반란과 거역, 불복종의 역사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단조로운 일상에 균열을 내고, 작은 혁명의 순간을 만들어온 방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지우고 또다시 그리는 그 무수한 시도들. 무의미한 반복 과정에서 얻어낸 한갓 남루한 흔적 같은 것. 어떤 갈망은 동어반복을 통해 완성된다. 쓰레기에 갇혀, 잠시 걸어가야 할 장소와 방향을 상실한다.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다시 꿈을 꾸다. 전라도 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광주 오월의 거리에 저장된 저항의 역사 기억/기록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새로 바꾸는 숨은 힘이 되길 기원한다.

글쓴이 한순미는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플러스사업단(HK+)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시아 재난인문학, 한국 근현대 문학, 한센병 역사문화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서사, 트라우마, 치유, 소수자와 타자, 공동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논문은 「나무—몸—시체: 5·18 전후의 역사 폭력을 생각하는 삼각 운동」(2016), 「분홍빛 목소리—한센인의 기록에서 혼종성이 제기하는 질문들」(2017), 「세계를 바라보는 다초점 렌즈로서의 재난(인)문학(2019), 「재난 이후 인문학적 실천: 세월호의 '바람'에게」(2020), 「팬데믹 이후 재난인문학」(2020) 등이 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울 림

통신원 글

당신의 꿈은 안녕하신가요

통신원 김수빈

5월의 녹록한 기운이 가득한 어느 날, 광주문화재단내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운차게 깔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익산의 중년 여성들로 꾸려진 문학단체‘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이하 마고방)의‘송윤희’팀장이었다. 그녀는 2020년 생애 전환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 선정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질문으로 워크숍의 포문을 열었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은 자신보다도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살아온 50-60대의 환경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생 후반기로 접어드는 변곡점에서 마음 한 켠에 두었던 그들의 진정한 ‘꿈’을 다시금 되돌아봄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자씨와 재봉틀>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선정단체인 ‘여정공방’과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함께 했고 익산 여성의 전화 송윤희 팀장님이 특강강사로 초대되었다. 송윤희 팀장의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사례를 나누며, 경자씨와 재봉틀을 잘 꾸러가기 위한 방법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송윤희 팀장, 그녀는 포근한 햇살과 같은 여느 6070세대의 여성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청춘이라 불리어도 될 정도로 생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주도하에 진행된 워크숍은 한마디로 그녀의 이야기였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 선정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 마고방의 팀장‘송윤희’씨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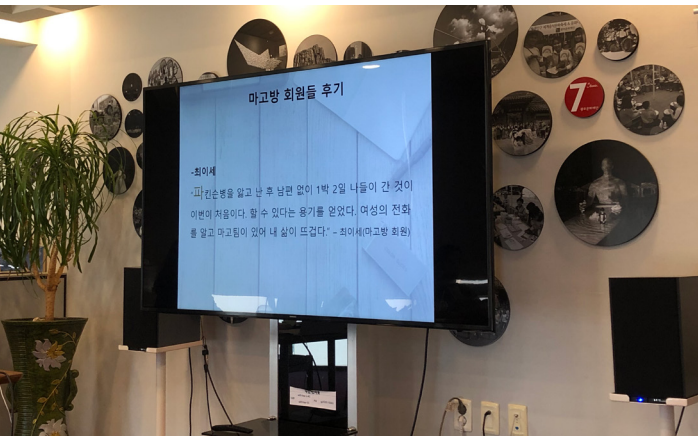
근데 그 날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교생을 운동장으로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하늘로 가셨다. 그 분을 위해 묵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때 본 그 꽃상여가 나한테는 슬픔과 무서움의 느낌보다도 마음에‘별’하나가 아주 세게, 여기에 세게 들이박히는 기분이었어요.‘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나 죽을 때, 나도 저렇게 비단 꽃상여처럼 멋있게 할 수 있게.’”

그녀가 연신 가슴팍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가 말한 꽃 비단 상여(喪輿, 상례 때 시신을 운반하는 기구)의 주인공은 바로‘별’이라는 시를 창작한 조선의 시인‘가람(嘉藍)’이병기’선생이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두 눈엔 정말로 반짝이는 별이 있는 듯 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느껴본 짜릿한 마음과 함께 상기된‘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어릴 적 꿈은, 애석하게도 자라나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자연스럽게 마음 속 한 구석으로 밀어 두었다고 한다. 그렇게 작가의 꿈을 가슴 속에 묻으며 먹고 살아가는 생애 치중하는 삶이 익숙해져가던 60살의 어느 날, 아는 동생의 제안으로 문학모임 마고방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때 작가의 꿈을 꾸었던 그녀의 부푼 마음과는 다르게 마고방의 첫 만남에서 그녀는 큰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그녀는 저마다의 꿈에 안부를 묻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60살 평생을 자신보다도 가족들의 수저를 뉘주느라, 밥을 챙기느라, 반찬을 올려주느라 자신의 안녕은 뒷전이 되어 버린 그녀의 어릴 적 꿈은‘글을 쓰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다. 그녀는 꼭 그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반짝이는 눈을 하고는 난생 처음 꿈에 대한 에피소드를 늘어놓았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상여날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나랑 같은 세대이신 분은 아시려나. 사람이 고인이 되면 마을에서는 막 여러 개의 흰 천을 너풀대면서 고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신이 담긴 운구함을 들고 함께 가주거든요. 그걸 상여라고 해요. 근데 어떤 날에 꽃상여라고 해가지고, 그 흰 천들이 나풀대는 사이로 예쁜 색색 꽃들이랑 비단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 송윤희 팀장이 준비해온 자료 중, 회원들의 후기.



▲ 마고방의 결과물 책자를 들고 설명하는 송윤희 팀장.

쓰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냅다 그녀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적으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녀는 못 미더운 마음으로 첫 만남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 일단 글을 써보기로 했다고 한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녀는 청국장에 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로 했다. 청국장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녀가 첫 아가를 가졌을 시절, 그녀는 엄마가 끓여준 청국장이 먹고 싶어 일을 마친 남편이 돌아온 식사 자리에 고기찌개와 엄마의 청국장을 함께 상에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사람이 먹는 걸 먹어야지, 왜 이렇게 냄새나는 걸 먹는 거야.' 청국장은 그녀의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기를 배에 품고 있던 그 시절, 그녀는 울컥한 마음에 한 술 차려놓은 팔팔 끓는 청국장을 냅다 주방으로 던져버렸다고 했다. 입덧이 심한 그녀가 간신히 먹고 싶어 엄마에게 부탁한 청국장이었다. 그 뒤 그녀는 TV에서 청국장과 두부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다고 한다. 청국장은 그녀 마음속의 응어리가 된 것이다. 그렇게 청국장은 그녀의 치유적 글쓰기의 첫 번째 소재가 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청국장에 얹힌 일화를 쓰다 보니, 의아했던 글쓰기의 첫 시작과는 다르게 그녀는 글을 써 갈수록 속이 시원

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꼭 묵은 체증이 훅 하고 어느 순간인지도 모르게 풀려버리는 것처럼. 그 후 그녀는 청국장에 관한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다고 한다. 이제 청국장은 그녀에게 하나의 시나리오 소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응어리는 속에 두면 응어리지만, 꺼내면 치유가 된다. 그것이 바로 치유적 글쓰기였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속 깊은 곳에 두었던 문학이라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머지않아 마고방의 팀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마고방 문학 활동의 전반을 리드하며 팀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마고방의 이름으로 함께 한 경험들을 말해줄 때 꼭 덧붙인 말들이 있었다. '우리 같은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누가 귀 기울여주겠냐고 생각했다.' 지금껏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랴 정 중앙에서 본적이 아득했지만, 마고방과 함께 한 경험들의 끝에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울림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

12월의 그녀들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한 해의 종착지인 달에 작품발표회

였던 것이다. 육십 평생 드레스를 입어본 적 없던 그녀는 민망하고 낯설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강제로 입으라는 반장님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입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나가라던 반장님의 말을 기억한 채 무대로 나아간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고 한다. '드레스를 입기를 잘했다.' 실크드레스를 입은 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글을 읽는 그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한 여자였으며, 행복한 여자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무대 밑에서 바라보는 가족들 또한 행복의 웃음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렇게 마고방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머물며, 삶의 질이 올라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가족들도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내 주변으로도 행복이 파생된다는 걸 느꼈어요. 마고방에서 문학 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간 거예요. 가족들도 우선 엄마가 행복하니까 자기가 이 더 행복해하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내 주변도 있다. 이는 곧 스스로의 존재 의식을 파악하여 자기를 존중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존감으로 이어졌다. 마고방은 그녀에게 그러한 베이스를 구축해줄 때 동시에 그녀를 알아가는 자아실현의 매개체였고 그 이상을 넘어서 생기를 충전해주는 멀티비타민이자 도전의 새로움이었다.

그런 그녀들의 열정은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함께하던 선생님의 사정으로 글쓰기 강의를 종료된 후, 그녀는 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문학 활동 지원 공모전인 '문학과 한 달 살아보기'의 면접에 지원하여 선발되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문학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됨은 물론이며 요가, 숲에서 살아보기, 북 토크쇼 등 그녀들이 평소에는 쉽사리 겪어보지 못할 체험들을 하며 몸으로 깨닫고 느

껴가는 범위는 더욱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중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내비춰진 북 토크쇼를 이야기하며 그 날의 감정선을 다시 내비치기도 했다.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귀 기울여줄까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과는 다르게 청중들의 큰 메아리가 되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때 당시의 흥분을 기억하는 듯 준비해온 화면자료를 넘기며 문학이 가지는 힘에 대해, 그리고 그로서 파생된 가치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말했다.

"그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준비해간 것 이상의 열띤 이야기를 청중들이랑 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처럼 마고방의 이름으로 함께한 활동들이 불러오는 힘은 대단했다. 문학으로 시작해 누군가와 서로 치유됨의 대화법을,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의 마인드를, 그녀들의 자랑거리가 된 결과물들을, 그리고 그녀 스스로 존재자체의 가치를 알아가고 보다 더 나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힘을. 그것들은 결코 그녀가 서 있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들이 아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한 발자국에 마고방의 '함께'라는 힘이 더해져 문학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그 이상의 시너지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리고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큰 행복이 되는 것에 될 수 있다는 걸 안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그저 마음속에 묵묵히 놓아두었던 그 꿈을 하나씩 끄집어 내려한다. 그리고 그 꿈에 하나의 발걸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보태졌다. 그렇게 그들은 긴 터널을 지나 함께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들의 한 번 뿐인 생애 전환기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이와 같이 인생 제 2막의 삶을 향한 변곡점에 서 있는 제 2의 송용희 씨를 찾고 있다. <경자씨와 재봉틀>은 그녀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나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50-60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에서부터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본래 <경자씨와 재봉틀>이라는 프로젝트는 광주문화재단의 기획 하에 만들어진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광주문화재단으로 찾아와야만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던 접근성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년도부터는 광주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가까운 일상권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공모 기획 사업으로 전환되어 '문화집단 열혈지구', '여정공방'의 주도하에 북구, 동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 된다.

좋은 삶이란 없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매 순간순간 필터를 꺼 놓은 프레임처럼 달라질 뿐이다. 자기 자신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이는 아마 성별, 종교, 나이, 국적을 넘어선 전 인류의 공통된 바램 일 것이다. 나는 이번 취재를 함에 있어 보다 더 나은 삶이란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기어코 문화예술이라고 답할 것이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굳어버린 세상에 처방하고 싶은 유연제

통신원 김수빈

꽤 진지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 아주 진지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할까. 이번 취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진지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월요일의 아침, 계속되는 장마전선으로 우중충한 오전이었다. 보내준 주소의 도착지는 공고롭게도 꽤 눈에 익숙한 곳이었다. 언젠가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었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 오다가 다 꽤 많이 봐온 곳이었다.

사실 맨션 바로 옆쪽에 위치한 대문짝만한 글씨의 빈티지스러운 비노기과에 시선을 빼앗긴 채 걷다 보면 나오는 집이다. 일반 주택이겠거니 싶지만, 두세 번 볼 때야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곳. 그 뒤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저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었다. 공고롭게도 이번 취재의 장소라니.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을 가지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본 건물의 외관도 꽤 남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맨션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으로 꽤 바랐던 분위기가 나를 반겨주었다. 왜인지 노다지를 발견한 것만 같은 느낌. 무드와 감성에 꽤 큰 중요성을 두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법한 분위기였다. 분위기에 압도당한 탓일까, 뒤이어 뭔가 범상치 않은 능력이 하나씩 있을 것만 같은 이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이번 취재 대상인 연구모임의 연구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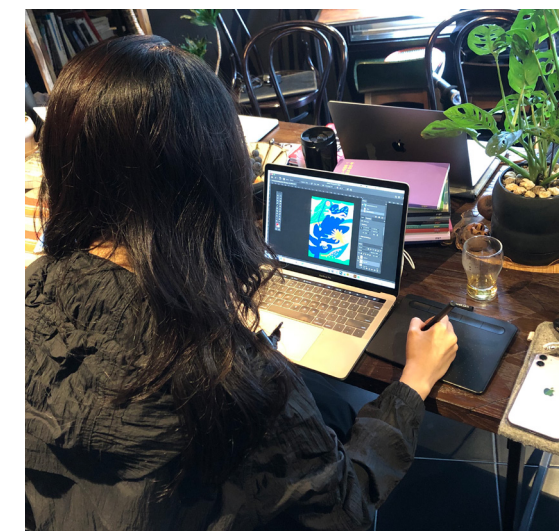


▲ 아이디어 기획회의를 시작하는 연구진들의 모습

‘다음을 위한 닳음.’ 다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닳음이 있어야 한다는 포스트코로나의 시대적 요소가 가미되어진 의미이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4인으로 구성된 다음을 위한 닳음 연구모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매개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교육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질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총 10회 차에 걸친 연구모임을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아웃풋을 생산해낼 예정이다. 총 10회 차의 걸친 만남 중 3번째의 만남에 초대된 나는 생각 이상으로 진지한 그들의 모습에 덩달아 긴장이 되었다.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서로배움' <다음을 위한 닳음>

그들은 ‘연구모임’이라는 본질에 맞게 정말로 진지한 연구자들의 모습이었다. 아직 모임의 초입새인 3회 차는 각자가 생각해온 테마에 여러 아이디어를 던져가며 이런저런 형태의 윤곽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과정이었다. 첫 번째로 운을 댄 양지 선생님은 시각적인 드로잉 요소를 필두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을 통하여 문화예술과 접목하고자 했다. 특히나 감정의 환기가 중요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Zine)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 드로잉 작업 중인 양지 연구진



▲ 미국에 있을 당시 양지 선생님의 진 작품1



▲ 미국에 있을 당시 양지 선생님의 진 작품2

진이란 잡지를 뜻하는 말로, 흔히들 잡지로 알고 있는 매거진(Magazine) 보다 작은 사이즈의 잡지를 말한다. 이어 그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반인들이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진 만들기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고민하며 함께하는 연구진들의 아낌없는 피드백을 수용하며

열띤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은 팀원들은 그에 관련하여 보고 느낀 아이템들을 서칭하여 양지선생님에게 피드백하며 방법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역량에 대하여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양지선생님이 만든 진을 나에게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가 미국에 있을 당시 만들었던 진은 생각 이상으로 예술적이고 감각적이었다.

그들의 연구는 이미 서로를 잘 아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장되었다.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서로의 빈틈은 채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분위기예요. 단계 중 3회 차에 접어든 지금은 이타심과 협동심의 단계인 것 같고요.”

양지선생님은 3회 차에 접어든 팀원들과의 합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타심을 발휘한 팀워크가 연구모임에 모인 이들이 가진 진면모인 것 같았다. 그러한 태도의 기저에는 문화예술 교육의 실천이라는 뚜렷한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라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두 번째로 아이디어를 낸 김정우 선생님은 가드닝(Gardening)을 접목한 달력 만들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개개인의 경험재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기르고 가꾸어야만 하는 가드닝을 접목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출해내고자 한 것이다. 정우선생님이 고려한 아이디어 또한 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는 머릿속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자연을 공부하며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뿐더러 자연스럽게 감정의 해소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가 직접 체득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코로나19였다. 가드닝이란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초행자들에게 다소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며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파생점들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팀원들은 정우선생님에게 아낌없는 피드백을 주며 그에게 있는 포텐셜을 끌어내고자 이야기를 유도해 나갔다. 그들은 아이디어의 기반이 ‘정우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를 향한 응원의 말도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 그들은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에 관하여 ‘제공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며 취재를 하는 나에게도 질문을 아끼지 않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모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그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는 마치 철학자 와도 같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김윤희 선생님은 개를 위한 전시를 예시로 들면서 인간 중심적이었던 전시 형태가 코로나시대로 인하여 위기를 맞으며, 인간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자신이 키우는 애견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전시라는 소개와 함께 말을 이어갔다.

개를 위한 전시이기에 일련의 과정이 인간에게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중심적이었던 세상으로부터 온 질병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역설이 담겨 있다는 말과 함께 인간의 시선과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시가 있는 시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또 다른(자연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고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일 수도 있다며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유 표현하였다. 그녀의 조곤조곤한 말투



▲ 아이디어 기획회의에 집중하는 연구진들의 모습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두 시간에 임박해 있었다. 공식적인 스케줄 시간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박하나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펼쳐졌다. 하나 선생님은 모임 장소의 사장님이기도 했다. 왜인지 그녀에게서는 사장님 같은 포스가 느껴졌는데, 취재가 끝난 후에는 맨션 위층에 있는 입주 작가(양지, 율하, 정우 선생님이 입주 작가로서 활동 중이다)님들의 작업 공간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 맨션의 위층은 입주 작가의 작업공간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특기인 요리와 철학을 접목하고자 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철학자들의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갈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식탁에 차려진 한 상이란 수저부터 음식까지

모두 자신의 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기호성을 알아갈 수 있는 음식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학문인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엮어 그로부터 파생된 자신의 기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고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하나 선생님은 윤곽을 잡아가는 아이디어 회의 과정 중 자신의 아이템이 문화예술과 접목 시키기에 합당한 지에 관한 의구심과 고민을 하며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자 했다. 이에 함께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언택트 시대에서 그녀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상황대처 매뉴얼 등이 첨부되어있는 책으로 만드는 것 또한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부가적인 살을 덧붙여주기도 했다.

이어 시간에 쫓기듯 마지막 주자인 김울하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해 피드백을 받고자 했다. 그녀가 구상해온 아이템은 바로 아동을 위한 동화책이었다. 동화의 소재 자체는 이미 대두되고 있지만, 더욱더 깨우쳐야 하는 각자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존중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연령대 또한 양분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아이들로 정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함께하는 이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이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메웠고, 또 동화를 만들고자 함에 있어 대상은 아동이나, 실제 구매자들은 성인인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나 또한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현 청년의 세대보



▲ 맨션의 사장님이자 연구진인 하나 선생님의 작업 공간

다도 깨어있는 사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마지막 울하 선생님의 아이디어 피드백까지 끝나치자 그들은 오늘도 모자란 시간이었다는 말과 함께 기획회의를 마무리 짓는 듯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연구모임의 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2시간이 흘러갔음에도 그들의 엉덩이는 무거워 보였다. 아직 한참은 모자라 보이는 듯한 2시간의 여운에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뜰스진지함이 곧 불편함으로 인식되는 젊은이들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대상으로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인 지에 관하여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내가 느낀 그들은 무척이나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사람들이었고, 견고하고 단단하지만 세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몽크의 <절규>라는 작품이 연작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는 총 4점의 연작 중 하나일 뿐이다. <절규>라는 하나의 그림을 누구나 다 알기까지 그의 그림에는 여러 디테일한 요소가 더해졌고, 그에 따라 몰입하고 또 몰입했을 것이며 다양한 기법의 시도로 고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낸 디테일과 그에 따른 몰입이라야 비로소 고통의 정수를 담아낸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몽크의 절규에 일렁이는 4개의 하늘이 있듯, 그들에게도 세심하고 진지하게 흘러가는 그들만의 일렁이는 여러 하늘이 있다. 이런 이들이 있기에 세상의 부드러운 결이 살아난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진지한 대화거리가 되고, 끊임없는 연구거리가 된다. 이들의 치열한 만남으로 아이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현대 사회 속 나를 잃어버린 누군가는 보다 더 나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예.

나 그리고 우리만의 색을 찾아가는 깨달음, 그 오색 빛

수많은 갈래 길 속의
조그마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통신원 김수빈

여느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한 열기가 느껴지는 저녁이다. 뜨거운 열기의 장소는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술집도,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도 아닌 방림동의 작은 협동조합문화센터였다. '프레임으로 노는 세상'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저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랴부랴 일을 마친 뒤 지옥 같은 퇴근길을 거쳐 센터에 도착한 나는 알 수 없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금방 사로잡히고 말았다.



▲ 초등부 아이들의 참여활동 모습

"선생님, 저 찍어주세요."
"저도 같이 찍어주세요 저도!"

오색빛협동조합 <프레임으로 노는 세상>

시끌벅적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들어간 곳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수업이라고 생각하기엔 거리가 조금 먼 듯한 아이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다. 꼭 잡지에서 본 것 같은 포즈를 연신 취해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질 줄 모르는 듯 해 보였고, 그런 아이들의 앞에서 꽤나 진지하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학생이 보였다.



▲ 강사진에게 사진촬영을 배우고 있는 참여 학생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세로로 찍는 게 좋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많을 때는 가로로 찍는 게 좋아."

사진기를 붙잡고 있는 옛된 학생에게 진중하게 조언을 하는 강사였다.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고 있구나 생각하던 찰나, 오색 빛 협동조합의 기획 담당인 김희경 선생님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학생은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사진촬영 강사께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옛된 여학생의 표정이 조금은 상기된 듯 진지해 보였고, 나는 그러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이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져 김희경 선생님에게 그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섯 가지 색의 빛'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저희 협동조합 이름의 본래 뜻은 깨달음(悟) 그리고 찾을 색(索)자를 사용해서 '나의 깨달음을 찾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시기에서 아이들이 본인들에게 빛나는 무언가를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본래는 전통 공예를 다루는 특성을 가진 단체였어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다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고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자신들의 참 모습을 찾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자 초점을 바꿨죠. 그게 바로 요즘 핫한 미디어였고,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소재였어요."

두 개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그들의 교육 콘텐츠는 1인 미디어의 제작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측의 직접적인 수요조사로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1인 스트리머의 시대가 대세를 넘어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겠구나.'라고 확신이 든 순간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두 개의 공간에서 분리되어 진행되는 교육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인 미디어의 소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이 친구들의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두 개의 반으로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원을 절반정도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올리자는 의도도 있었죠. 그렇게 나누어보니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반과 중고등부의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초등부 아이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조금 더 즐겁게 자신을 표현하고 정말 노는 듯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강사님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직접 미디어를 다루는 내용의 수업을 듣고 있죠.”



▲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 초등부의 학생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린 그림

김희경 선생님의 말처럼 초등부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뽐내며 자신을 표현하는 듯 했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강사님의 목소리와 손짓을 소중하게 경청하며 자신들의 결과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두 공간의 모습은 사뭇 달랐지만 그들 나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은 김희경 선생님은 수업의 진행방식에 있어 강사 선생님들의 전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 내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자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광주Re'의 교육목표를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 교육목표에 걸맞게 중고등부의 1인 미디어 수업은 우리 동네에 관련한 미디어 제작 수업에 한창이었다. 미디어의 제작과 광주 문화자원 활용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수업의 내용인 것이다.



▲ 1인 미디어 만들기를 주제로 한 중고등부의 강의실 모습

아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각자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소재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멋질 것 같아.' 아이들의 수업을 취재하며 가까이서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동안 나는 꽤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진지했고, 프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친구를 따라 별 생각 없이 와서도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아이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 미디어라는 하나의 소재로 파생되는 또 다른 세상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죠.”

프로그램의 기획파트 김희경 선생님이 말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였다. 다행이도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진중함과 적극적인 배움 속에서 그들의 의도가 잘 느껴지는 듯 했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은 직접 관심분야를 느껴보고 소통하고 또 다듬는 과정을 통해 그들 나름의 경각심과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직종인 1인 미디어(스트리머)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미디어를 보는 관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내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무분별한 콘텐츠의 창작이 아닌 본인의 생각과 뜻이 담긴 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심어주고자 했죠.”

대(大)인 미디어의 시대는 이미 진행된 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이가 제작한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있어 꽤 많이 너그러운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아마 무뎠던 것은 아닐까. 자극적인 것은 꼭 재미로 같다. 원래도 맛있는 신선한 재료를 더 맛있게 부풀리려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은 맵거나 아주 단 맛에 계속해서 손이 가지만 다 먹고 나면 속이 느글느글해지기 마련이다. 사실 나도 이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린 10대의 시절, 나는 재미로 자극적인 맛을 훨씬 더 좋아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재료를 천천히 음미하고 그 신선한 과정을 생각하며 먹다보니 보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세상에서 우리는 보다 더 큰 경각심과 주의력을 가져야한다. 자극적인 것에 휘둘리고 중독되지 않도록 말이다. 이를 보는 바른 눈을 갖기 위해서는 자아가 생성되는 청소년기에 안목이 바로 잡혀있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가 깨우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답습하도록 먼저 선행하여야 하고, 또한 그들이 직접 겪어볼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수동적인 태도로 진행되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직접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예측하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주체성을 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는 차원의 프로그램들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시선에서 만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을 바

탕으로 만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오색빛협동조합의 ‘프레임으로 노는 세상’은 광주 지역 내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광주Re’의 사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크게 반영된 1인 미디어를 소재로 작가는 그들에게 창의성과 선도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를 이끌 1인 미디어 주역들의 건강한 안목을 꿈꾸는 거시적 측면을 보고 있다.

잡초가 무성한 길도 가벼운 발걸음을 시작으로 반듯한 길이 생기듯, 작은 한 명의 올바른 시선과 창의성이 모여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 청소년들을 위한 틀에 박힌 교육의 장이 아닌 창의적인 배움의 장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오색 빛 협동조합의 다양한 시도를 그리고 그 곳에 모인 청소년들의 오색찬란한 빛을 기대해본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청춘을 노래한다. 우리의 청춘을 담은 이야기

통신원 김재철

청춘(靑春)은 새싹이 돋는 푸른 봄철 그리고 인생의 풋풋한 20대를 뜻한다고 한다. 계절은 돌고 돌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돌아온다. 우리는 매번 그 봄을 기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계절의 봄이 다시 돌아오듯이 인생의 청춘(靑春)도 다시 돌아온다. 지금 그 청춘의 현장에 있다.



▲ 나에게 보내는 편지 - 내가 만든 청춘을 담은 노래

광산문화원에서 열고 있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 - 내가 만든 청춘을 담은 노래>는 총 12회 차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70~80년대 그 시절 푸르렀던 청춘을 기억하며 그 시절의 나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바쁘게 살아가며 꿈을 잊고 있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광산문화원 <나에게 보내는 편지>



▲ 오리엔테이션 "우리 친해져요"



▲ 나의 인생그래프 그려보기,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지난 2~3회 차 시간에는 70~80년대를 대표했던 추억의 노래를 부르며 그 시절의 나를 추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그려보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나'에 대한 마인드맵 그려보기와 나의 인생그래프 그려보기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각자의 인생을 알아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4~5회 차 시간에는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 대한 바람을 담은 편지를 적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차시의 수업은 작곡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담은 가사를 더해 하나의 곡으로 완성하고 직접 녹음을 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만의 음원을 완성한다. 이번에 참여한 수업은 7회 차 수업으로 최종 녹음에 앞서 완성된 곡을 불러보고 각자가 맡은 부분을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 광산문화원 홍현아 문화예술교육사

2020 문화예술사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맡고 있는 홍현아 문화예술교육사를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참여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작사, 작곡을 통해서 직접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가요?

A. 우선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 했어요. 광산문화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50~60대 중년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장 혹은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오며 일상을 살아오신 분들이셔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즐길 방법이 직접 가사를 써서 본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노래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단순히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닌 50~60대 중년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인생을 담은 노래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가사는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노래가 완성되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신가요?

A.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노래는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참여자분들이 직접 녹음 하여 음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전문적인 녹음을 해본 경험이

없고 직접 하고 싶다는 의지가 높아서 스튜디오 녹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담아온 영상과 함께 편집하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시면서 현재소감은 어떠신가요?

A. 이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준비부터 진행까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진행 과정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많은 워크숍을 갖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지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문화예술교육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의 인생에서 문화예술을 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닌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은 삶 속에서 철학과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광명 참여강사를 만나 진행 중인 수업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Q. 이번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계신 수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참여자분들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살아온 이야기와 잊고 있었던 옛날의 꿈을 찾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사도 써보고 작곡도 배워보며 완성된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녹음을 통해서 앨범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Q. 수업을 진행하시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시지 않은 분들께 작곡을 가르치는 수업은 개인적으로 처음 하는 수업이어서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쳐주는 것만을 하는 수업을 예상했는데 참여하시는 열정과 의욕이 넘치셔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A.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과거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분들이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과거의 잊고 있었던 자신을 찾고 앞으로의 자신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과거의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끝으로 프로그램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참여자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곡을 잘하고 작사를 잘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노래의 취지가 '옛날에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지금도 할 수 있고 펼쳐보자'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과물이 영상과 함께 편집되어 완성되면 찾아보시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자분들과 참여소감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박원희 회원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 볼 수 있고 미래의 나를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살다가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보람되고 멋있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은 욕심부리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숙 회원 :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경험은 쉽게 접할 수 없는 활동이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7080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의 희망찬 내용을 노래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희망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성희 회원 : 7080이라는 문구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직접 우리의 이야기를 작사해서 곡이 만들어지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속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히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현대 광주 사람들, 근대의 광주를 만나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 광주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광주는 어땠을까? 지금의 광주가 있기 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광주학 콜로키움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인문학, 건축학 그리고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다루며 광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



▲ 오늘의 발표주제

통신원 김재철

2020 광주학 콜로키움 <근대 광주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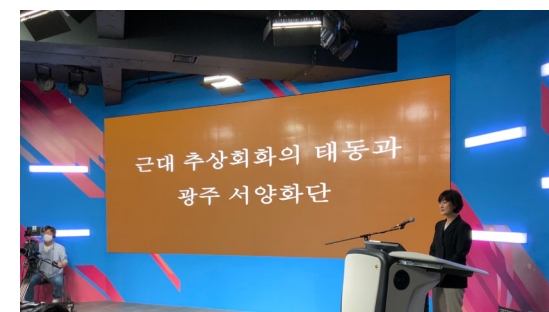


▲ 올해의 광주학 콜로키움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

이번 광주학 콜로키움은 “근대 광주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총 5회의 강연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광주 사람들이 근대의 광주 사람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음악산업 진흥센터 별관에서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이라는 발표 주제로 광주학 콜로키움을 열었다. 기존에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광주에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온라인 생중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



▲ 좌장을 맡은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 발표를 맡은 김허경 전남대 기초교육원 교수

이날 콜로키움은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그리고 김허경 전남대 기초교육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는 일제강점기 서양화를 수용한 광주·전남 서양화가들의 활동과 해방 이후 추상회화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았다.

광주·전남 제1세대 서양화가로 불리는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김홍식, 오지호, 김두제, 박근호 등의 활동과 작품에 나타난 구상회화의 특징 그리고 일본유학을 통해 근대미술교육을 접한 비구상회화의 선구자 김환기와 광주 첫 서양화 개인전을 가진 배동신, 해방 직후 추상회화를 시도한 강용운, 양수아의 활동과 이들의 전시기록, 작품 내용을 통해 광주 서양화의 도입 및 화단 형성,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근대 광주 서양화가들의 위상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스튜디오 생중계 진행 모습

이번 광주학 콜로키움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 위정선 대리를 만나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프로그램 소감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기획하고 진행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인가요?

A : 광주학 콜로키움은 담당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광주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많은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처음 실현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부모임으로 기획되었고 지금의 광주의 근원과 뿌리를 찾기 위해 역사적인 고증과 다양한 사료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근대 도시’로서 광주의 흔적들을 찾아보고자 <근대 광주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광주에 대한 애정이 깊은 시민들의 관심을 올해도 저희가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Q :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시면서 소감과 변경된 진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악수하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기획자나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광주학 콜로키움도 그런 고민 탓에 좀 연기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어느덧 괴롭지만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지속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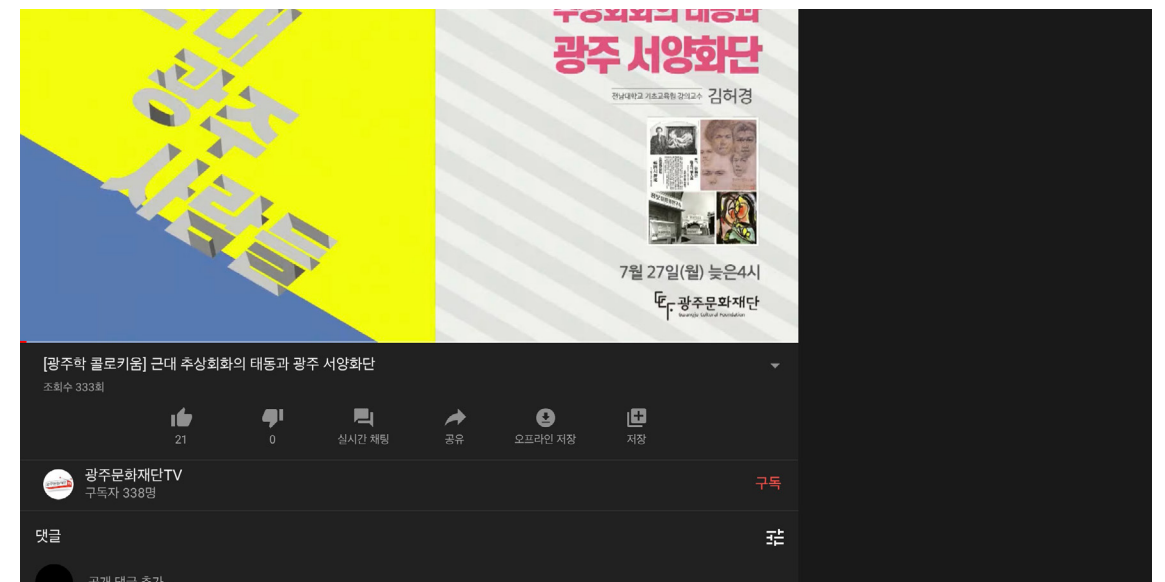
함께 호흡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최대 장점인 파급력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분께 이 공부모임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또한 그동안 오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

도 많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 그런 분들께 죄송스러웠던 마음을 좀 덜 수 있었어요.

Q : 오늘로 5회 중 2회 발표를 마치셨는데 앞으로의 진행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시도하여 서툰 점도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해가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어 소규모라도 시민들을 모실 수 있게 되면 예전처럼 세미나 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을 온라인으로 송출하여 ‘친밀감’과 ‘파급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에서 발표해주시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물은 더 다듬어지면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 광주문화재단TV(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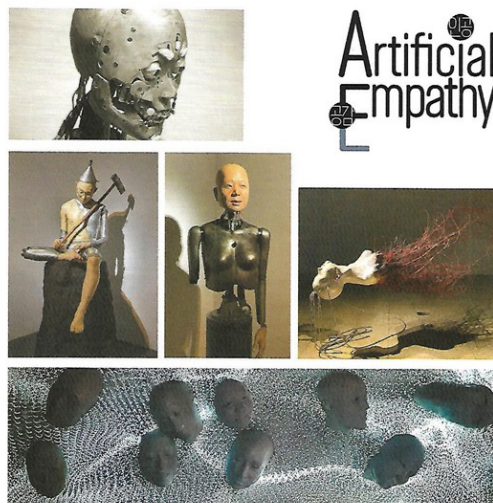
광주학 콜로키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접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발표인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은 광주문화재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gjcforkr>)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인간과 기계는 다를까? 우리와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인간과 기계는 다를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발전하여 우리들의 일상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사람의 빈자리보다 기계의 빈자리가 더욱 허전하게 느껴진다. 인공지능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신기해한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성장을 비슷하게 바라보고 이미 익숙해져있다. '인공 공감(Artifice Empathy)' 전시를 통해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MEDIA 338

2020 미디어 338 기획전 - '인공 공감(Artifice Empathy)' 노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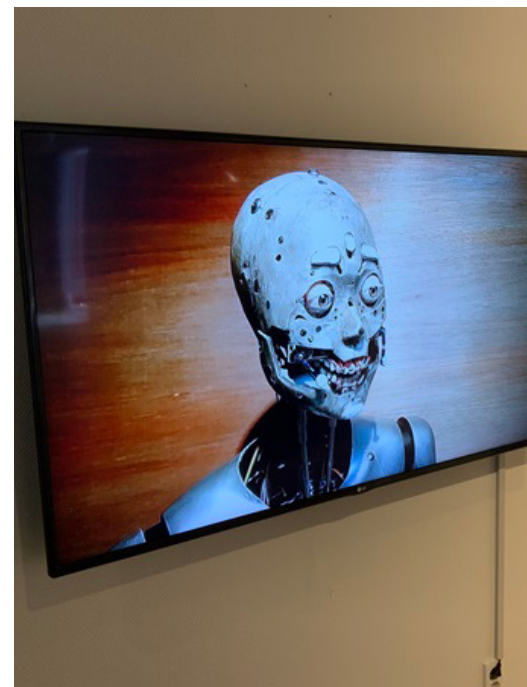
▲ 2020 미디어338 기획전 - '인공 공감(Artifice Empathy)' 노진아

통신원 김재철

2020 미디어338 기획전 - '인공 공감(Artifice Empathy)' 노진아

어느 순간부터 기계들은 점점 인간화되고 인간들은 편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발전시키며 기계처럼 되어가고 있다. 작품들은 항상 인간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행동을 따라하고 눈을 맞추어 대화한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기계들이 점차 인간다워져서 어느 순간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들의 존재와 감정은 인간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작가 인터뷰 중)



▲ <나의 기계 엄마(Mater Ex Machina)> 실리콘 피부내면에 기계구조 노출



▲ <나의 기계 엄마(Mater Ex Ma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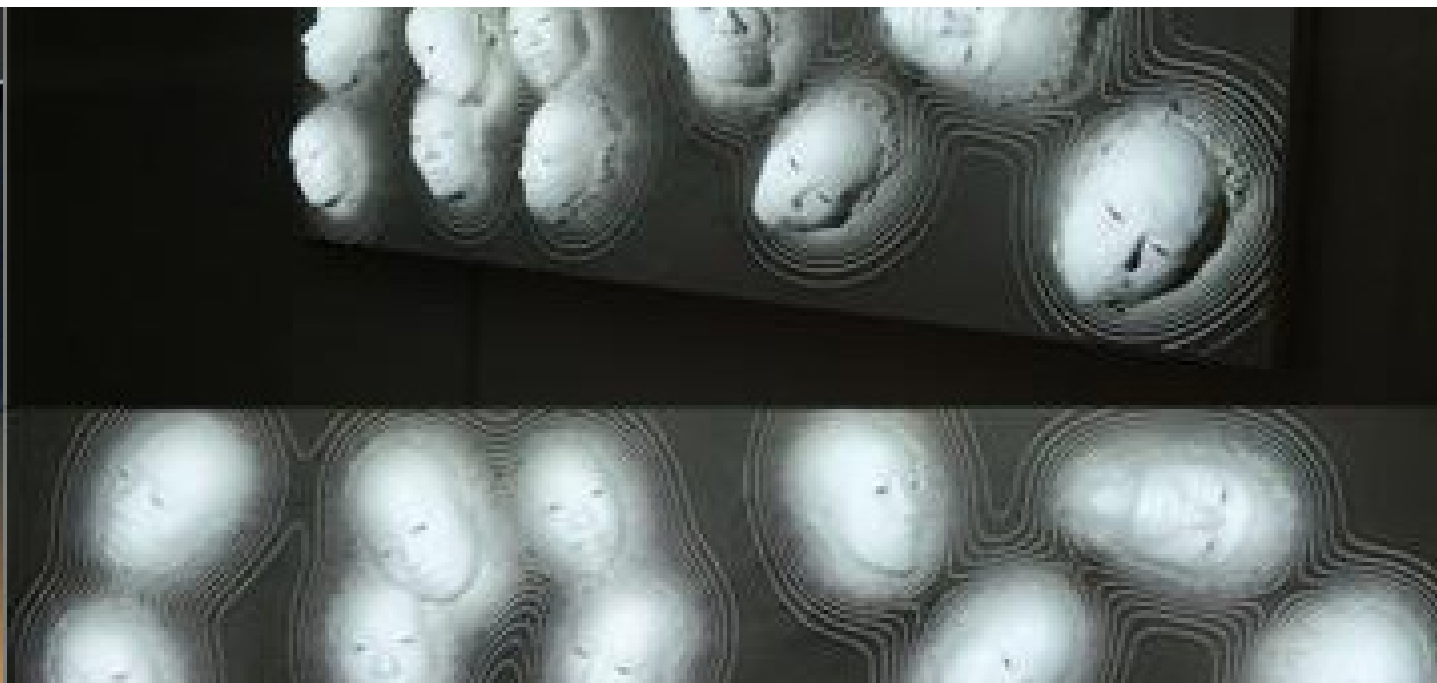
<나의 기계 엄마>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를 실제로 모델링하여 만든 작품으로 딥러닝 방식을 통해 인간의 동작과 표정을 읽고 이를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시도한다. 관객의 표정에 따라서 미간을 찌푸리거나 웃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단순한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관객의 표정을 배워나가고 감정을 익히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간의 소리가 겹칠 것을 고려하여 행동만을 따라하게 설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를 하는 모드도 설정이 가능하다.



▲ <나의 양철 남편(My Hus Tinman)>



▲ <진화하는 신 가이아(An Evolving GAIA)와 노진아 작가



▲ <스틱스-불멸의 협주곡(Styx-A Concerto of Immortality)>

<나의 양철 남편> 이 작품은 『오즈의 양철 나무꾼』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작품으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알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신체를 양철로 바뀌가면서 도끼질을 계속하며 결국엔 몸 전체와 머리도 양철로 바뀌어 마음까지 잃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편리에 의해서 기계화 시켜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양철 나무꾼이 상징하는 미국동부의 공장노동자모습으로 사회의 부속품처럼 일만하다가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통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진화하는 신 가이아> 이 작품은 인간을 닮은 거대한 로봇 가이아의 몸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나서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관객이 다가가서 귀에 말을 걸면 눈을 굴려 관객을 쳐다보며 턱을 움직여 대답을 한다. 가이아라는 이름은 대지의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임스 러브록(James Ephraim Lovelock)의 가이아 이론에서 차용하였다.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하는 것처럼 로봇에 대해 인식의 틀을 바꾸어 생각하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름이 지어진 작품이다.

<스틱스-불멸의 협주곡> 이 작품은 작가의 지인들의 얼굴을 캐스팅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관객이 다가오면 눈알을 굴리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자연의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틱스 강에 담가져 영생을 얻은 아킬레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이 곳에 있는 얼굴들은 로봇을 상징하고 있다. 인간이 기계화 되어가면서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들이 인간으로써 살아가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작품을 둘러보고 작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노진아작가를 직접 만나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전시소감에 대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Q: 작품의 내용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예전부터 기계와 인간의 관계 혹은 사람이 아닌 것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관계 등 관계에 대한 작품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작업을 해오다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관계를 이어주는 방법을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관객이 타이핑을 해서 말을 거는 구조로 '제페토의 꿈', '타이핑하세요. 나는 말을 할 테니'라는 작품을 하며 타이핑을 통한 대화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 평소에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작업을 할 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인공지능기술과 로봇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진화하는 신 가이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대화하는 작품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대부분의 작품들이 작가님 주변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로봇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데 주변인들의 얼굴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 작품들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은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고 인간의 생김새까지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현실적인 결과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언캐니(Uncanny : 데자부, 도플갱어와 같이 기이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함을 주게 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할 정도로 리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 가족이나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약간 반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작업을 통해 저의 어머니와 남편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도 개인적인 의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보실 때도 본인의 부모님과 남편,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몰입을 하시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몰입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언캐니(Uncanny)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석시켜서 본인의 감정 등을 대입시키는 그 과정이 제 작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이번 기획전의 소감과 관객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38'에서 불러주셔서 제 오랜 작품들이 꽤 모이는 전시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지인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관람을 하시면서 본인의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들이 어떻게 섞여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인공 공감(Artifice Empathy)' 노진아 展은 오는 23일(금)까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338'에서 오프라인전시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 온라인전시(<http://www.gjmp.kr>)를 통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이들과 직접 소통해보는 것이 작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 제다와 다도

통신원 마민주

필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가끔씩 차를 만든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거라니. 뜬금없고 번거로운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 차를 만드는 건 쉽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생나물이나 잎을 찬물로 씻어 꼭지를 따고 가지런히 채를 썬다. 모두 프라이팬에 볶은 다음 꺼내 천이나 거즈 위에 올려둔다. 조금 식힌 다음, 모두 뭉쳐 꼭꼭 골고루 눌러 주면 천에 초록색 물기가 배어든다. 그걸 다시 프라이팬에 볶고 또 펼쳐서 식힌다. 한 번 더 볶고 또 펼쳐서 식힌다. 잎에 물기가 사라져 빠삭 마를 때 까지, 연두색 잎들이 진하다 못해 거뭇해질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한다.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찻잎은 오래 두지 못하고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다 볶은 찻잎은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말린다. 완성된 찻잎을 무늬 없는 공병에 담고 잠그면 드디어 완성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땐, 천에 싸인 찻잎을 무식하리만큼 온힘을 다해 퍽퍽 누른다.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아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땐, 프라이팬 위에서 달궈지는 잎들이 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팔을 젓는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쳤을 땐, 마당 바닥에 앉아 수분을 뺏겨가며 식어가는 잎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하루를 갈무리하며 목욕하고 나와 오늘 만든 차를 내려 호로록 마시면 분명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맑다. 향은 코 아래에서 은은하게 머물고, 당연한 듯 내 어깨 위에 올라 타 있던 긴장은 온데간데없다.



▲ 보조강사님의 차 우리는 과정

지난 6월 15일, 학운동 무꽃동 사랑채에서는 <예향 광주, 차(茶)차(茶)차(茶)>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의재 허백령 선생님의 영상을 보며 차와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고, 그날 주제에 맞게 선정된 영화를 관람한 다음, 영화의 주인공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응원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의재 허백령은 차를 마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정신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생님의 판단을 두고 수강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재해석하였다. 그들은 차를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를 보냈다. 한 모금의 차는 향기로운

문화공장담쟁이 <예향 광주, 차(茶)차(茶)차(茶)>



▲ 차에 대한 이론 수업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색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차와 영화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광주 예향의 정신을 다시 바라보고, 맑고 향기로운 춘설차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차 수업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이론수업이 아니었다. PPT에 나온 찻잎은 전부 실물로 등장했고, 수강생들은 모두 찻잎을 만져서 촉감을 느끼고 향을 맡아 후각을 자극하였으며 가끔 잎을 씹어 씹쌀한 맛을 혀끝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 차 유념단계

서 희수 예술강사님은 오늘 수업을 위해 직접 죽로차밭에 올라가 녹차 잎을 따왔다. 풀비린내가 나지 않고 가장 작고 여린 잎들로만 따야 한다. 비온 다음 날이라 잎을 따는데 고생했다는 그녀는 찻잎을 따는 과정조차 자신에게는 즐겁고 위로가 되는 과정이라 말했다. 우리는 강사님이 직접 따온 작고 여린 잎들을 직접 제다해보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차를 만드는 과정은 1차 덤음 단계가 있다. 차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찻잎의 푸른 기운을 꺾을 수 있다. 이때, 잎들이 타지 않고 골고루 볶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열심히 볶은 잎을 훌쩍려 식힌다. 아직까진 찻잎의 연두색을 간직하고 있다. 그 다음은 2차 유념 단계가 있다. 찻잎을 굴려 말림으로써 찻잎의 세포막을 깨워서 차가 잘 우려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와 2차를 어떻게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차가 나올 수 있다.



▲ 수업전체모습

차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 선생님은 계속 차를 내리셨다. 덕분에 수강생과 선생님은 수업 내내 달콤하거나 씹쌀한 차를 다양하게 맛 볼 수 있었다. 특히, 찻잎을 그냥 씹어 먹어본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유념단계가 끝날 때 마다 수강생은 찻잎을 입에 넣고 오물거려본다. 어차피 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신기하게도 덤음과 유념단계를 거칠 때 마다 식감과 쓴맛이 다 달랐다.

4시간가량 진행된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화장실에 다녀왔다 오니 그제야 강의실에 차향이 가득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맑고 향기로운 차향이 온몸을 감싸고 수강생들의 긴장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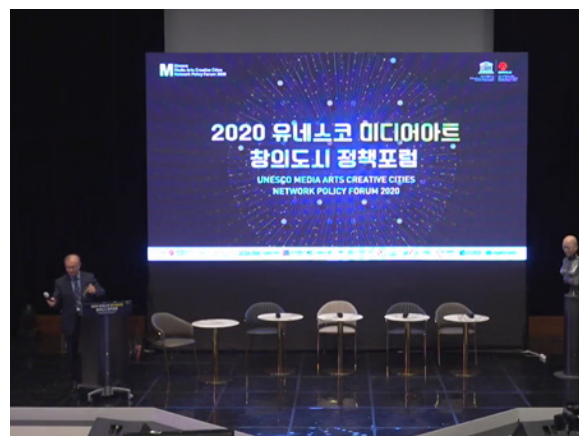
▲ 찻잎 훌쩍리기

무등산에 다원(茶園)과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전통적인 남종화를 그려온 의재 허백련이라는 근현대사 인물을 통해 우리는 전통차의 재배와 보급에 힘쓴 그의 치열한 삶을 배울 수 있었고, 광주에 대한 애정정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그가 남긴 미술작품을 살펴보면 그 당시 생활 속의 운치와 풍류의 순간을 발견해 작품에 그린 순간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다.

시원한 계곡물이 연상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바위에 코를 박으면 나는 향이 느껴지는 차도 있다. 텅텅함이 혀끝을 감싸는 게 싫지 않은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정갈하고 단아한 맛이 우아하게 느껴지는 차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차를 음미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운치와 풍류를 끌어내 느껴볼 경험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차를 느끼며 일상에서 쉽게 쓰이지 않던 우리의 근육을 써보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본다.



더 이상 디자이너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과 예술



▲ 2부 시작 전

예술과 4차산업의 접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2020년 10월 7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미디어아트와 AI'와 2부 '광주 미디어아트의 현재와 미래' 두 세션으로 나뉜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사례와 이에 관한 광주의 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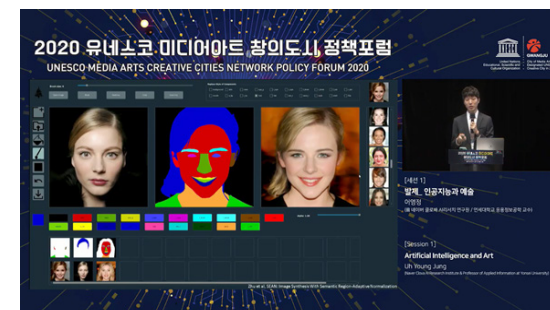
여기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유네스코가 문학·음악·디자인·음악 등 7개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계의 도시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 도시를 뜻합니다.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

통신원 마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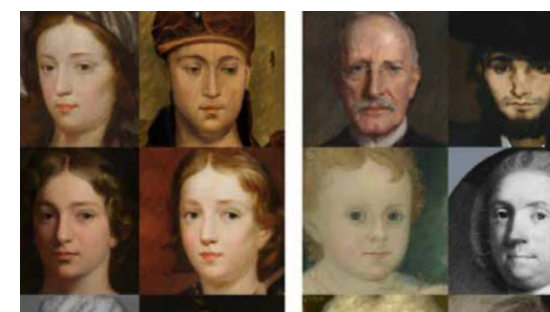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려하기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략적 요소로 삼는 도시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가 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모습을 갖추도록 만들고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과 AI의 접목을 통해 더욱 풍성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부 발제 '인공지능과 예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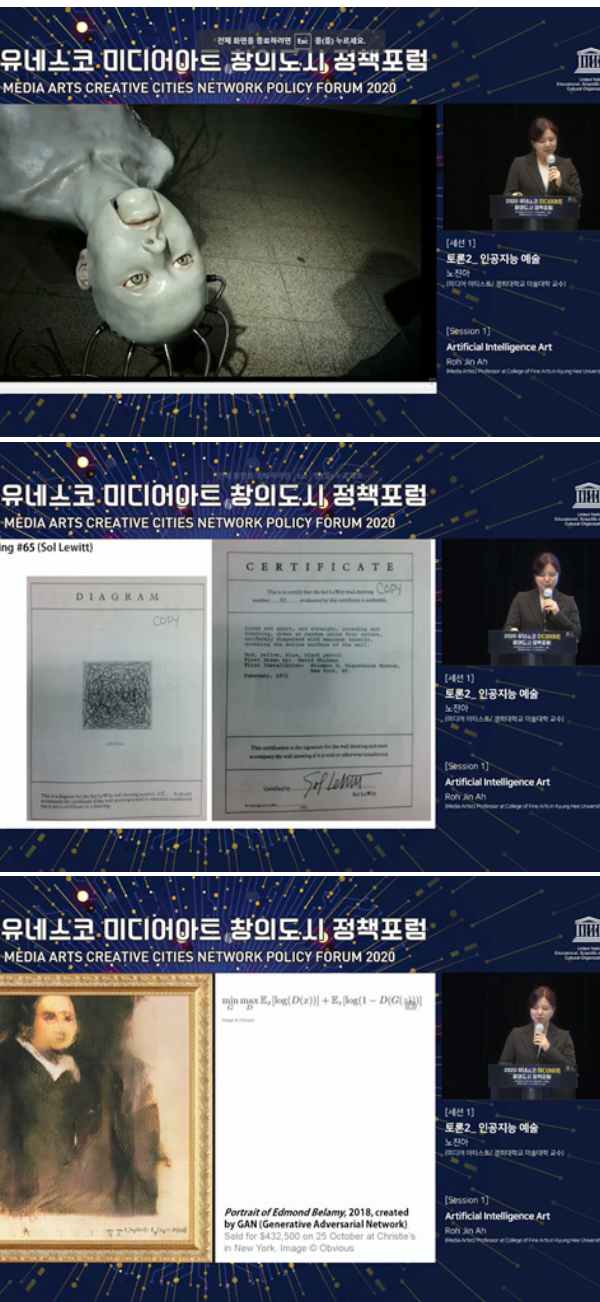


▲ 1부 발제 '인공지능과 예술'2

<202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에서 '인공지능과 예술'을 주제로 한 발제에 참여한 어영정 교수는 인공지능이 예술가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예술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자이너는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금을 울리는 말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작자의 지능과 시간을 절약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작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인식, 자율주행과 같은 분별모델은 이미지를 통해 신원이나 사물 등 개념으로 표현하는 숫자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생성모델은 개념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많은 학습을 통해 쌓인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까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사진을 보드시피 어느 쪽이 그린 이미지고 어느 쪽이 학습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으로 확정되고 있는 이때, 발표자는 저작권에 관해서 묻습니다. 어떤 개발자가 여러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쌓은 학습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림을 창작했다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이에 대해 다른 예술가가 대답합니다.



토론을 맡은 노진아 교수는 무언가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을 예술로 의도하여 만들어낸 예술의 의지와 생각이라 주장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예술은 자의식이 없어 예술작품이라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그래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은 창작자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은 인간이며, 인공지능의 적용 및 권한 범위를 선정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어영정 교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을 의도를 가지고 활용한 프로그래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옆의 사진은 발표자의 '제페토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동화 피노키오를 차용해 만든 작품으로, 피노키오는 자신을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인간의 감정을 배웠고 결국 요정의 마법으로 인간이 됩니다. 나무 인형이었다가 사람이 된 피노키오와 함께 살아가야 할 제페토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인 기계들과 함께 공생해야 할 미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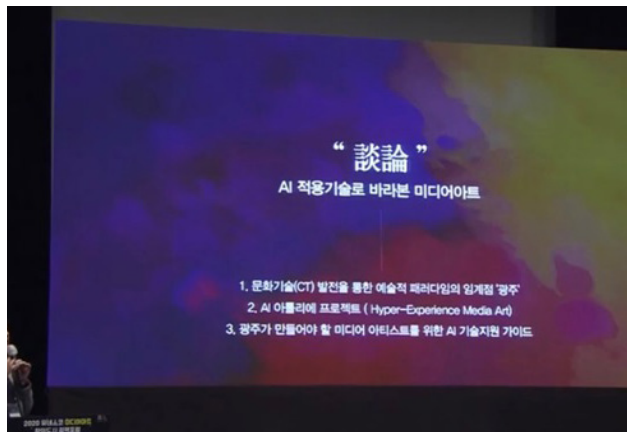
최근 우리는 컴퓨터 과학, 인지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기계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계들은 멀티모달(Multimodal)의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더욱 '인간다움'을 갖춘 채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점점 기계다워지고, 기계는 점점 '인간다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관계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할 때쯤, 다음 토론으로 한정업 교수의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 아틀리에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의 실천적 문제 해결과 동시대 창작자와 인공지능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진



▲ 제페토의 꿈, 인터랙티브 가변설치, 혼합재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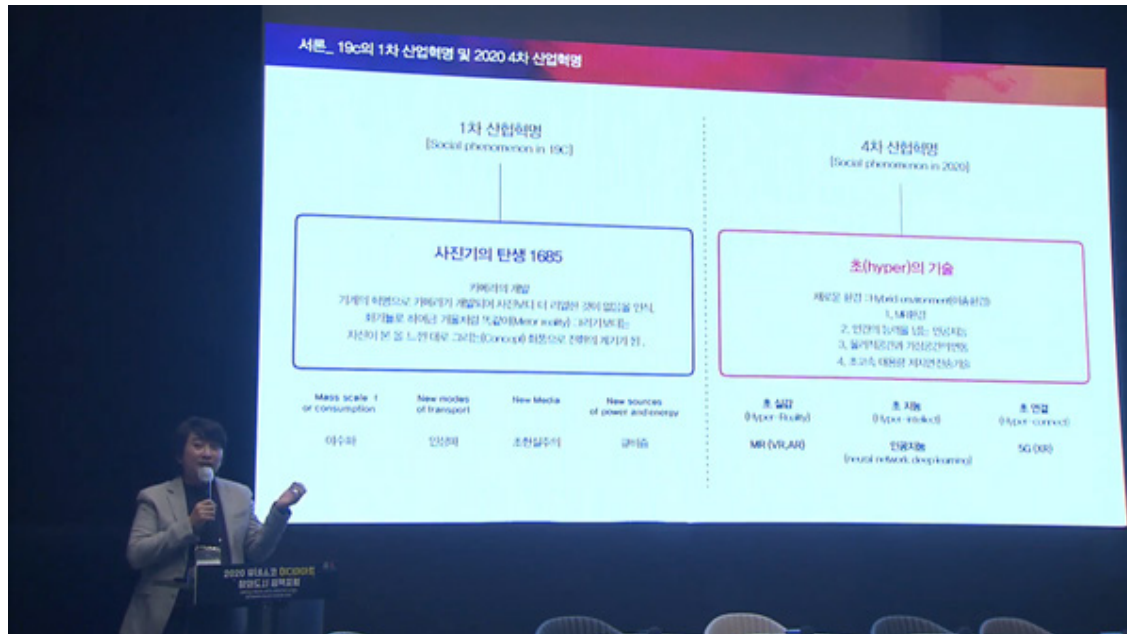
▲ 2부 발제 '시 적용기술에서 바라본 미디어아트'

행하는 27억 원 상당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창작자의 훌륭한 조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엔진 개발을 통해 확보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창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창작물을 분류하고 저장하여 앞으로의 작품설계에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512px의 저작권 없는 명화를 가지고 진행한 것에 비해 '시 아틀리에 프로젝트'는 30,000px의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고화질의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은 자세하고 수준 높은 학습이 가능해지고, 그 수준은 예술가의 25년 정도의 숙련도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작자의 똑똑한 수행자 역할로서 앞으로의 미디어아트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많으며, 새로운 미디어아트 실험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반 미디어아트 작품활동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와 첨단기술로 확장하는 미디어아트'를 발표한 신춘성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실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추론된 결과를 확대하고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공유하기 위해서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디어아트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전시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민한 교수는 미디어아트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과학자들은 그 작품의 구현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인문학자는 그 작업의 예술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 결과물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 이뤄질 협의가 이 거



▲ 2부 발제 '시 적용기술에서 바라본 미디어아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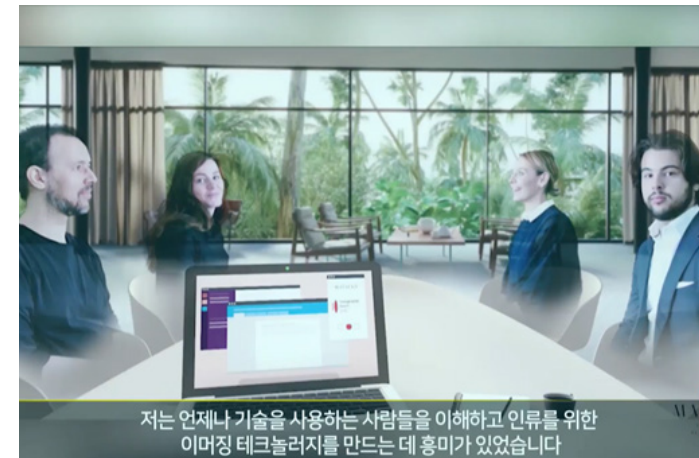
버전스의 핵심 목표라고 말합니다.

2부의 세션에서는 광주와 미디어아트를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예술관광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동시대성을 핵심가치로 기획·제작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광주가 역동적인 문화도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박성화 미디어 아티스트는 광주 미디어아트 생태계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아트 분야로 진입을 시도하는 학생과 작가에게 충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부분에서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박진현 기자는 현재의 한정된 행사장을 늘려 광천동 버스터미널이나 송정역 등 공공장소와 파사드나 디지털사 이니지를 이용한 작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2020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책포럼>을 통해 문화예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며 창작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 사회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도 제작,



▲2부 시작

유통 및 소비에 있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아트를 창제작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아트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체사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코로나19 예술포럼 전체 사진

전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꿔놓은 코로나19. 비접촉 방식의 생활, 즉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창작, 제작, 유통, 향유 및 접근 방식 등 문화예술계 전반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만큼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7개 문화예술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다양한 예술현장의 고민과 문

통신원 **마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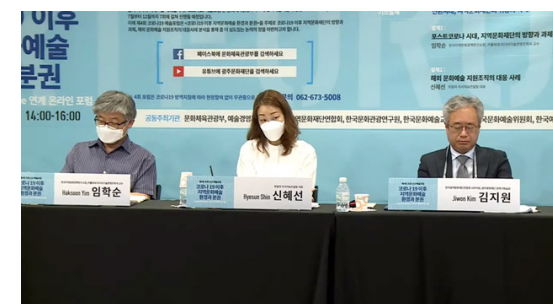
제 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제의식을 공론화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된 제 4회 코로나19 예술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 해외 문화예술지원조직의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첫 번째 기조발제 주제



▲ 첫 번째 기조발제 현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포럼의 첫 시작을 알린 기조 발제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을 다루는 주제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환경을 평가하고 2021년 직후 변화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발제 중 두드러진 이슈는 예술인의 생계 불안정에 대한 안전망과 문화시장에서의 온라인 문화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문화재단의 긴급지원정책과 위기대응체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임학순(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씨는 긴급지원정책이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위기대응체계는 더욱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문제, 재정 확보의 문제, 정책 역량의 미흡성, 통합적 리더십 부족,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문화재단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소통과 공유를 넘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 행정의 전환이 이뤄지고 지원체계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위기대응체계에 대해서는 단기긴급대응의 차원을 넘어 3~5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체계,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화 즉 ‘분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로 인한 미래 위기진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한 지역예술인데이터나 지역문화생태계 데이터 등의 체계를



▲ 두 번째 기조발제 주제와 현장

이후, 두 번째 기조 발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 문화예술지원조직의 대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박물관 95,000곳 중 95%가 휴관하였으며 13%는 영구폐관이 예상됩니다. 영화산업 손실 규모는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8,900억 원)를 도달하였으며 전 세계 공연 로열티 수익은 30%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네스코는 “코비드19 팬데믹은 창의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가와 문화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크나큰 악화를 초래하였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다면 극도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창의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규모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의 창작과 분배, 유통 활동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예술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를 위해 문화예술계를 떠나는 인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유리한 전공이나 학습 과정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예술계의 적자생존 현상이 우려됩니다. 또, 관객은 문화예술공간에서의 불안감을 지닐 것이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예술생태계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개인 예술가 중심으로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역 문화와 지역민 정서에 기반한 예술적, 창의적 표현과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환경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긴급 방안으로 시행 중인 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현행안에 대한 수정과 개선을 기민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술포럼 현장사진

우리는 보건 응급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문화와 예술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경제적 침체를 맞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통합, 연대, 화해와 같은 예술과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의 분권’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것일까요? 예술이 갖는 본연적인 가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일상성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곳은 우리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문화와 지역민 정서에 기반한 예술적, 창의적 표현과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환경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재단은 분권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여 유연하고 혁신적인 지역문화생태계를 꾸려야 할 것입니다.

랜선TV 마이 키득 하우스

통신원 송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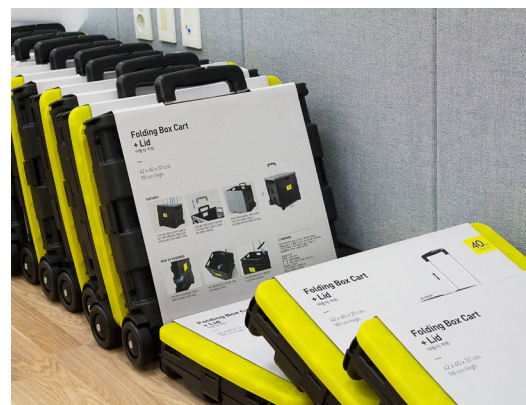


▲ 아이들과 소통하는 임남진 작가, 문화영 총괄기획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전 10시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다소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 어른들은 스크린에 비치는 귀여운 얼굴의 아이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가득해진다. 정글 속 요새처럼 보이는 집들 사이에 빼꼼히 보이는 그들은 노트북 스크린을 뚫어지게 주시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 출석 체크를 하고 있었다.

마치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유튜버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상한 그들은... (두구두구두구) 바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는 ‘키득 키트(kid-kit)’ 작가 및 운영 선생님들이대 (뚜둥) 그 가운데 온라인 시스템 담당 선생님은 흑여 한 명이라도 원활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냉철한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랜선으로 송출하는 TV 방송국의 라이브 방송처럼, 이를 준비하는 기획 및 운영 선생님들은 차질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 아이들에게 전달된 키득키트 중 카트

이처럼 그들이 따스한 눈빛이 느껴지는 동그란 얼굴이 아닌 차갑고도 네모난 스크린으로 아이들을 마주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19(COVID19)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되자, 매년 진행해 온 ‘어린이목수축제’를 대신해서 그 대안으로 ‘키득 키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키득 키트’는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비대면 예술놀이 프로젝트로, 온라인 랜선으로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감해 보고, 우리 집 안에 ‘나만의 아지트’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키득키트 선생님들은 총 3회 만남을 통해 키득키트 꾸러미를 준비하고, 빚고올아트스페이스에서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를 통해 저학년 및 고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였다.

2020 비대면 예술놀이 프로젝트, 키득키트(kid-kit)



▲ 드라이브 스루로 키득키트를 받아가는 참여가족일행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날!

빚고올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는 어느새 구역별로 작가 선생님들이 손수 만든 집이 마련되어 마치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조성되어 있었다. 집을 꾸미는 데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도구들이 테이블 위에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한층 높은 톤의 목소리로 열정적인 에너지를 온 힘을 다해 스크린 화면에 쏟아내고 있었다.

취재 당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저학년의 귀여운 친구들이었다. 이날 저학년을 담당한 임남진 작가 & 문화영 총괄기획자와 정승원 작가 & 위명화 운영관리 담당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 집 구조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집 꾸미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랜선으로 만나는 키득키트 참여 친구들



▲ 키득키트에 쓰이는 재료 및 도구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주시는 작가님들과 김세령 사업담당



▲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주는 정승원 작가와 위명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 만든 집 예쁘가요? 좋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작고 꼬물거리는 손가락으로 오케이를 만들며) 네! 집이 너무 예뻐요~”

처음 화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에 낯설었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선생님들과 자연스러운 소통방법을 깨우치는 듯했다.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선생님들은 서서히 긴장이 풀렸는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졌다. 지금껏 비대면 교육을 해 본적 없었던 저학년 담당의 임남진, 정승원 작가. 그들이 겪은 인생일대(!)의 비대면 수업 교육은 어땠을까?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유튜버처럼 흥미진진하게(!) 라이브 수업을 진행한 그들에게 소감을 인터뷰해보았다.



▲ 임남진 작가(임),



▲ 정승원 작가(정)

Q.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키득키트’ 교육을 진행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임남진 작가(이하 ‘임’) (찬찬히 수업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며) 정말 떨렸고, 설 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 화가 될 거 같아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골목에서 소꿉놀이했던 어린 시절 기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어릴 적 기억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싶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지, 사실 이전에도 아빠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보니 오히려 가족과 추억 만들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원 작가(이하 ‘정’) 처음 있는 일이라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긴장도 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니깐 애들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니깐 저도 진짜 좋았어요. 집 제작을 하면서 제가 제작한 모빌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도 역시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가족들과 집을 함께 만들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만남의 시작은 코로나 때문이어서 좋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아이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Q.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임 어려운 점은.... (곰곰이 생각하며) 일단은 사람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ㅎㅎ 직접 대면하면 바로 눈빛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빠를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었죠. 요즘 세대 아이들은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 익숙해서 줌으로 화상 교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더라고요. 소통하는 것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소극적인 친구들을 직접 대면하면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만나니 더 신경 써주지 못해 아쉬워요.

정 직접 만나면 바로 피드백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답답했어요. 5명의 소수 아이이지만, 쑥스러워서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자주 하다보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 이러한 체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번 키득키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집을 만들었음 좋겠나요?

임 다양하게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집을 지으면 좋겠어요. 시중에서 보는 집 말고, 다락방이나, 또는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 ‘하품하는 집’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쉬는 공간으로 그것도 재밌잖아요. 비록 표현은 어설퍼도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집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 처음에 기획할 때 완성도라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제일 재밌는 건 아이들 각자가 서로 다른 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집이면 그냥 순서에 맞게 똑딱똑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니까, 더욱 자유롭고 즐거운 그런 재밌는 집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집을 꾸미기 위해 얼굴모양을 고르는 아이들

한편, 처음 비대면 수업으로 ‘키득 키트’를 참여한 아이들은 어땠을까?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한 추하랑(9), 추이랑(7) 남매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집안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자연의 집’을 완성하였다. 추남매의 학부모인 오주현 어머니는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웠다. 집 구조를 만들 때 잡아주라 할 때만 도와주고 거의 도와주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니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된 것 같아 만족스럽다. 선생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격려해주셔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자발적으로 잘 만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대면 수업은 우려와 달리 생각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대면으로 하면 선생님 도움에 의존하는 게 컸을 텐데, 비대면으로 하니 아이들이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룹별 소수진행으로 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SNS를 통해 쉽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전화위복으로 아이들이 유튜브TV처럼 소통하며 무언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채널이 생긴 것 같다. 이처럼 ‘키득키트’ 비대면 교육으로 완성된 집을 통해서, 키득키트를 위해 힘써주신 담당 선생님들의 바람처럼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키득키트’ 웃음이 가득하길 바란다.



▲키득키트를 만들고 있는 추하랑, 추이랑 남매

더 나은 아시아,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우리는 평범했던 예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없다. '지금'을 시점으로 새롭게 바뀌는 뉴노멀(New Normal)시대,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테러리즘, 기후변화, 차별과 혐오, 신자유주의, 환경오염,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러한 존재들은 사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닌 과거부터 꾸준히 인류에게 등장했던 고질병 같은 숙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숙제를 미루는 일도 이젠 임계점에 닿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모임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지난 10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명의 전환-뉴노멀시대, 문화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20 아시아문화포럼이 진행되었다.



▲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아시아 문화포럼

통신원 송진주

2020 아시아문화포럼 <문명의 전환-뉴노멀시대, 문화 연대의 가능성>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와 다르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되어, 누구나 어디서든 시청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대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비평가이자 정치운동가인 '노암 촘스키' 교수를 국제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만남이 어려웠지만, 온라인을 통해 화상 인터뷰할 수 있어, 이 시대의 기술력을 실감케 했다. 촘스키 교수는 '재난 사회와 문화적 연대'라는 타이틀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기적인 자본가들로 인해 지구온난화, 핵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이젠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강조했다.



▲ 특별대담으로 만나는 노암 촘스키

특별대담에 이어 총 4개의 세션으로, 주제세션 '인류세-위험사회-헤게모니'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및 인공지능, 기후 환경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주제로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김재인(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경운(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의 발제 내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드러난 인류의 위험징후들을 문명전환의 관점으로 진단하며, 위기의 대안으로서 연대와 협력, 문화예술의 역할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세 개의 세션 파트에서는 '문화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아시아 문화 연대의 방향', '지역문화워크숍 <광주청년 아시아문화를 잇다>'라는 주제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화, 예술계의 위기와 새로운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 큐레이터, 아티스트,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했다.

특히,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제자들이 제시한 사례 및 관련 데이터, 전문가적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유튜브 채널로 시청하는 참여자들 역시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하며 피드백 받을 수 있었다.



▲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시간

이처럼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비대면 대규모 행사인 만큼 이를 대비해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을 주소지로 배송하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및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상호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포럼 주제는 현 시대를 잘 반영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진지한 사고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동시 접속자들은 댓글을 통해 빛의 속도로 발제자들의 발표 의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면서, 지금 모습이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한 2020 아시아문화포럼은 영상은 향후 편집과정을 거쳐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 2020아시아문화포럼 참여자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 문화의 위기 속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이처럼 2020 아시아문화포럼에서 각 분야에서 매진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 한 켠에 잔잔하고도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다면, 그 시점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개개인의 사고가 전환해야 국가가, 세계가 변할 수 있기에, 이러한 우리의 첫걸음은 그 어떤 시도보다도 가치 있다.

펼럭이는 300인의 외침을 바라보다

통신원 송진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꾀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깃발」 청마(靑馬) 유치환

유치환의 「깃발」 첫 구절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깃발의 휘날림이 느껴지는가? 지난 6월 3주간 19일에 이르기까지, 300인 예술가들의 아우성이 광주 시내 금남로 및 광주천 부근 전역에서 펼럭였다. 우연히 시내를 지나치다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전시일까? 공연일까? 무언가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배너는 알고 보면 어마무시하게(!) 깊은 메시지가 담겼다.

이는 바로 광주문화재단에서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한 '300,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유치환의 「깃발」 첫 구절을 차용하여 300인 예술가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배너사업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계를 배너 설치를 통해 광주 시민들과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예술가들의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무언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배너 작품 이미지나 메시

<300, 소리 없는 아우성> 프로젝트

지에서 마치 고막을 자극하는 듯한 300인의 외침이 마음 속 울림을 준다.

예술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향 광주, 여기서 도대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프로젝트 '300, 소리 없는 아우성'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이 사업을 맡은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의 위정선 담당자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 예술가 주라영, 518 시계탑 근처



▲ 예술가 이복근, 전일빌딩245

Q. <300, 소리 없는 아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 동기가 있나요?

A.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자 많은 상반기 문화·예술 행사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었죠.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안으로 나온 아이디어인데, 적은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간부회의와 내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제안되고 결정된 프로젝트입니다.

Q. 이 프로젝트의 취지 및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출발은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광주 예술인만의 언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 예술가 나상세, 코로나 극복 메시지

Q.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A. 가로등배너도 평면을 활용한 인쇄물이기 때문에 시각예술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의 예술인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미지 한컷”과 텍스트로 된 “한 마디” 두 가지 유형으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최대 400건의 접수를 선착순으로 완료하면 모집을 마감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300개의 작품만을 선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예상하기로는 2주 정도 열심히 홍보를 하면 300명 참여자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공고문을 게시한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접수기간 이틀 만에 400건의 접수가 밀려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어요. 계획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300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보시다시피 금남로를 비롯한 구도심 곳곳에 예술배너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또는 에로사항 등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가장 놀랄 에피소드는 역시 접수기간 이틀 만에 400개의 작품이 접수된 일이었습니다. 재단이 마련한 아주 적은 지원금이었지만,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예술인들은 코로나 극복 메시지를 확산하는 이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셨어요. 덕분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볼까?”하는 마음으로 홍보담당 직원에게 페이스북 홍보를 부탁하고는 다음날 제발 빨리 내려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업은 예술인들 간에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산의 속도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된 며칠이었죠. 그러다보니 아쉽게 시간을 놓쳐버린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00개가 아니라 3만개의 예술배너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Q. 이를 본 예술가 및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A. 예술배너를 설치하고 나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시민은 몇 걸음 걸으면 작품이 보이고 또 몇 걸음 보이면 재미있는 글귀가 보여서 정말 눈 호강한다는 얘기도 해주셨구요. 어떤 예술인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금남로를 오랜만에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는 요즘 행사들이 취소되어 시민들과 소통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너를 통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2주 동안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1주일 연장해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Q.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담당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예술배너 한 칸을 저에게도 내어주신다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다시 오지 못할 소소한 일상과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네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 어떤 불안도 없는 날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300, 소리 없는 아우성>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예술가들은 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어땠을까? 참여했던 300인 예술가 중 시각미술 분야의 김은경 작가를 만나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 김은경입니다. 주로 스톱모션 기법으로 영상 위주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Q. <300, 소리 없는 아우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지인을 통해서 본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는데, 예술인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이라고 해서 안 즉시 급히 제출했어요. 그런데 공고 뜯지 거의 이틀도 안 돼서 조기마감이 되었던거구요. 신청 방법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예술가 심정미, 코로나 메시지가 담긴 배너



▲ 김은경 작가

Q. 뜨거운 호응 속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A.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가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지원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액수인데 문화재단에서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지역 예술가들에게 후원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 같아요.

Q. 본인 작품 이미지가 걸린 배너를 봤나요?

A. 시내 갈 일이 많지 않지만 배너 게재하고 이틀 후에 보게 되었어요. 어느 위치에 제 배너가 걸려있는지 명시는 안 되어 있어서, 제 꺼 찾아다니느라 한 30분 정도 시내를 배회했어요. 금남로 4가쪽에서 출발해서 '왜 내꺼 안보이지?'하면서 둘러보다가 마침내 찾아냈답니다.(웃음)

Q. 300인 참여 예술가로서 배너가 게재된 느낌은 어떤가요?

A.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 특히 청년작가들의 작업물이 걸리기 쉽지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는데 지원금도 빨리 받아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랐던 게 미술계는 보통 미술계통 사람들만 많이 아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예술가들이 계신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 진행된 <300,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땠을까? 지나가는 광주 시민에게 물어보았다.

시민A는 '처음에는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면 뮤지컬이나 전시 같은 거 하나보다 그냥 정보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각기 다른 배너들이라서 뭔가 다른(?) 배너들인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시민 인터뷰 (양은주, 20세),
<300, 소리 없는 아우성> 배너 옆에서 시민 인터뷰



▲ 김은경 작가, 518분수광장 근처 지하상가 입구

시민B는 '사실 막상 지나갔을 때 취지를 모르고 봤었는데, (통신원의 취지 설명 후) 좋은 기획의도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어려운 지역 예술가들에게 앞으로도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민C는 '광주에 이렇게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존재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300, 소리 없는 아우성>은 지난 3주간 예술가들의 펄럭이는 함성소리와 함께 거리에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존재를 알렸다. 그들 또는 시민들을 응원하는 서로의 따스한 마음이 오롯이 전해져, 앞으로도 그 깃발의 펄럭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행복은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통신원 신 누리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딱 한 개만 골라와서 했을 때도 뭘 듯이 행복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멍청하게 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한 연예인이 행복이란 무엇일까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생각이 난다.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동의한다. 행복이란 마음에 여유를 느낄 때 아닐까?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삶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에 행복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나의 행복의 기준은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여유로운 오전 10시 김남순 박사가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 설계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에서는 올해 첫 문화예술프로그램이었다.

2020문화예술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 설계>



▲ 2020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 예약확인 후 열 체크



▲ 질의응답 형식의 강의에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이번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 설계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보고 나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60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생의 중반을 달려왔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아직 시작이다. 60을 살아오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수많은 나날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60이라는 나이는 나는 지금까지의 나이를 3번 정도 살아야 한다. 이들이 답변하는 진중함에 나는 공감 할 수 없었지만, 인생의 중반을 조금이나 봐 생각해 보았다.

가장 무거웠던 질문, 글을 쓰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질문은 “행복하게 살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가늠할 수도 없었던 질문에 답변은 매우 간단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웃음)”

맞다,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부질없고 허무한 일생이 될 것 같다. 60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 말은 나는 20대에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보다 40년을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테니. 이 또한 행복이다.



▲ 행복에 대해 강의하는 김남순 박사

김남순 박사의 행복은 정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식물을 키우며 식물들과 소통하고 정원을 걸으며 힐링한다고 하신다. 정원은 2019년 생활 속 치유공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남도 민간인 정원 9호로 선정되었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유 밥상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하신다.

오늘도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전하시는 김남순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치유 정원으로 지정된 화순 허브뜨락의 김남순입니다.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35년간 근무를 하고 명예교수이며, 현재는 화순에서 허브뜨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허브 뜨락을 어떠한 형식으로 꾸려 가시나요?

A. 저희 뜨락의 신조는 그리스 시대의 정원학교 창시자인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르스라는 분은 소위 쾌락주의 철학의 바탕을 만든 분이시죠. 이 철학의 바탕은 인간중심이며 동시에 생태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에피쿠로스가 쾌락이라 인간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쾌락이라 정의하고 있고 현대 사회가 생각하는 쾌락과는 전혀 다르죠. 이러한 쾌락은 정원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저도 이러한 신조로 정원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공부하고 노동하며 같이 생활을 하는 정원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Q.허브 뜨락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A.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이나 역량을 알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인생 상담을 해줍니다. 산책하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알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병으로 인해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 노인과 중도 탈락 학생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치유 밥상을 먹으며 뜨락에 왔을 때 힐

링 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행복을 느낄 방법은 없을까요?

A.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극 속한 경제 성장과 이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정신 능력의 격차 즉 문화 지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균형 잡히지 못한 정신적인 수준과 경제 능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없애 줄 방법이 힐링,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따로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가는 감정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못 찾고 있을 뿐...

Q.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행복하신가요?

A.어떤 일을 하던, 어디에 있든 있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다 느끼면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식물을 보며 산책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가을이 되어 물으 익어가는 열매를 보며 행복을 느끼고 식물들을 보며 교감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을 느꼈네요(웃음)

미술관이 춤을 춘다고?

통신원 신 누리

뿌연 연기 속에 공연이 시작되었다.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무대에서 그 시작의 막을 올렸다. 10월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화려한 움직임으로 관객을 반겼다. '춤추는 미술관'이라는 타이틀로 애니메이션 크루가 공연을 선보였다. 춤추는 미술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술관에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 조형물 등이 살아 움직이는 상상을 현실화한다.



▲ 춤추는 미술관



▲ 공연 티켓

스트리트 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기술이 바탕이 되어 구성되었다. 무대의 배경에서도 맵핑의 기술이 화려하게 공연장을 꽉 채웠다. 박자에 맞게 동작에 맞게 변화하는 맵핑의 기술도 공연의 한몫이었다. 맵핑에 사용했던 화면도 박스로 분리하여 공연의 악기로도 사용하였다. 무대에 대한 활용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 한국의 미와 현대가 공전하는 무대

첫 시작을 알렸던 무대, 화려한 영상을 바탕으로 전통복을 입을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댄서들의 동작들도 화려한 안무로 구성되어 공연을 집중, 압도하였다.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대적인 안무 구성을 보여주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보여주는 첫 무대였다.

무대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었다. 애니메이션 크루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또한 무대 자체가 하나의 전시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애니메이션 크루는 한국의 스트리트 댄스와 힙합 장르를 결합하여 대중적으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가고 싶어한다. 2D의 이미지들을 3D로 구현하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애니메이션 크루는 많은 공연과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며 완성된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AMELICA'S GOTTALENT SEASON10'과 프랑스 방송 'THE BEST'등 국내외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한국의 스트리트댄스와 힙합을 앞장서 알리고 있다.



▲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

공연의 첫 이미지는 낮이 익었다. 스트리트 댄스에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에 스트리트 댄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무대였다. 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 가늠할 수 없는 노력으로 그들이 무대에 올랐는지 감히 상상조차 못한다. 한 동작마다 수많은 연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넘쳐 흘러 보였다. 그들의 노력에 관객들은 더욱더 박수 쳐 주었고 무대는 화려한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지금도 완벽한 공연지만 애니메이션 크루는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한 뼘씩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열정에 박수 쳐 주고 싶다.

공연 후, 열정적으로 무대를 마무리한 애니메이션 크루들에게 공연의 궁금한 점을 인터뷰하였다.

Q. 애니메이션 크루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 애니메이션 크루는 2004년 창단되어 올해로 16년된 스트리트 댄스팀입니다.

저희는 팝핀이라는 장르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주로 하고 있고 춤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 및 창작하는 단체입니다.

Q. 틀이 깨지는 무대를 만드는 점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무대를 구성 할 때 어려운 점이요.

A. 가장 어려운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그렸을 때 그걸 형상화 시키는건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도 많고 결과물이 처음 그렸던 이미지와 달라서 다시 처음부터 재작업을 하거나 엮었던 경험도 있고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음악, 의상, 영상, 조명등 다양한 부분과의 조율이 필요해서 많은 회의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Q. 작품과 퍼포먼스를 융합할 때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일단 의상에 페인팅을 하고 분장을 하고 움직이는거라 그냥 춤을 췄을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의상 자체가 물감을 흡수해서 의상 자체가 굳어버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현재는 위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Q. 공연 구성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 받으시나요?

A. 따로 큰 방법들은 없습니다. 영화, 책, 만화,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마무리하는 애니메이션 크루들

Q.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무대 있을까요?

A. 기억에 남는 무대는 저희가 처음 그림 퍼포먼스를 선보인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무대와 뮤직박스를 선보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무대가 기억에 남습니다.

- 코리아 갓 탤런트 같은 경우 생방송 전날까지 의상 및 배경 수정 작업을 했었고 고생한 만큼 작품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미국 방송이라는 큰 무대여서 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속에 생방송 무대까지 진출 하였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중요함도 알게 되었고 스텝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등 많은 것을 배운 무대였습니다.

Q. 대중들에게 어떠한 공연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팀의 모토가 '상상의 표현'인 만큼 다양한 상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억 되고 싶습니다.

Q. 오늘 공연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A. 마지막 관객분들과 함께 뛰면서 즐겼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기에 너무 즐겁게 공연을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 열정의 라틴

통신원 신 누리



▲ 빛고을 시민문화관 개관 10주년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공연을 선사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빛고을 시민회관 2층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다. 라틴, 라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정열의 춤 탱고! 매혹적이고 아름다워 낭만의 춤이라고 불리는 탱고와 라틴의 주제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여 줄 공연이 시작되었다.



▲ 공연의 진행을 맡은 문형식DJ

이번 공연은 5가지의 공연으로 'Salas, Flamenco, Tango, Latin Jazz, Reggae'로 공연을 이어나간다. 이번 공연에 동행하게 된 전문 문형식DJ와 함께 한다. 라틴이라는 분야에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걱정이었지만 문형식DJ의 설명이 라틴의 문화를 더욱더 잘 즐길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당기는 살사는 처음부터 춤의 용어가 아니었다고 한다. 소금을 뜻하는 'sal'과 'salsa'에서 유래 되었다. 1950년부터 1960년 뉴욕으로 이주한 쿠바인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발전시킨 리듬댄스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을 축제나 파티에서 널리 유행했다.



▲ 엄마랑 공연을 보러온 6살 지민이

공연을 시작되고, 처음에는 다들 흥을 감추며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일상을 잊고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즐기기 시작했다. 가사의 의미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음악에 맞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좋았다. 신나는 리듬의 연주와 살사의 춤까지 더 해지니 무대의 열기는 한여름 밤의 더위보다 후끈거렸다.



▲ 마안살사팀의 살사



▲ 라이슬라 보니파의 연주

이 공연은 단발성 공연이 아닌 시리즈 공연임과 동시에 매년 8월에 광주에서 열리는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등 지구촌의 음악들을 모여 월드뮤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 기획자 장용석 감독

Q. 장용석 감독과 라틴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A.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배운 후 남미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남미에서 영화와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몸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깐 라틴이란 장르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문화 속에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문화의 핵심 중의 하나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남미의 문화중인 라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 라틴의 매력을 소개하자면?

A. 우리나라에는 라틴 음악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과 스포츠 댄스로 쉽게 접하고 있어요.

라틴 음악은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 자지는 장르가 아닌 오랜 역사 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미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인도와 백인들의 이주로 합쳐진 문화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 퓨전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악 속에서도 퓨전의 역사가 녹아 있어요. 17년에는 라틴 그레미 어워드가 개최된 만큼 대중들에게

도 라틴의 음반 소비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구촌에서도 라틴이란 장르가 음악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틴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었구요. 라틴 음악에서는 사람 마음에 공감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Q. 다양한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새로운 감성으로 공연을 기획한 것 같아요.

A. 저는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월드 뮤직을 기획하면 공부를 많이 했고 이론적인 부분도 준비한 시간이 길어서 수월하게 이번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다른 음악인들에게 섭외를 요청했을 때에 흔쾌히 섭외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죠!

Q. 이 프로그램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지?

A. 기획자의 역할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공연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에요. 외국 뮤지션들과 협업도 기획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 많네요. 그러나 오늘의 공연은 요즘 힘든 시기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선물처럼 다가가고 싶네요.

Q. 기획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저는 세계 무속음악에 관해 한번 공연을 선보이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판소리와 재즈의 만남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기획들이 항상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실험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기획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만두를 빚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빚다

통신원 심솔아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울림>의 제88호 주제는 ‘새 문화를 엮보다’이다. 그런데 ‘전통문화예술강좌’라니. 사실 취재를 앞서든 생각은 왠지 너무 동떨어지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에 찾아가 강의에 참여하고, 강의하시는 민경숙 선생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 보니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음을 깨달았다. 그 때 문득 ‘법고창신’, ‘온고지신’이 떠올랐다.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어찌 있겠는가. 새 문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의 문화, 곧 ‘전통문화’가 있어야 한다. 남도의 ‘전통음식문화’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민경숙 선생님과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수강생들을 만나기 위해 전통문화관을 찾아가다.



▲ 무등산 자락의 전통문화관

전통문화관 전통문화예술강좌 <민경숙의 보양 찜 & 별미 전골>

무등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전통문화관은 광주의 도심으로부터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숲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장들이 전수활동과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국악공연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전통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강좌’는 시민들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통문화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강좌로 전통문화예술을 교육하는 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봄과 여름의 경계선에 있는 5월의 마지막 주,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중 ‘민경숙의 보양 찜 & 별미 전골’ 강의를 들여다보았다.



▲ 강의 준비를 하는 수강생들과 민경숙 선생님

서로의 건강을 위해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강의 준비를 하였다. 마스크에 가려져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의 마음만큼은 서로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인 ‘만두전골과 연근우영밥’을 소개하고 재료부터 소개하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 조리과정을 설명하는 민경숙 선생님과 경청하는 수강생들

먼저 민경숙 선생님께서 조리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며 조리 과정을 시연하였다. 만두전골에 들어가는 만두를 직접 만들기 위해 재료를 하나씩 손질하고, 재료를 볶고, 데치고, 섞으며 만두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선생님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강생들 모두는 집중하였고, 조리 과정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열심이었다.

만두소가 모두 만들어진 후에는 만두를 하나씩 빚고, 만두를 찌기 위해 냄비에 넣으면서 수강생들의 실습도 시작되었다. 선생님의 조리 과정을 하나씩 복기하며 수강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김치만두를 만들기 시작했고, 서로 도와가며 조리 과정 전체를 실습해볼 수 있었다. 특히 만두를 만들며 누가 더 예쁘게 만두를 빚는지 겨루어 보기도 하며 강의의 모든 과정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어머, 저 만두 장인인가 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웃음)”

수강생들의 소녀와 같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조

리실 가득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전해졌다. 그렇게 빚은 김치만두를 찜기에 넣은 후, 이번에는 만두전골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다듬고, 전골냄비에 김치만두와 각종 야채, 어묵, 버섯 등을 예쁘게 배치하였다. 이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와 양념장을 곁들여 끓여내어 만두전골을 완성하였다.



▲ 만두를 빚는 민경숙 선생님과 수강생들



▲ 빚은 만두를 보여주는 김윤경 수강생님

전통문화예술강좌의 ‘전통음식 강좌’의 마무리는 항상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완성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으며 정리된다. 수강생들은 각자 직접 만든 만두 전골과 연근우영밥을 먹으며,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하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의가 마무리된 후, 강의 내내 세심하고 친절하게 수강생들과 통신원으로 취재를 진행하는 나까지 챙겨주셨던 민경숙 선생님을 만나 ‘전통음식’과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오늘은 ‘만두전골과 연근우영밥’을 수강생들과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이번 상반기 강의 주제를 ‘보양 찜&별미 전골’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그동안 많은 전통음식을 주제로 강의를 해왔어요. 예

를 들면 ‘자연식’, ‘시·절식(일정한 시기나 계절에 맞춰 먹는 음식)’ 등에 대해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조들부터 전통적으로 상의 중앙에 ‘찜과 전골’을 놓았을 만큼 상차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찜과 전골’이기에 이를 주제로 정했고, 또한 주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부족한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음식이기에 함께 배워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김치만두와 연근우영밥, 그리고 점심 식사상

오늘 배운 만두전골도 만두 속에 여러 가지 재료, 고기부터 숙주, 파, 양파, 두부, 배추.. 등 다양한 영양소가 모인 완전식품이 되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더불어 전골을 하기 위해 해산물, 버섯, 야채 등 만두의 재료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재료까지 활용하여 더 완성된 하나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찜'이나 '선'이나 '전골'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완전한 식사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인의 상차림에서는 '찜이나 전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참여하는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런 것 같아요.

통신원) 실제 식생활에서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더욱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오늘 배운 만두 같은 경우는 빗어서 소량으로 얼려서 잘 보관해두면, 찜만두, 군만두, 전골, 국..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시도무형문화재 제17호인 남도의례음식장 기능보유자로서 남도의 전통음식을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선생님께서 전통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사실 여러가지 음식 중에서 '전통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워낙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전통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왔고, 전통음식과 함께 자라오다 보니 전통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음식을 좀 더 깊게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전통음식에 대한 공부는 곧 그동안 해오던 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배움의 시간도 가졌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 한식, 곧 남도의 전통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은 한 시대의 '문화'잖아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

더라도 음식 문화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식문화가 간소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음식은 가장 생명력 있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어 나가고자 남도의 전통 음식을 계승하고 사라져가는 향토 음식을 발굴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 '전통문화예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A. '전통문화'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해온 여러가지의 삶을 형태를 곧 문화라고 하여, 그 안에 다양한 분야로 하나하나 나누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특히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는 거의 맞물려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광주 무등산이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세계 지질학자들이 광주를 방문하였을 때, 세계 지질학자들의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온 많은 인사들이 남도의 전통음식을 맛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무등산'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광주의 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한 과정에 우리의 '전통 음식'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Q. 그렇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남도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더 마련해야 할까요?

A.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예술교육들은 보통 오늘 진행한 강의처럼 실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형태의 강의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교육의 장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강의에서는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전통문화예술, 전통음식 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단순히 조리실에서 음식의 조리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워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인문학의 한 부분으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전통음식 교육'에는 사실 토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전통음식에 대해 많은 강의를 해오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셨다면요?

A. 정말 많아요. 젊지만 우리 전통음식문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중 기억에 나는 수강생은 현재 영국에 가 있는 분인데요. 대학을 영국에서 나와서 한국의 회사에서 영국지사로 발령되어 나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 집으로 접대를 하게 될 계기가 많았는데, 이 수강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기에 한식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영국 음식으로 바이어들에게 접대를 했는데, 바이어들은 영국 음식이 아닌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대요. 그를 계기로 한식을 배우러 한국으로 잠시 귀국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한식을 배울 때에 정말 재밌어 하며 적극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요. 현재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영국에 가서 영국의 가든파티 문화나 홍차 문화도 적극적으로 배우면 어떨겠냐 조언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영국의 가든파티 문화와 한식의 문화를 조화시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겠죠?

또 근래에 미국인 남편을 둔 수강생도 기억에 나요. 최근에 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서 선생님 음식을 배우고 갔지만,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쉽다. 미국에

한식의 문화를 더욱 알고 싶는데, 선생님을 늦게 만나서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마음 한 켠이 찡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음식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기가 미뤄져 아쉬워 하는 학생도 있고, 모든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해했던 일본인 수강생, 겸임 교수로 재직했을 때 만났던 많은 학생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전통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발로 뛰어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귀한 '전통음식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웃음)

우리의 삶과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문화'. 우리가 오늘도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하루를 살아가 힘 얻을 수 있는 것도 오늘 만난 민경숙 선생님과 더불어 과거의 수 많은 선조들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음식의 조리법이 아닌 하나의 '문화'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민경숙 선생님,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더 나아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 단아하게 한복을 입으신 민경숙 선생님

“ 암전, 그리고 새로운 막의 시작

통신원 심솔아

연극에서 새로운 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더 멋지고 화려한 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암전 시간도 더욱더 길기 마련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암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꺼졌던 조명은 곧 다시 들어올 것이다.

자신의 대신에 한 평생을 누군가의 딸,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1막을 지나, 그동안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보려 하지만 막상 뭔가 하려니 힘들다. 인생의 2막은 1막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1막보다 더 길고 지루한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조금해지곤 한다. 새로운 막의 시작을 위해 잠시 암전의 시기를 맞은 경자씨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일까?



▲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자씨들과 강사



2020경자씨와 재봉틀 문화집단 열혈지구 '인생리품(다시쓰는 인생 에세이)'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서 있는 50~60대 여성들이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경자씨와 재봉틀’. ‘경자씨와 재봉틀’은 올해로 벌써 7년 차에 접어든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대표 브랜드 사

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집단 열혈지구의 운영으로 ‘인생리품, 다시 쓰는 인생 에세이’라는 주제로 신중년 여성들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참여자(경자씨)들은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한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시간을 갖는다.



▲특강 강사 김채원 배우

벌써 프로그램의 중반부에 다다른 시점에서 오늘은 현직 배우로 활동 중인 김채원 강사를 통해 연극과 무대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후 경자씨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미로센터를 찾은 경자씨들. 강사님을 바라보는 경자씨들의 눈빛에는 설렘이 드러났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풀고 싶은 욕망이 있어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채원 배우. 그가 말하는 ‘연기란 무엇일까? 그는 배우가 되어 누군가를 연기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자신 내면의 진짜 욕망을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 서로를 그리는 경자씨들

오늘 경자씨들은 나 자신을 온전히 알기 전에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빈 종이에 서로의 얼굴을 한 부분씩 그려나가며 서로를 관찰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니 신기하게 서로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적으며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어 자신이 지금 생각나는 것을 아무거나 그린 후 짝을 지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그림과 자신의 현재 생각을 설명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기 짝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나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발표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오늘 특강을 맡은 김채원 배우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한 것도 하나의 연기입니다. 연기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우리는 연기를 하면서 남을 알 수 있고, 또 나를 알 수 있어요.”



▲ 짝공의 그림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는 경자씨들



▲ 누군가의 꿈을 연기하는 경자씨들



이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연기를 실습해보았다. 종이에 나의 꿈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적어 종이를 접어 무작위로 뽑은 후,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어 직접 연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온하게 웃고 있던 경자씨들이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서자 순식간에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 혼자 여행을 떠나 악기를 연주하는 경자씨, 좋은 동시를 많이 남겨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경자씨, 대의원에 출마해 연설하는 경자씨.. 등 각자의 꿈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서로를 느끼고, 나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다양한 감정이 적힌 종이를 뽑아 그 감정을 연기해보기도 하였다. 순간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글썽이는 경자씨들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울림을 느꼈다.

오늘 경자씨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를 연기하며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내면의 자신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경자씨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던 오늘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후, 이번 ‘경자씨와 재봉틀’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집단 열혈지구의 전경화 강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올해 경자씨와 재봉틀을 운영하시는 문화집단 열혈지구와 주강사님 본인에 대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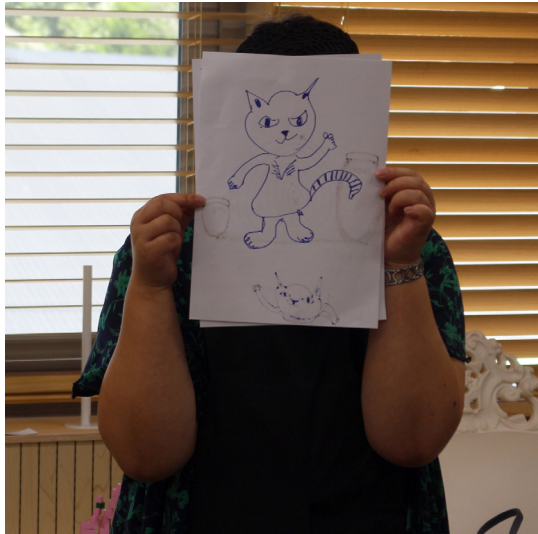
A. 문화집단 열혈지구는 ‘뜨거운 가슴으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버틴다’라는 모토 아래 모인 단체로 모든 사람과 연대하는 열린 단체입니다. 문학, 영상, 영화, 연극, 사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인 단체로서 다양한 콜라보 작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끊임없이 매일을 버티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이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체입니다.

Q. 올해의 ‘경자씨와 재봉틀’을 ‘인생리폼, 다시 쓰는 인생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생애전환’이라는 말은 가볍지만은 않은 하나의 관문 같은 상징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자씨들은 ‘낯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낯 세대’란 아래로는 자녀 양육 부담을, 위로는 부모 부양 부담을 동시에 짚어준 세대로, 베이버부머 세대를 말합니다. 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우리의 경자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민할 때 어떤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게. 뭔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아직 경자씨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소재이고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 경자씨의 작품을 소개하는 정경화 강사

에세이 쓰기를 일반적인 과정으로 기획하고 싶지 않았 습니다. 경자씨들의 니즈는 복잡하고, 때로는 위로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시작하려는' 경자씨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이름을 '인생리폼, 다시 쓰는 인생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의 에세이를 입체적 텍스트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특별한 삶의 마술을 함께 만들어 내며 자신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 그동안 '경자씨와 재봉틀'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옷이나 가방, 신발, 인형 등을 만들며 경자씨들의 인생을 알아가는 매개체로 삼곤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 경자씨들의 새로운 꿈을 찾게 될까요?

A. 실제 보여지는 매개체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재봉틀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내 삶을 들여다보며 구성해보는 시간이 주어진다

면, 다른 2막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까요. 아마도 매개체는 '나의 인생,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시키고 타자화시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자씨들은 나 이외의 사람들, 가족관계에 의해 여자의 삶을 보내왔습니다.

어느정도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50, 60대 여성들은 낯설지만 새로운, 두렵지만 기다려지는, 쑥스럽지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에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꿈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Q. 벌써 프로그램의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운영해오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A. 경자씨들은 때로는 소녀처럼 꿈을 꾸기도 했고, 때로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면의 이야기와 모습들이 있기에 모든 대상자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시 쓰는 인생 에세이가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눈빛이 빛나거나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때의 울림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Q. 더불어 운영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는 시대적 재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장마철이 한 달이 넘었고 많은 폭우로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방역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이 잠시 연기되기도 하고 공공기관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잠시 당혹스럽기도 하였지만, 정해진 차시 이외에도 비대면으로나 대면으로 대상자들과 피드백을 공유하며 어려움을 뛰어넘고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

요? 특히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을 맡고 계시면서 느끼는 바가 어떠한지 더욱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교육은 내가 보는 시야를 뛰어넘는, 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죠. 다른 식의 성취감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발달하고 오감이 자극되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넓게 확장하여 그 사회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생애전환교육은 더욱 힘을 내게 해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청춘은 이미 지났기에 이제 와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다 큰 어른들이 울먹이며 자신을 드러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곤 합니다. 아마 그 맥락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은 성장했지만, 성장이 아직 멈추지 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살피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자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그것 봐요. 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 빼는 거 하지 말기로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니깐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흥 유전자가 있어요.

아무도 날 응원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처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두 손을 짹 펴서 박수를 세 번 ' 짹 짹'치고,

양 손바닥을 마찰시켜 따뜻해진 그 손으로 내 얼굴을 매만져주고,

내 머리로 꼭꼭 눌러주면서

'나는 예쁘다, 잘한다, 잘했다, 괜찮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세요.

아자아자 경자씨들 파이팅!"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자신의 진정한 꿈과 욕망을 찾기 위해 인생의 새로운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경자씨들. 그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차시에 자신들의 이야기로 무대에서 '인생리폼' 공연을 할 예정이다. 경자씨들의 새롭게 꾸며질 인생의 2막을 기대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예술로 연결하는 온택트 축제

통신원 심솔아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추가열, ‘행복해요’ 가사 중-

평소 많이 들어본 멜로디의 밝고 경쾌한 포크송을 듣는 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행복하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화면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며 노랫말을 되새기니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많은 문화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이유도 사연도 가지각색이지만 공통적인 점은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와 직장에서의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었던 친구나 지인들과의 약속도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이며 한 달에 한 번은 가던 미술관과 영화관도 방문이 조심스러워졌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교류 활동이 줄어든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만남과 소통으로 활동을 이어오는 지역의 예술동아리들이 있다.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게 달라진 예술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그들이 함께 준비한 온택트 축제 ‘쉼, 예술로 담다’가 개최되었다.

202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온택트 축제 ‘쉼, 예술로 담다’



▲ '아트, 셀위토크'가 이루어지는 전일245 현장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 참여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인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술동아리 총 40개 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매개자인 코디네이터의 동아리 컨

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동아리 구성원 간의 만남과 교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동아리 활동 방향을 정비하고 온라인을 통해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온택트 축제로 기획됐다.

예술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과 코디네이터가 참여하여 공예, 음악, 연극, 강연 콘텐츠를 기획하였고,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토크콘서트 및 사전 공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가득 채워진 이번 행사는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예술동아리 회원 400여 명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온택트’라는 말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며 우리 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사회 전반에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온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이들이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 각종 활동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이번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온택트 축제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져 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세부 콘텐츠를 살펴보면 크게 공예 키트 체험, 영상 콘텐츠, 문화 예술 강연 및 토크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예술로 짓는 손-공예 키트 홈 체험'은 김태희 코디네이터의 참여로 이루어져 키트가 제작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발송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동아리 회원들이 '비즈 마스크 줄과 무드 등'을 만들어 보며 공예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바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콘텐츠이다. 온택트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눈길을 끌었다. '무대 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송선미 코디네이터의 시놉시스로 배역의 특징을 살리면서 무대에서 조명을 잘 받을 수 있는 무대 메이크업의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이다. 국악, 연극, 공연 모델 3명이 등장해 무대 메이크업을 직접 시연하여 평소 우리가 몰랐던 무대 뒤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리얼 연극 다큐'는 연극배우를 꿈꾸는 아마추어 연극 동아리를 대상으로, 실제 연극이 제작되는 현장 전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다. 최진영 코디네이터의 기획으로 진행된 다큐멘터리 영상은 온라인예술극장 지원사업 선정단체 아트에듀의 '우리집이야' 연극 제작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담았다.

'온택트 콜라보 : 행복해요'는 한신희 코디네이터의 기획 및 영상, 음원 작업을 통해 2020년 음악동아리 활동 결과를 3분여의 시간에 보여주었는데 그 울림이 정말 깊었다. '행복해요(추가열, 2009)' MR에 맞춰 보컬, 합창, 악기 연주, 인형극 등 콜라보 공연 형태로 영상 및 음원으로 제작되었다. 12개의 동아리가 전일245 옥외공간, 호신대학교, 아트폴리곤, 동아리 연습실 등 광주 지역 곳곳의 장소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불렀던 노래가 하나로 합쳐지니 감동은 배가 되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이 짧은 영상을 꼭 보길 추천한다.

마지막 콘텐츠인 문화 예술 강연 및 토크 '아트, 셀 위 토크'는 문화 예술계의 다양한 저명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초청되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일 차에는 정우철 도슨트(EBS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극장), 2일 차에는 인재진 감독(자라섬재즈페스티벌총감독), 3일 차에는 윤광준 사진작가(심미안수업 저자)와 함께 광주의 역사, 문화적인 공간인 전일245에서 강연과 토크콘서트가 이루어졌다.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참여한 예술동아리 회원들의 즉석 질의응답으로 소통하고 강



▲ '아트, 셀위토크' 강연자 정우철 도슨트, 인재진 감독, 윤광준 작가

연 내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토크콘서트 사전 공연이 진행되어 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필자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한 현장은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총감독인 인재진 감독의 '축제 현장에서 에피소드'라는 주제의 강연 및 토크콘서트 현장이다. 잠자는 자라섬에 재즈를 불어넣은 인재진 감독은 공연계의 마이너스손에서 엄청난 미다스의 손이 된 그의 이야기는 문화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동아리 회원들에게 기획자의 입장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 많은 귀감이 되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2003년 시작되어 어느덧 17회를 맞이했다. 가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이 이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문화적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야외에서 하는 다양한 음악, 공연 예술 행사가 시작된 시발점이 되어 공연예술계의 트렌드를 바꾸게 된 큰 역할을 하게 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재즈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즈페스티벌을 여는 곳이 되었으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축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실 자라섬은 방치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었던 섬이었다. 심지어 비가 많이 오면 물에 가라앉아 섬 자체가 사라졌다가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곳이었다. 이렇게 버려져 있던 섬에 재즈라는 장르가 접목되어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의 섬이 되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인재진 감독과 가평과의 연관성이다. 어떤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인재진 감독은 2000년 호주의 Jyrki Kangas 감독을 만나 핀란드의 Pori Jazz Festival을 알게 되며 작은 인연과 만남에서 시작해 가평에서의 축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침, 예술로 담다' 영상 콘텐츠



▲강연 중인 인재진 감독

좋은 사례를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짜 만들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 낸 인재진 감독. 그렇다면 축제를 어떻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단 축제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다. 콘텐츠가 명쾌해야 앉아있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

더불어 축제를 더욱더 쉽게 알리기 위해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로 먹거리이다. 축제는 일탈의 시간이자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축제를 만들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세 번째는 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이 일정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축제가 될 것이다. 재방문의 사가 50% 미만으로 나오면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는 축제이다. 네 번째는 축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매해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로 다섯 번째는 항구성이 있어 축제의 노하우를 꾸준히 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축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가야 한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바로 자원봉사단이다. 매년 7:1의 경쟁률로 뽑히는 자라섬페스티벌의 자원봉사자들은 10년 차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축제에 대해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이유가 자라섬페스티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인생을 매일매일 축제처럼 지내세요! 흥미진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라며 웃으며 강연을 마치는 인재진 감독님을 보며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스스로에게 정말 행복한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낸 축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라섬페스티벌을 통해 행복과 긍정의 영향력을 선사했던 것처럼 나도 내 분야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아트, 셀위토크'

에서 정말 멋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온택트 축제 '쉼, 예술로 담다' 또한 자라섬페스티벌이 문화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했듯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위로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단순히 예술동아리 회원들의 교류나 역량 강화 시간을 넘어,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참여하며 문화예술이 주는 긍정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통신원 최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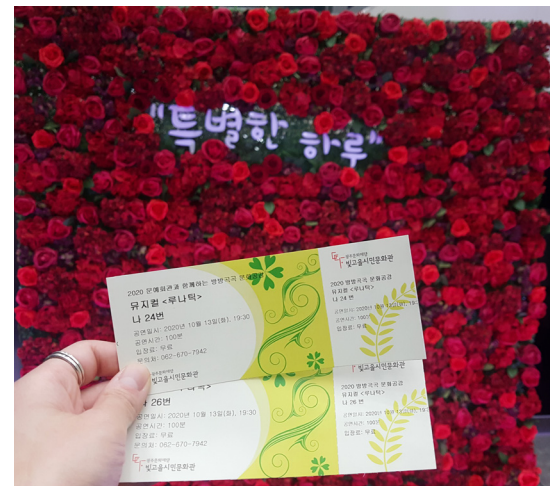
요즘 느끼는 세상은 근근이 미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 이제 더는 평생직장은 없어
기댈 수 없는 현실, 자기계발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취미생
활을 하면 현실 감각 없다는 분위기, 토요일마다 기대하며
부여잡는 종이 쫓가리 일확천금의 로또, 쓸데없이 길어지는
기대수명, 눈 뜨기 싫은 월요일...

이런 생각이 힘들어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별거 아닌 이유로 시비 끝에 싸워 상해를 입혔다거
나 사소한 것으로 쉽게 흥분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끔찍한 일에도 무감각하고 지나치게 침착하거나 우
울하고 침울한 내용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나름
잘살고 있다. 어쩌면 이 미쳐가는 세상에 잘 적응한 미친 사
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 정신 나간 현실을 살 수 있는
것은 웃을 일이 있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를 버틴다.



▲ 루나틱 포스터

뮤지컬 루나틱



▲ 오늘날만큼 특별한 하루 되세요!



▲ 루나틱, 이제 시작합니다!

※ 앞으로의 내용을 아주 많은 스포일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모인 정신병원 루나
틱은 정신과 의사 '굿 닥터'와 환자들의 이야기가 즐거리
이다. 이 병원의 특징은 환자들을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역할극과 노래와 춤을 통
해 마음의 치료를 하고자 한다. 닥터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공감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시작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 - 사랑의 배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이성을 유혹 수 있다고 자부하는 카
사노바 '나제비'는 어느 날, 정말로 마음에 든 여성을 만나
게 되며 진정한 사랑이라 느낀다. 자만심, 잘생긴 얼굴, 많
은 재력을 가진 나제비는 사연 많은 그녀의 빛까지 대신
값아주었다. 꿈에 그리던 결혼식 당일, 나제비는 나타나지
않는 신부를 기다린다. 그때, 경찰이 식당에 나타나 그녀
가 전과 7범의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나제비는 이
성을 끈을 놓게 되고 그 충격으로 루나틱에 입원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 - 고부 관계

일찍이 떠나버린 남편과 10년 넘도록 치매를 앓는 시어머
니 병시중, '고독해'는 아주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길어지
는 시어머니의 병원 생활에 효부 없다고 인내심의 한계까
지 온 고독해에게 어느 날, 죽은 남편의 동생이 나타나 더
는 병원비를 대줄 수 없다며 시어머니가 숨긴 땅문서를
찾아내라고 협박한다. 모아둔 돈도 병간호하며 다 써버린
고독해는 결국 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지고 고독해의 스트레스 역시 고조되던 와중, 시어머니의 혼잣말에 땅문서의 힌트를 얻고 찾으러 갔지만 이미 땅은 팔린 뒤 다른 이에게 양도가 되어있는 상태였다. 희망 끝에 절망을 본 고독해는 화풀이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저질러 버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그길로 집을 나가버리고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다.

시어머니의 장례 중 변호사가 찾아와 고독해에게 땅과 재산을 남겨줬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뜻을 알게 된 고독해 역시 충격으로 루나틱에 입원한다.

세 번째 에피소드 - 정상인

루나틱은 관객과 소통하는 극이다. 극의 중간마다 앞자리에 있는 관객에게 질문하며 장난치다 무대로 올라오도록 한다. 굿 닥터는 관객에게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하며 관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관객은 ‘정상적인’ 행동을 숨김없이 말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나열한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기 위해 동생의 아들(조카)을 납치한 것과 동생의 아내(형수)에게 사랑 고백한 것을 털어놓으며 “다 모두를 위한 정상적인 행동이었어”라고 미처서 소리친다.

굿 닥터는 “환자분, 이제 정신 차리세요.”라고 일깨워주며 모두에게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가요?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같이 관람한 친구 J양은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인공들의 사연과 치료과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코로나 19 이후 많아진 회사 업무에 너무 바빠 불평을 한 적이 있다. 되돌아보니 세상의 많은 직장인이 다들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상황 역시 지나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미친 듯이 집중하여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길 바란다.”

라며 한 줄 평을 주었다.



▲ “어차피 미친 건 미친 게 아니야 루나틱 락엔롤”

뮤지컬 루나틱 중 관객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며 관객과 함께 춤을 추며 마무리한다.

“어차피 미친 건 미친 게 아니야~ 루나틱 로큰롤”

옛날 같았더라면 대서특필되었을 살인과 같은 각종 강력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않을 사회적 틀에 꾸역꾸역 살아갈 현실에 우리는 아마도 이미 미쳐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하여 말 그대로 조금 미친다면 행복해질지도 모른다. 줄임말 중에 ‘복세편살’이라는 단어가 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뜻이다.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다.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진다.

이 미쳐버린 세상은 어두컴컴하지만 항상 밤하늘의 달빛처럼 반드시 빛은 있다. 그러니 미쳐서 살아버리자.

“어차피 미친 건 미친게 아니야~ 루나틱 로큰롤”

광주를 빛낼 성악가

통신원 최혜림

성악가는 자세를 고쳐 서서 목을 가다듬는다. 반주자와 성악가는 눈을 마주친다.

피아노 건반 위의 일렁이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리고 아리아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율성음악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광주 출신으로 중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신인 성악가 발굴 및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젊은 성악인을 위한 등용문이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광주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0 광주성악콩쿠르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총 참가자 141명이 신청하였다. 지난 8월 1일 1차 예선을 시작으로 8월 15일 2차 예선을 걸쳐서 본선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 역대 최다 신청자를 기록한 광주성악콩쿠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소 긴장한 듯 표정과 발걸음으로 무대에 오른 젊은 성악가들은 이내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습한 기량을 발휘하였다. 여유 넘치는 몸짓과 미소는 심사위원들이 아리아에 빠져들게 하였다. 때로는 가슴을 움켜쥐며 절절한 감정을 보여주다가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을 바라보며 큰 무대를 본인만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현장

본선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김성길 교수의 심사평이다.

“좋은 목소리와 재능을 지닌 미래 성악가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아직 젊은 참가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이지만 결국 성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음색과 음량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소리로 표현해야 할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됩니다. 소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곡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악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았으면 하는 선배 성악인의 당부입니다.”

라며 대한민국을 빛낼 성악가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긴장감 넘치는 본선을 마치고, 이번 광주성악콩쿠르에서 1위 우승을 거머쥔 바리톤 이종환 성악가와 함께 인터뷰를 하였다.



▲ 광주성악콩쿠르 1위 수상자 이종환
(사진촬영: 가능한 창작관 / 광주문화재단 제공)

Q. 어떤 계기로 성악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A. 저는 고3 때, 조금 늦게 성악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대학교를 진학해야 했기 때문에 성악이 도피처라고 생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뒤늦게 배운 성악이지만, 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고 주변에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콩쿠르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가곡을 연습하였습니다. 가사 속지나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사를 자주 읽으면서 감정선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Q. 평소 자신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A. 긴장이 많이 될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고 더 긴장 되어 그냥 계속 걷는 것이 저에게 가장 긴장을 잘 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A. 정말 얼떨떨합니다. 1위를 수상한 기회로 여기에 머

무르지 않고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광주성악콩쿠르를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A. 졸업 연주와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하고 노력하며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광주성악콩쿠르는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실력 있는 차세대 성악가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젊고 많은 성악인이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에 도전하길 바라며 미래의 성악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음
크
리
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첫 걸음

통신원 최혜림

지난 7월 1일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마지막 회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소통하며 즐기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기관과 단체를 육성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현장을 발굴하도록 합니다. 이 날의 현장은 사업 기반을 위하여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의미의 인큐베이팅의 단어 그대로 신규 운영단체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경험이 거의 없는 단체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광주 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회차였습니다.



▲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현장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현장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현장에서 광주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의 이형동 차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주말 예술 배움터에 대해 소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주말예술배움터는 예술적 상상과 놀이를 통해 일상이 즐거워지는 주말 문화예술교육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그 가족이 대상이 되어 토요문화학교일에 예술을 즐기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예술을 표현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접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 교육현장방문, 전문가 컨설팅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단체가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목표 설정 및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교육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단체의 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풀뿌리처럼 곳곳에 퍼져 작은 거점을 이루게 되고 작은 거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삶에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Q. 모든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단체 관계자와 전문가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4주 동안 강의, 인터뷰, 사업계획서 검토, 컨설팅까지 세심하게 진행해주신 전문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시도하는 단체에 좋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밑거름이 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문화예술교육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고 함께 표현하면서 소통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찾아내고 공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과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밖 교육 또한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요즘 교육의 트렌드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접함으로써 보다 즐겁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주의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를 선별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를 키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한 나무가 되도록 도와주신 컨설팅 위원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노정숙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Q. 이번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의 컨설팅 위원으로서 이번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단체에 어떤 점이 기대되시나요?

A. 교육의 본질은 학(學)과 습(習)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경험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거점의 예술 배움터가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예술의 향기를 품고 발전하는 교육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큐베이팅 단체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기초설계와 같은 작업들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열정과 순수함이 아이들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출발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가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같은 대상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A. 토요일문화학교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문학과 예술이 결합한 융·복합적인 교육을 추구합니다. 보통의 교육에서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대상자들에게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은 한 마디로 창의 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육대상자들을 예술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 방과 후 수업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A. 학교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라면 주말예술배움터는 습(習)의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도 실습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는 학교 밖에서 배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Q. 컨설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있으셨나요?

A. 교육제공자 또한 기존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능 위주의 교육을 전달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자로서 교육제공자인 단체들에 예시를 보여주어 교육 경험치를 쌓게 하여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의 교육

방식을 받아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Q. 저희가 배운 것들이 주입식 교육이라 그런가요?

A.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학(學)과 습(習) 대해 말했는데, 학교가 가르침 중심의 교육이 된 이유는 경쟁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하므로 정형화·표준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컨설팅하시면서 본인이 느낀 변화가 있으신가요?

A. 교육기획자 역할을 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동안 심의나 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 교육 컨설팅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컨설팅하다 보니 저의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단체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저의 경험이 교육으로 전달되어 학습자들에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며 다시 열정이 생겼습니다. 단체의 초심을 보고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Q. 교육대상자인 가족과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 갔으면 하는 것과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A. 먼저, 가족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예술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여 공동체에서 가족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참여라면 교육 대상자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하여 인문학과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상을 이해하고 넓은 사고력을 가지며 발상의 전환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화예술교육이란 교육의 본질인 학습을 통해 예술을 발현하는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대상자가 이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빛과 에너지를 지닌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힘을 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에 기초를 둔 풀뿌리교육이며 개성을 포용하고 공동체를 이해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힘을 지니고 가지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는 학교 수업과는 달리 점수가 아닌 인문학과 예술을 이용하여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현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의 가족이 문화예술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애(愛)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 단체 중 현대미술을 매개로 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드영 미술관 김수정 학예연구실장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 이번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인큐베이팅 컨설팅에 참여하셨어요. 이후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같은 대상자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떤 점이 기대되시나요?

A.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술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뭔가 기술이나 기법에 관해 탐구한다고 떠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화교육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펼치도록 그냥 두는 것이죠. 미술관에서 하는 현대미술은 아이들과 가족 간의 소통하기 위한 혹은 가족 간의 친밀감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동안 교육자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은 기술이 아니라 매개체로서 가족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며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Q. 컨설팅 과정을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A. 토요문화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과정에 집중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결과물을 얻어내는 교육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건 제가 그동안 받아온 예술교육의 틀에 박혀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예술학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는지에 집중하였어요. 아직도 그 틀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이 갔다고 생각해요.

Q.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느낀 변화가 있으신가요?

A. 계획서를 쓰면서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차원이 높아지고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예술교육은 점점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존의 교육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Q.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셨군요?

A. 네. 다들 미술관은 갖춰져 있는 체계적인 곳이라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미술관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틀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고 싶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전의 교육방식은 일방적이다 보니 교육대상자가 교육이 된 건지 확인하지 않고 교육했다는 사실에 자체에 만족하는 거죠. 주말예술배움터를 통해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대상자가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대상자에 대해 많이 공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Q. 이제 곧 드영 미술관에서 주말예술배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족과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하나요?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 목표는 요즘 가족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현대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해결해 보고 싶어요.



▲ 컨설팅 중인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노정숙 대표

두 번째 목표는 사람들은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흰 도화지를 받으면 어떻게 채워야 할지 겁을 내요. 하지만 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낙서를 하든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대범함, 창의력, 사고력 같은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Q.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다는 행동 자체가 이 교육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A. 맞아요. 손바닥에 물감 칠하는 것도 그냥 미술인데 우리는 항상 점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기술, 결과보다는 그냥 해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또 다른 가족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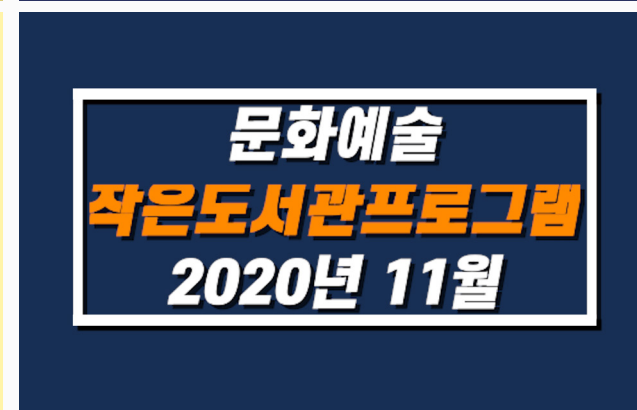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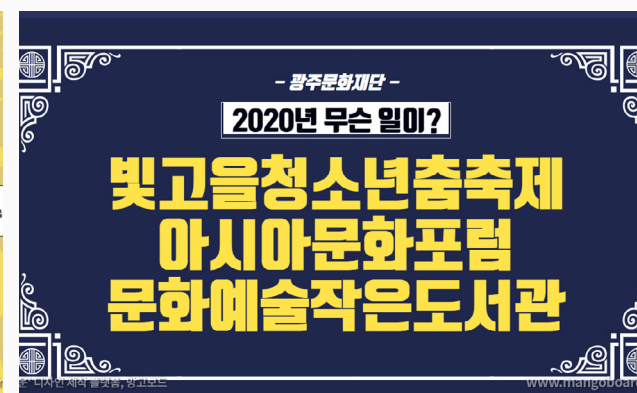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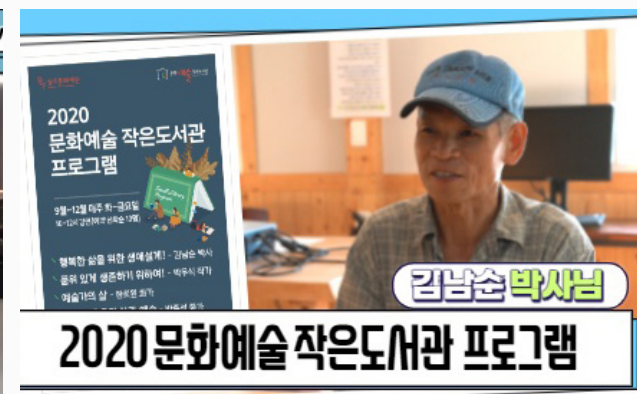
이제는 교육은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스스로 창조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개성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울림

영상통신원 활동

통신원 취재 영상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울림

뉴스레터

2020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2



발 행 처 광주문화재단
발 행 일 2020년 12월
기 획 광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구 성 오현진, 김태희
주 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길)
전 화 062) 670-5763
팩 스 062) 670-5769
이 메 일 gjarte@daum.net
홈페이지 www.gjarte.or.k
디 자 인 (주)상상오 / 070-7524-6526
인 쇄

